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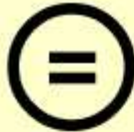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8년 8월  
석사학위 논문

# 한국어 교재의 연어 제시 방안 연구

- 독일어 교재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 혜 숙

# 한국어 교재의 연어 제시 방안 연구

- 독일어 교재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

A Study on Presentation Methods of  
Collocations in Korean Learning Textbooks

- A Comparative Analysis with  
German Learning Textbooks -

2008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 혜 숙

# 한국어 교재의 연어 제시 방안 연구

- 독일어 교재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

지도교수 최 재 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 혜 숙

# 박혜숙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2008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ABSTRACT

제 1 장 서론 . . . . .	1
제1절 연구 목적 . . . . .	1
제2절 선행연구 . . . . .	3
제3절 연구 대상 및 방법 . . . . .	9
제2장 어휘 교육에 있어서 연어 교육 . . . . .	11
제1절 어휘 교육의 대상 . . . . .	11
제2절 어휘 교육에 있어 연어 교육의 중요성 . . . . .	14
제3절 연어의 개념과 범주 설정 . . . . .	20
1. 외국어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본 연어의 개념 . . . . .	22
2. 연어의 국어학적 개념 . . . . .	27
3.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어의 개념과 범주 설정 . . . . .	33
제4절 연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 . . . . .	38
1. 연어 학습 모형 . . . . .	39
2. 연어 목록을 활용한 연어 교육 방법 . . . . .	45

<b>제3장 교재 분석</b> . . . . .	49
제1절 교재 분석의 대상과 기준 . . . . .	49
제2절 연어 선정의 적절성 비교 . . . . .	53
1. 학습용 기초 어휘의 반영 비교 . . . . .	53
2. 단계별 학습량 비교 . . . . .	67
제3절 연어 제시의 적절성 비교 . . . . .	68
1. 연어 제시의 배경 . . . . .	69
2. 제시 형태 . . . . .	72
제4절 학습한 연어의 활용 및 확장을 위한 연습 과제의 제시 비교 . . . . .	87
제5절 결과 분석 및 제안 . . . . .	91
1. 결과 분석 . . . . .	91
2. 한국어 교재의 연어 제시 방안 . . . . .	95
가. 연어 목록 선정에 관한 제안 . . . . .	95
나. 연어 제시 방안을 위한 제안 . . . . .	99
다. 연어 제시 방안의 예 . . . . .	101
 <b>제4장 결론</b> . . . . .	 110
 참고문헌 . . . . .	 114
부록 . . . . .	121

## <표 목차>

<표 1>	이승연·최은지(2007: 312)의 학습자 말뭉치와 한국어 일반 말뭉치 언어 사용 목록 비교의 한 예: 명사 ‘생활’에 관한 언어 사용 양상의 비교 . . . . .	7
<표 2>	언어의 범주(임유중 2006: 174) . . . . .	33
<표 3>	한국어 교육 대상으로서 언어의 범주 . . . . .	35
<표 4>	Siepmann(2004)의 언어 학습 모형 . . . . .	39
<표 5>	언어 구성의 단어 결합 . . . . .	41
<표 6>	실험에서 실시된 집단별 어휘 학습 활동 방법(이정원·김낙복 2005: 117) .	43
<표 7>	실험에서 실시된 각 학습 과정의 학습 활동들(이정원·김낙복 2005: 118) .	43
<표 8>	분석 대상 교재 . . . . .	51
<표 9>	이대 교재 급별 언어목록 . . . . .	54
<표 10>	이대 교재 급별 언어목록 중 학습용 기초 어휘에 속하지 않는 언어 목록 .	56
<표 11>	서울대 교재 급별 언어목록 . . . . .	57
<표 12>	<Themen aktuell> 급별 언어 목록 . . . . .	58
<표 13>	<DaF Wortschatz> 언어 목록 . . . . .	63
<표 14>	각 교재에 제시된 언어의 단계별 학습량 . . . . .	67
<표 15>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에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시된 언어와 그 주된 배경 . . . . .	74
<표 16>	<서울대 교재 3>에 반복 제시된 언어와 그 빈도 . . . . .	75
<표 17>	각 교재의 언어 정보 제공 양상 . . . . .	87
<표 18>	각 교재의 연습 과제 도입 비율 . . . . .	91
<표 19>	각 교재의 언어 제시 양상 . . . . .	93
<표 20>	이승연·최은지(2007: 312)의 명사 ‘마음’에 관한 학습자 말뭉치와 한국어 일반 말뭉치 언어 사용 비교 . . . . .	97
<표 21>	주제별 언어 목록의 예: 일상생활-의식주/초급/표현 언어 . . . . .	102
<표 22>	주제별 언어 목록의 예: 일상생활-의식주/중급/표현 언어 . . . . .	102



<표 23>	주제별 언어 목록의 예: 일상생활-의식주/고급/표현 언어 . . . . .	102
<표 24>	주제별 언어 목록의 예: 일상생활-의식주/이해 언어 . . . . .	103

## <그림 목차>

<그림 1>	단어의 결합 관계(Hausmann, 1984) . . . . .	24
<그림 2>	단원의 문법 제시와 연계된 언어의 명시적 제시 및 활용의 예 . . . . .	77
<그림 3>	듣기 과제와 연계된 언어의 명시적 제시의 예 . . . . .	78
<그림 4>	말하기 과제와 연계된 언어의 명시적 제시의 예 . . . . .	79
<그림 5>	읽기 과제와 연계된 언어의 명시적 제시의 예 . . . . .	80
<그림 6>	쓰기 과제와 연계된 언어의 명시적 제시 및 활용의 예 . . . . .	81
<그림 7>	단원 주제와 연계된 언어의 확장을 위한 연습 과제의 예 . . . . .	90

## <부록 목차>

<부록 1>	이화여대 교재 언어 목록 및 항목별 분석 자료 . . . . .	121
<부록 2>	서울대 교재 언어 목록 및 항목별 분석 자료 . . . . .	125
<부록 3>	<Themen aktuell> 언어 목록 및 항목별 분석 자료 . . . . .	127
<부록 4>	<Themen aktuell> 언어, 관용어의 의미 . . . . .	132
<부록 5>	<DaF Wortschatz> 언어, 관용어의 의미 . . . . .	138

# ABSTRACT

## A Study on Presentation Methods of Collocations in Korean Learning Textbooks – A Comparative Analysis with German Learning Textbooks

Park Hye Suk

Advisor : Prof. Choi Jae-Hee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develop Korean learning textbooks by researching effective and systematic presentation methods of collocations, according to recent tendencies of language education. It is aimed also to expose the importance of teaching collocation as the most effective resource in expanding language proficiency.

This Study is divided up into four chapters.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the established research on collocations, focusing on research in view of language learning and the study of Korean language.

The second chapter concentrates on the importance of teaching collocation and to review it's definition in various studies, thereby giving a definition for the collocation as a target of Korean learning as follows: Collocation is a relationship of more than two words, which should be recognized as a word group to understand und express it's meaning. The study suggests also to

include idioms and grammatical collocations to the category of collocation and to differentiate 'collocation for expression' from 'collocation for comprehension'. In addition to this, various practical models of teaching collocations are introduced.

On the definition above, the third chapter is devoted to analyse the presentation phenomena of collocations in Korean and German language learning textbooks. Targets of analysis are the Korean learning textbooks of Ewha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men aktuell and DaFwortschatz as German learning textbooks(1~3 level students- and workbooks respectively). The criteria of analysis are the following 3 aspects: adequacy of selection of collocations, adequacy of presentation methods of collocations and offer of Drills for expanding and exercising of collocations which are learned yet.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a few problems of Korean learning textbooks. The following two problems are the most urgent to improve. First, the quantity of collocations in each level are too different, especially few collocations were presented in the level 1. It should be rectified to offer regular quantity of collocations in each level considering the degree of difficulties and theme of lessons. Second, the collocations, which are presented in relationship with the theme of each lessons, are not connected with the learning process for lack of information about patterns of collocation and appropriate Drills for exercising.

On the base of the preceding argument and analysis were suggested selection- and presentation methods of collocations in Korean learning textbooks in the fourth chapter. The study suggests to make a collocation list for the Korean learner as follows: First, select collocations with high frequency in use of Korean native speakers. Second, among them select the collocations of which base belong to the 'basic vocabulary for Korean learning'. The important suggestion for presentation methods in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llocations should be intended and systematically presented, and in the process of 'present - offer of information about patterns - practice'. Second, the Presentation methods of collocations should be developed in two different cases,

that is in a complex textbook and in a textbook for vocabulary learning. Third, 'collocations for expression' and 'collocations for comprehension' should be presented and practiced in different ways. Collocations for expression should be presented from textbook for beginners and connected to appropriate exercises for practical use, against the collocations for comprehension can be presented focusing on understanding their meaning and practiced to promote the fluency of the advanced learners. Fourth, the collocations should be presented intendedly and repeatedly for their thorough learning.

The study concludes by presenting a few practical models for presentation of collocations in Korean learning textbook considering above suggestion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목적

최근 외국어 교육에 있어 어휘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어휘 습득은 제2언어 또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임과 동시에 문법이나 발음 부분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언어 교육의 역사에 있어 어휘 교육에 관해서는 문법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는 어휘를 단지 문법 학습의 도구나 읽기 학습의 부차적인 누적물로 여겼던 청각 구두식 교수법과 구조주의적 접근법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인지주의와 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식 접근법이 등장하면서부터였으며, 최근에는 어휘 교육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어휘 교육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휘적 접근법(lexical approach)을 비롯한 최근의 어휘 중심 교육 이론은 특히 개별 어휘가 아니라 “전체 또는 덩어리말로서의 어휘구를 이해하고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to comprehend and produce lexical phrases as unanalyzed wholes, or chunks)”(Lewis, 1993: 95)에 주목해 왔다. 이는 덩어리말 또는 어휘구를 이해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전통적으로 ‘문법’으로 여겨지던 언어의 형식(pattern)들을 학습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일차적인 정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Lewis(2000: 8)는 또한 “정말로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칙, 즉 그 단어의 문법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really ‘knowing a word’ involves knowing it’s grammar - the pattern in which it is regularly used.)”고 말하고, 중급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법 교육이나 개별 어휘의 학습 비중을 줄이고 연어(collocation)<sup>1)</sup>를 학습하도록

해야 하며, 연어 학습이 모든 언어 학습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이 여전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이해 영역보다 표현 영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어휘를 단순히 개별적으로 습득하면서, 그 어휘들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 즉 연어에 관한 지식을 함께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문장 안에서 연어 표현을 접하게 될 때는 개별 어휘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해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어휘를 활용하여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휘들 간의 통합적 관계 또는 의미적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어휘의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읽기 학습이나 문법 학습을 통한 우연적이고 산발적인 연어 학습이 아니라, 계획적인 연어 학습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사용 양상에 관한 최근 이승연·최은지(2007: 312)의 연구는 중급 이후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사용 능력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고급 단계에서의 어휘 교육 과정에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어 중심 어휘 지도가 영어 어휘발달에 끼친 영향에 관한 이정원·김낙복(2005)의 연구나 문학작품 읽기를 통한 연어 습득 향상률을 연구 조사한 Reder(2001)의 연구 또한 계획적인 연어 학습의 효과를 뒷받침하며, 기존의 교재 및 학습 활동 과정을 재고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연어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도구의 개발, 사전 편찬, 교수 학습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우선 학습자가 연어의 정확한 의미 관계와 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를 통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한국어 교재들은 연어 교육뿐 아니라 체계적인 어휘 교육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효과적인 어휘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연어 제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연어는 학자에 따라 덩어리말 대부분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그중 특정한 결합 형태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개별 어휘가 긴밀한 결합 관계를 이루어 함께 쓰이는 것을 말한다.

## 제2절 선행 연구

언어에 관한 연구는 크게 언어의 구성 및 유형에 관한 언어 이론적 연구와 외국어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언어 교육적 연구, 언어 정보처리를 위한 자연 언어처리적 연구 및 사전 편찬을 위한 연구가 있다.

Firth(1951)가 동의어나 반의어와 같은 어형적 관점에서 어휘의 의미를 기술하던 이전의 방법과는 달리 통합적인 차원(syntagmatic level)에서 어휘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어라는 용어를 도입한 이래, 언어에 대한 언어 이론적 연구는 주로 어휘적 구성 접근법(the lexical composition approach), 의미론적 접근법(the semantic approach), 구조적 접근법(the structure approach)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어휘적 구성 접근법은 단어들이 함께 쓰이는 단어들로부터 그 의미를 부여 받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고, 의미론적 접근법은 문법과 별개인 의미적 구조를 기초로 하여 언어를 조사하려고 시도하였다. 구조적 접근법은 언어는 구조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므로 언어 연구는 문법론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여겼다(정대성 2000: 182-191; 김진해 2000a: 7-12 참조).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언어 이론적 연구보다는 외국어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논의된 바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이에 앞서 한국어 어휘 교육의 대상으로서 언어의 개념 및 범주를 정의하기 위한 토대로서 언어에 관한 국어학적 논의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언어에 관한 국어학적 연구로는 이희자(1995), 양영희(1995), 최경숙(1997), 한영균(1997), 강현화(1997), 남길임(1998), 김진해(1999, 2000a, 2000b), 홍종선 외(2001), 서상규(2002), 임홍빈(2002), 이숙명(2002), 임근석(2002, 2005), 이동혁(1998, 2003, 2004), 박진희(2005), 임유중(2006), 박이정(2008) 등이 있다. 이 중 언어 자체에 관한 본격적인 국어학적 논의는 이동혁(1998)과 김진해(1999, 2000a, 2000b)에 이르러서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언어 구성에 관한 본격적인 이론적 연구보다는 관용 표현에 관한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함께 이루어지거나(이희자, 1995; 양영희, 1995),

‘체인+용언’꼴과 같은 특정한 결합 관계(강현화, 1997) 또는 기능동사(최경숙, 1997)나 합성구(한영균, 1997) 등에 제한되어 이루어지다가, 이후에는 대량의 코퍼스 구축을 계기로 하여 통계적 처리(홍종선 외, 2001; 서상규, 2002) 및 사전 편찬(남길임, 1998) 등의 주제를 위주로 하여 이루어졌다.

김진해(2000a)는 국어 연어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음을 지적하고, 이를 선택의 단일 방향성, 심리적 현저성<sup>2)</sup>, 특정 의미 관련성, 구조 변형의 의미 의존성, 경계의 모호성, 특정 언어집단 의존성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전체 언어 범주를 포괄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연어의 복합적인 의미 관계 및 유형을 고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언어 구성에 대한 자세한 유형 분류와 더불어 연어의 의미적 결합 양상에 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는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 언어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서의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임홍빈(2002)은 연어의 정의와 유형 분류에 대한 Mel'čuk(1995)<sup>3)</sup>의 이론과 다양한 국어학적 논의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한국어 연어의 개념과 통사·의미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연어가 기본적으로 일정한 문법적 구성에 나타나는 두 어휘소 간의 어휘적인 선택 관계이며, 따라서 문법적인 요소에 크게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언어 관계는 어휘소를 선택하는 관계이므로, 의미 선택과 구별된다고 하였다.

임홍빈(2002: 302-306)의 연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문법적 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어로 제시된 구성들 가운데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구성들과 어휘적 언어와의 관계 규명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는 Mel'čuk(1995)이 연어를 어휘적 언어에만 한정된 것을 비판하여 문법적 언어의 설정을 주장하고, 김

---

2) 김진해(2000a: 17)는 공기하는 어휘에 대한 연상이 현저하며, 서술어가 아닌 체언이나 부사에 의해 다른 어휘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언어와 자유 결합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3) 임홍빈(2002: 286-287)은 언어 관계가 어휘소와 어휘소 사이의 의존적인 공기관계라는 점에서는 Mel'čuk(1995)과 견해를 같이하나 Mel'čuk(1995)이 의존적 관계를 설명한 방식과 내용에는 의존 관계의 정도, 언어변의 의미 함유 여부, 언어와 어휘 함수와의 상관관계 확인 가능성의 세 가지가 선명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진해(2000a)<sup>4)</sup>와 이희자(1995)<sup>5)</sup>에서 형태 통사적 언어로 제시된 구성들 가운데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구성만을 준-언어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이희자(1995)에서 통사적 언어의 예로 제시된 ‘마땅히/반드시 -어야 한다’와 같은 구성에서 ‘마땅히’나 ‘반드시’와 ‘-어야 한다’의 공기 관계는 그리 긴밀한 것이 아니지만, ‘밥을 먹어야 산다’에서와는 달리 ‘하다’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므로 이를 불규칙성으로 인정하여 ‘-어야 한다’의 부분만을 언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의 연구로는 이숙명(2002)의 언어 유형에 관한 연구와 임근석(2002, 2005)의 어휘적 언어에 관한 연구 및 문법적 언어의 특징에 관한 연구가 있고, 박진희(2005)는 언어 제약과 통사적 선택 제약의 비교를 통해 언어 범주의 설정을 시도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이 주로 언어의 범주 설정 및 유형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면 최근 들어서는 언어의 관별 기준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유중(2006)에서는 다국어 언어 DB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한 언어의 개념 설정과 범주 한정 관점에서 언어의 개념과 범위 한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관점을 비교하고, 구체적인 언어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임유중(2006: 156-174)은 이제까지 주를 이루었던 언어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즉 언어가 어휘 차

---

4) 김진해(2000a: 43, 131-148)는 국어의 교착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특정한 조사와 어미와 결합하여 구나 절을 도입하는 경우를 형태·통사적 언어 구성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 내용어들간의 문법적 표지로써 조사나 어미가 사용된 경우는 어휘적 언어 구성으로 보아, 형태·통사적 언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①부사에 의한 형태·통사적 언어: 양태 부사에 의한 언어와 부정 극어에 의한 언어로서 단지 -ㄴ 뿐이다/-밖에 없다, 결코/감히/도무지/도저히/미처/아무도/아무것도/조금도 ~ ‘아니/못하다/없다/-ㄴ 수 없다/말다’, 만약/만일/가령 -면 따위, ②의존 명사에 의한 형태·통사적 언어: -는 길에, -ㄴ 날에, -ㄴ 따름이다, -기 때문이다 따위, ③보문 동사에 의한 형태·통사적 언어: -기를/-을 것을/-고 명령하다, -음을/-을 것을/-고 주장하다, -지 걱정이다 따위.

5) 이희자(1995: 421-430)는 언어를 의미적 언어, 통사적 언어, 형태적 언어로 나누어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의미적 언어: 구성 요소들이 그의 의미의 함으로 일정한 뜻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요소들의 전의에 기초하여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쓰이게 된 것들로 ‘뒤가 팔리다’, ‘속이 타다’, ‘더위를 먹다’류, ②통사적 언어: 관용적인 어절의 결합이 통사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들로 ‘오줌이 마렵다’, ‘절대로 ~ 아니다’, ‘물구나무를 서다’류, ③형태적 언어: 고정된 어휘꼴이나 혹은 극히 제한된 활용꼴로 나타나는 어휘론적인 현상으로 설명되는 어절들의 관계로 ‘~바람에’, ‘~에 대한’, ‘-ㄴ가 보다’류.

원의 제한된 결합이라는 관점과 결합 빈도를 중시한 관점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 두 가지 언어 개념을 절충하여 하나로 묶는 방식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언어가 어휘 차원의 제한된 결합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sup>6)</sup>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언어 선정의 기준을 어휘 선택 제약, 의미 해석의 투명성, 격틀 변화, 구조 변형, 선택의 단일 방향성 등으로 정리하고, 그 중 어휘 선택 제약과 의미 해석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하여 어휘적 유사어 대치 검증에 제약이 있는 것들 중 언어학의 의미가 투명한 유형을 언어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한편,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한 언어 연구로는 문금현(1998, 2002), 한송화·강현화(2002), 박숙영(2005), 양수향(2007), 이승연·최은지(2007) 등이 있다.

언어를 활용한 어휘 학습 방안에 관한 한송화·강현화(2002)의 연구는 언어 또는 관용구에 관해 기존에 진행되어 온 국내의 논의들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 제시하고<sup>7)</sup>, 이들과 관점을 달리하여 언어 교육적 입장에서 언어의 범주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범주 설정의 근거와 실효성에 관해서는 좀 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이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범주를 설정하는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어 교육 대상으로서 언어의 실제적인 범주 설정과 그에 따른 학습 단계별 언어 목록의 선정에 관한 부분은 제2장 제3절 언어의 범주 설정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문금현(2002) 또한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언어 학습 방안에 관한 연구이나, 기존 한국어 교재와 문어 자료 및 구어 자료를 분석하여 급별 한국어 교재를 위한

6) 임유중(2006: 150-152)은 이에 관한 이유로 언어를 어휘 차원의 제한된 결합으로 보는 관점이 인간의 인지나 언어적 직관에 부합하며, 언어 교육, 사전 편찬, 언어 정보 처리 등과 관련한 연구나 작업들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점을 들었다.

7) 한송화·강현화(2002)는 언어 또는 관용구에 관해 기존에 진행되어 온 국내의 논의들을 ①관용구, 혹은 관용표현에 관한 연구, ②관용어 혹은 관용적 표현과 구분한 언어 연구, ③넓은 개념으로서의 결합관계에 관한 연구, ④기존의 '언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매우 넓은 개념으로 언어를 접근한 연구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①에는 강위규(1990), 홍재성(1995a), ②에는 김진해(1999), 양경모(1995), 조석중(1981), ③에는 홍재성(1995b), 이병근 외(2000), ④에는 홍중선 외(2000)의 예를 거론하고 있다.

언어 목록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교재에서 이들의 제시 방법 및 학습 방안,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언어 목록은 언어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나<sup>8)</sup>, 외국어로서 한국어 어휘 학습 대상으로서의 최초의 언어 목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언어 목록 선정의 면에서 이승연·최은지(2007)의 학습자 말뭉치와 한국어 일반 말뭉치의 비교 분석은 주목할 만한 작업이다. 이승연·최은지(2007)는 학습자 급별 공통 어휘 명사 목록을 추출하여<sup>9)</sup>, 이들 명사가 학습자 말뭉치와 한국어 일반 말뭉치에서 보이는 언어 사용 양상을 기준으로 용언과의 결합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언어 사용 양상을 한국어 모어 화자의 그것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1> 이승연·최은지(2007: 312)의 학습자 말뭉치와 한국어 일반 말뭉치 언어 사용 목록 비교의 한 예: 명사 ‘생활’에 관한 언어 사용 양상의 비교

		주어-서술어	목적어-서술어
생활	학습자 말뭉치	어렵다(초·중·고), 편하다(초·중·고), 불편하다(초·중·고)	하다(초·중·고), 보내다(초·중·고)
	세종 말뭉치	어렵다, 시작되다, 곤궁하다, 넉넉하다, 궁핍하다 등	하다, 시작하다, 영위하다, 청산하다, 누리다, 꾸리다, 보내다, 향유하다 등

8) 문금현(2002)에서는 서울대학교, 선문대학교, 연세대학교의 한국어 교재와 시, 소설, 수필, 신문, 사전 등의 문어 자료 그리고 방송 드라마 대본, 토크쇼, 일상 대화 등의 문어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그 출현 빈도에 따라 급별 언어 목록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세 자료에 모두 여러 번 출현한 것들은 초급 단계의, 모두 출현한 것들은 중급 단계의, 모두 출현했으나 어려운 것들은 고급 단계의 언어 목록에 포함시키고, 한 자료에만 출현한 것들은 제외시켰다.

9) 이승연·최은지(2007)에서는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학습자 말뭉치를 대상으로 어절 빈도를 분석하여, 빈도 50회 이상으로 출현한 고빈도 명사의 1차 목록을 구하고, 이 목록을 대상으로 언어 관계 양상을 기준으로 하여 용언과의 결합 관계를 검색한 후, 한국어 고빈도 명사 100개와 중복되는 것들을 추려 2차 목록을 선정하였다. 여기에 기존 교육용 기초 어휘 자료를 참고로 추가할 것과 제외할 것을 더하고 빼서 최종 학습자 명사 목록을 선정하였다.

<표 1>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승연·최은지(2007)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드러난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 양상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초급에 비해 중·고급에서 언어 사용 능력이 특별히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언어 사용에 있어 어휘 선택보다는 조사 선택의 오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두 가지 양상은 모두 명시적 언어 학습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 언어에 관한 국어학적 연구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행해진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밖에 영어, 독일어 등 외국어 교육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언어 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로 정대성(2000), 한진석(2001), 최수정(2001), 지순정(2003), 이정원·김낙복(2005), 구명철(2006), 현태덕(2007) 등의 연구가 있다.

최근 들어, 국어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언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 언어에 관한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세 연구 외에 학습 방안(박현정, 2006)이나 어휘 교육을 위한 언어의 활용 방안(박숙영, 2005) 및 언어 오류(홍혜란, 2007; 양수향, 2006)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최근 들어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언어 사전」(김하수 외, 2007)의 출판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한 일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언어 교육에 있어 어휘 교육이 문법 교육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을 점차 대신해가고 있다. 한국어 어휘 교육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언어에 관해서 좀 더 신뢰도 높은 교육용 기초 언어 목록의 선정, 교육 과정 및 교재에 있어서의 언어의 제시 방안, 학습 방법 및 도구의 개발, 사전에서 언어의 등재 방식, 언어를 통한 어휘 학습 효과 및 언어 오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3절 연구 대상 및 방법

언어 학습을 위해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는, 한국인들의 사용 빈도와 급별 난이도에 맞게 선정된 어휘를 의사소통식 학습 목표와 교수·학습 방법에 맞게 제시하고 또한 제시된 언어의 활용 및 심화·확장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과제를 통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현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에 있어 언어 선정과 제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외국인을 위한 타 언어권 교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언어 학습에 관한 논의와 교재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어휘 학습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외국인을 위한 자국어 교육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보다 훨씬 더 오랜 경험과 수정의 과정을 거쳐 온 다른 언어권의 교재와 한국어 교재를 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어 교재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언어 제시 방안의 발전적 모색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장에서는 어휘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언어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고, 언어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여 한국어 교육 대상으로서의 언어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도록 한다. 언어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논의로는 먼저 외국어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국외의 논의를 정리해 보고, 언어에 관한 국어학적 관점 그리고 한국어 교육의 관점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현행 한국어 교재와 독일어 교재에 있어 언어 선정 및 언어 제시 양상의 적절성 그리고 어휘 학습을 위한 효과적 학습 활동과의 연계 여부 등을 비교 분석한다. 한국어 교재와의 비교·분석 대상으로 독일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어보다 외국어로서의 자국어 교육의 경험이 많은 언어 교재와의 비교라는 측면과 함께, 독일에서 최근 언어 교육에 대한 현장 연구가들의 연구가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언어 선정의 적절성 비교를 위해서는 한국어와 독일어 급별 교재에 제시된 언어

목록을 추출하여, 각기 학습용 기초 어휘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고, 언어 학습을 위한 선정 여부 및 단계별 언어 제시 수를 통해 단계별 학습량을 비교해 본다. 언어 제시의 적절성 비교를 위해서는 각 교재의 언어 제시 부분과 제시 형태 등을 항목 별로 비교해 본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언어의 활용 및 확장을 위한 연습 활동과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 및 제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 목록 선정 및 효과적인 언어 제시 방안을 모색해 본다. 또 이에 따라 실제 언어 제시의 예를 구성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 제2장 어휘 교육과 언어

### 제1절 어휘 교육의 대상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외국어 교육에 있어 어휘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어휘 중심 교육법 또는 어휘적 접근법 등의 용어에서 어휘가 의미하는 바는 종래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어휘’(vocabulary)와는 다른 층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Lewis가 그의 저서<sup>10)</sup>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문법 중심의 교수 학습 방식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아온 어휘적 접근법(lexical approach)은 “전체 또는 덩어리 말로서의 어휘구를 이해하고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은 언어 습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덩어리말은 전통적으로 문법이라고 여겨져 오던 언어의 형식들을 학습자가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정보가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Lewis, 1993: 95)<sup>11)</sup>. 이에 따라 어휘적 접근법은 학습자들의 어휘(lexis), 단어(words) 또는 단어 결합(word combinations)에 관한 숙달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Lewis(1993)에 있어서의 어휘(Lexis)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12)</sup>

- (1) a. 어휘(Lexis)는 언어의 기초다.
- b. 언어 교수에 있어서 어휘는, 문법이 언어의 기초이며 문법 체계를 숙달

---

10) Lewis, Michael(1993), “The lexical approach”.

11) “It is based on the idea that an important part of language acquisition is the ability to comprehend and produce lexical phrases as unanalyzed wholes, or “chunks,” and that these chunks become the raw data by which learners perceive patterns of language traditionally thought of as grammar”, Olga Moudraia(2001) 재인용.

12) 이하 Lewis의 어휘 및 어휘 항목에 관한 내용은 Olga Moudraia(2001)를 참조.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잘못된 가설 때문에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 c. 어휘적 접근법의 핵심 원칙은 ‘언어란 어휘화된 문법(lexicalized grammar)이 아니라 문법화된 어휘(grammaticalized lexis)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 d. 모든 의미 중심 교수요목(meaning-centered syllabus)의 중심이 되는 원칙들 중의 하나는 어휘가 되어야 한다.

Lewis(1997)는 이러한 어휘를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 (2) a. 낱말(words: ‘book’, ‘pen’)
- b. 다어(polywords: ‘by the way’, ‘upside down’ 등)
- c. 연어 또는 함께 쓰이는 단어 결합(collocations or word partnerships: ‘community service’, ‘absolutely convinced’ 등)
- d. 제도화된 발화(institutionalized utterances: ‘I’ll get it’, ‘We’ll see’, ‘That’ll do’, ‘If I were you’,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등)
- e. 문장의 틀이나 문장 핵(sentence frames and heads: ‘That is not as ... as you think’, ‘The fact/suggestion/problem/danger was...’, ‘In this paper we explore ...’, ‘Firstly’, ‘Secondly’, ‘Finally’ 등)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어휘적 접근법에 있어서 어휘란 단순히 개별 어휘가 아니라 연어(collocation)와 제도화된 발화(institutionalized utterances) 및 문장의 틀이나 핵(sentence frames and heads) 등을 포함한 표현들이다.

Lee-Smith(2006: 461)는 Lewis(1993)에 있어 ‘어휘(lexis)’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vocabulary)보다 큰 범위로서, 낱말을 포함하여, 구, 절 등은 물론 관용 표현, 개념 은유 등 문장 층위의 어휘까지 다양한 층위의 어휘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휘’와는 혼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lexis’를 ‘층위로서의 어휘’로 부를 것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어’, ‘취소



하다’, ‘가볍다’ 등과 같이 낱말 층위의 자립적인 어휘만이 아니라, ‘-(으)면서’, ‘-아/어/어서’, ‘-(으)르 때마다’와 같은 연결 어미나, 의존용언 표현 ‘-고 싶다’, ‘-아/어/여 보다’, ‘-(으)르 수 있다/없다’와 같이 여러 형태들이 하나의 덩어리를 구성하여 고유한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의존적인 구 층위의 어휘들도 모두 어휘, 이른바 덩어리 어휘라는 것이다. 나아가 ‘그건 그렇고’, ‘첫째, 둘째, 셋째, …끝으로’, ‘내 생각에는…’, ‘내 말은…’ 등과 같이, 의사소통에서 유용한 문장 핵(sentence head) 기능을 하는 형태와, ‘인생은 여행이다’와 같은 은유나 관용표현들도 모두 넓은 의미의 어휘로 보고 있다.<sup>13)</sup>

이에 따라 Lee-Smith(2006)는 어휘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층위의 개별 어휘들을, 주로 함께 쓰이는 다른 어휘들과의 결합적인 관계까지 보여줄 수 있는 연어(collocation)로서 제시하는 것이며, 연어적 정보는 곧 어휘 정보, 어휘 문법으로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교사의 역할은 덩어리 어휘들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인식해서 그 개념과 쓰임을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도록 돕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이라는 것이다.<sup>14)</sup>

오늘날 한국어 어휘 교육 또한 단순한 개별 어휘가 아니라 덩어리로서의 어휘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어 교육에 있어 어미와 조사 또는 용언이나 의존명사와 조사 등이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며 굳어진 형태로 사용되는 것들은 어휘 영역보다는 문법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강현화(2005: 72-73)에서는 한국어 어휘 교수의 대상에는 연어나 관용 표현뿐 아니라 ‘-겠더군요’, ‘-있더군요’와 같은 어미 결합형이나, ‘-에서야말로’, ‘-에조차’ 등과 조사 결합

13) Lee-Smith(2006: 462)에서는 이들을 ‘다어 (multi-words)’로 지칭하고 있다.

14) “낱말 층위의 어휘를 교수-학습할 때에는 특히 개별 어휘가 가지는 다양한 확장 의미와 쓰임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연어(collocation)를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결혼하다’를 ‘-하고 결혼하다’로 제시하여 초급 학습자들이 많이 생산하는 조사의 오류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초급에서부터 기본어휘인 ‘무겁다’의 경우, ‘가방이 무겁다’처럼 ‘무겁다’의 기본의미만을 실현할 수 있는 결합 어휘뿐만 아니라, ‘어깨/마음/입/책임이 무겁다’와 같이 확장 의미/은유를 표현할 수 있는 명사-용언의 연어를 제시하는 것이 유의미한 어휘교육일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한국어 교육에서는 연어 학습 사전이나 어휘 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Lee-Smith(2006: 462).

형, ‘-에 대하여’, ‘-임에도 불구하고’, ‘-르 따름이다’와 같이 용언의 활용형이 제약되면서 특정 조사와 어울리거나 의존명사가 특정 관형형과 어울려 나타나는 덩어리로 굳어진 구들도 포함되며, 이들은 문법 교육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어휘 교육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중 일부 형태는 연어에 관한 국어학적 논의에서 형태적 연어(이희자, 1994), 형태 통사적 연어(김진해 2000a), 문법적 연어(임홍빈, 2002; 임근석, 2005) 등의 범주로 논의되어 온 것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행 한국어 교재들은 이들을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정한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된 이들 항목에 따라 사실상 교수요목이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다분히 조사와 접사 또는 어미 활용에 의해 다양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한국어의 교착어적인 특성 때문이기는 하나, 한국어 어휘 교육의 관점에서는 이에 관해 좀 더 다각적인 고찰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제2절 어휘 교육에 있어 연어 교육의 중요성

앞에서 어휘적 접근법의 기본 관점을 소개하면서 어휘 교육은 개별 어휘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주로 함께 쓰이는 다양한 층위의 개별 어휘들의 결합적인 관계까지 보여줄 수 있는 연어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우리가 단어들을 덩어리로 배우고 기억하며, 따라서 단어의 이해와 사용도 연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Bolinger(1976)는 언어 학습은 단어 형성 규칙에 의해 형태소 단계에서 시작해서 단어 단계를 거쳐 구절 형성 규칙을 작동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즉 언어는 단어가 연어를 이루게 되는 단계에서 구절로서 저장된다는 것이다. 또 제2언어 교수에 있어 연어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구체적인 연어 교수·학습 방법을 도입하려 노력한 Brown(1974)은 연어 지식의 증가가 말하기와 듣기 이해와 읽기 속도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하였

다.<sup>15)</sup>

이 절에서는 이러한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우선 언어의 이해 능력 및 표현 능력과의 관계 안에서 살펴보고, 관용어 등 다른 덩어리말보다 언어에 관해 특별히 명시적인 교수·학습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언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어휘의 이해 능력을 위해 중요하다. 외국어 학습자가 접하게 되는 실제 언어 자료는 다양한 어휘 항목과 어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별 어휘들은 홀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휘와의 통합적 관계, 의미적 상관관계 안에서만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는 데 언어학습의 기본적인 중요성이 있다.<sup>16)</sup>

한송화·강현화(2002: 300-301)<sup>17)</sup>에서는 어휘의 의미 이해를 위한 언어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첫째, ‘나다, 치다, 지다, 내다’ 등의 동사는 결합되는 명사구가 없는 경우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다.

둘째, 동사나 형용사의 대립 관계(반의 관계)는 언어 정보 없이 단순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즉 ‘창피를 주다’의 반대는 ‘창피를 받다’가 아니라 ‘창피를 당하다’이며, ‘가벼운 부상’의 반대는 ‘무거운 부상’이 아니라 ‘심한 부상’이다.

그러나 개별 어휘와 구별되는 언어의 특수성은 언어의 표현 능력과 좀 더 관계가 깊다. 언어의 특성 중의 하나는 문장 안에서 언어 표현을 접하게 될 때는 특별

---

15) 이상 Bolinger(1975)와 Brown(1974)에 관해서는 정대성(2000: 180)을 참조하였다.

16) 이정원·김낙복(2005: 115-116) 참조. 이정원·김낙복은 많은 문법 구조나 언어 기능이 상당 부분 언어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가 언어 구조의 핵심이라는 증거가 자연스러운 코퍼스 자료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므로 언어 학습은 의사소통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17) 한송화·강현화(2002: 300)에서는 언어의 중요성에 관해 어휘의 의미 이해라는 측면 외에 사전에서의 어휘 의미 정의에 언어가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노란 국화꽃’, ‘누런 이빨’, ‘빨빨 흘리다’, ‘텅 비었다’와 같은 어휘 간의 호응 정보(공기 정보)가 어휘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어려움 없이 이해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어떤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연어 표현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이 개별 어휘만 가지고는 어휘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외국어 학습자는 어휘에 관해 의미 파악에서보다는 표현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바로 이 점에서 일반적인 어휘 학습과 구별되는 연어 학습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가 ‘나는 지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라는 한국어 문장을 접했다고 하자. 해당 학습자가 ‘결정’이라는 개별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또한 ‘결정을 내리다’라는 연어 표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같은 문장을 표현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상황에 처한다면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그는 ‘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 문장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반드시 고민하게 될 것이다. 영어로 ‘결정을 내리다’가 ‘make a decision’이므로 학습자는 ‘나는 어려운 결정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 독일어로 ‘결정을 내리다’는 ‘eine Entscheidung treffen’이고 ‘treffen’은 한국어로 ‘만나다’에 해당하므로 학습자가 독일어 화자라면 우선 ‘결정을 만나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습득한 개별 어휘가 실제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표현 능력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연어 지식의 습득이 필수적이다.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 두 영역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 어휘 교육에 있어 연어 교육이 자유 결합이나 관용어, 속담 등의 교육과 달라야 하며, 가까운 범주에 속하는 관용어나 속담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국어 학습자가 ‘시험’이라는 명사를 배운다고 가정해 볼 때, ‘시험’과 함께 쓰이는 [체언+용언]의 결합형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3) a. (시험을) 보다, 실시하다, 출제하다, 치다, 치르다, 통과하다
- b. (시험에) 대비하다, 떨어지다, 응시하다, 합격하다, 붙다, 낙방하다

이들을 나타내는 의미별로 분류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4) a. (시험을) 보다, 치다, 응시하다, 치르다, (시험에) 응시하다
- b. (시험을) 통과하다, (시험에) 합격하다, 붙다
- c. (시험에) 떨어지다, 낙방하다
- d. (시험에) 대비하다
- e. (시험을) 실시하다
- f. (시험을) 출제하다

여기서 우리는 학습자가 ‘시험’이라는 개별 어휘를 문장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원하는 문장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각의 의미에 따라 최소한 한 가지 결합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중 한국어 학습자의 상황과 개별 어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표현은 ‘(시험을) 보다’, ‘(시험에) 붙다/떨어지다’ 정도가 될 것이며,<sup>18)</sup> 이 표현들조차 알고 있지 못할 때 학습자가 ‘시험’이라는 개별 어휘를 표현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sup>19)</sup>. 따라서 기본적인 언어의 교육은 어휘 교육에 있어 필수적이며, 어휘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용 및 확장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용어의 경우에는 언어와는 달리 이해 능력은 필수적이나 표현 능력까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Hausmann(2003: 313)은 언어 학습에 있어서 이해와 표현의 필요성은 구별되어야 하며, 관용어의 학습은 수동적으로만 이루어져도 무방하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에 있어 다음 관용어를 이

---

18) 기본적 언어 표현들을 학습한 후에 수준에 따라 ‘시험’에 관한 다양한 언어 표현들을 학습하거나, ‘면접을 보다’, ‘면접에 붙다/떨어지다’ 등과 같이 같은 유형의 언어 관계로 확장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학습에 관해서는 ‘제4절 언어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19) 여기서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의 의미는 학습자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해당되는 정확한 표현을 알지 못할 때 의사소통을 위해 낱말 만들기(word coinage), 우회적 화법(circumlocution), 동족어(false cognate), 조립식 문형(prefabricated pattern) 등 학습자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여 부정확한 근사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학습자 의사소통 전략에 관해서는 Brown(2005: 146-149, 264)을 참조.

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나, 표현에 있어서는 각기 다음과 같이 다른 표현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므로 표현 능력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5) a.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 아주(매우) 바쁘다
- b. 미역국을 먹다 → 떨어지다

따라서 연어 교육과 달리 관용표현의 교육은 듣기와 말하기에 있어 다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20)</sup>

여러 형태의 덩어리말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연어에 관해서는 명시적 지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덕(2007: 192)은 영어의 덩어리말 중에서 구동사, 합성명사, 고정된 어휘표현, 관용어 등은 이미 표현이 굳어져 있어서 학습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으나, 연어는 표현이 완전히 굳어진 것도 아니고,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도 않으며, 앞뒤에 올 수 있는 단어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별도의 학습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어 교육이 어휘 교육에 있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로 어휘능력의 확장을 들 수 있다. 연어 지식의 습득은 학습자들이 기존에 학습한 개별 어휘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어휘의 활용 능력을 확장시켜 준다. 이러한 연어의 기능에 관해 Hill(2000: 62)은 2,000개의 개별 어휘를 알고 있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2,000개의 개별어휘에 관해 각기 6개의 연어 관계를 알고 있는 학습자는 12,000개의 표현을 알고 있는 것과 같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Hill(2000: 53-56)은 또한 연어 교육의 측면에서 연어가 중요한 이유에 관해 다음 9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 (6) a. 어휘부는 자의적이지 않다. 즉 어휘의 결합방식은 자의적이지 않다. 예

---

20) 이에 관해 문금현(1998: 208-209)은 듣기의 경우에는 관용 표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거나 말하기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일부 비속적인 관용 표현의 경우에는 사용을 금해야 하는 것도 있다고 지적하고, 관용 표현의 학습은 중급 이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를 들어 ‘마시다’의 목적어 자리에 ‘tea, coffee, milk’ 등은 올 수 있지만 ‘engine oil’이나 ‘shampoo’와 같은 명사는 올 수 없다.

- b. 연어를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는 학습을 쉽게 만들어 주는 패턴들을 발견하고 또 다른 예측 가능한 패턴들을 발견하도록 동기화될 수 있다.
- c.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대상의 70% 정도가 모두 고정된 표현들이며, 이렇게 막대한 부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언어의 중요성이 있다.
- d. 실제 모어 화자는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많은 연어를 기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들을 불러서 사용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언어 표현을 얼마나 자주 접할 수 있는가는 언어 학습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
- e. 언어는 유창성을 높여 주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한다.
- f. 복잡한 생각이 간단한 어휘적 언어로 실현되기도 한다.
- g. 언어는 사고를 쉽게 만든다.
- h. 덩어리로 발음과 함께 학습하면 강세와 억양이 더욱 좋아진다.
- i. 텍스트의 이해와 어휘의 습득을 위해서는 덩어리로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박숙영(2005: 29)에서는 언어 교육의 중요성 가운데서도 특히 기능어 교수<sup>21)</sup>를 위한 언어 교육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능어는 그 수가 제한적이고 문법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개별 어휘로서가 아니라 언어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모국어에 기능어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 기능어 사용에 어려움을 보이므로 언어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

21) 일반적으로 기능어란 ‘말과 말,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는 말’(표준국어대사전)로 대표적으로 조사, 접속사 따위가 이에 속한다. 언어의 교수·학습에 있어서는 특히 기능 동사에 따른 제시와 학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어 표현에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기능 동사에는 ‘나다, 들다, 부리다, 잡다, 지다, 짓다, 치다, 피우다’ 등이 있는데(최경숙 1997: 57참조) 이들 동사들은 원래의 의미와 관계 없이 특정한 명사와 결합하여 언어 표현을 구성하는 빈도가 높으므로,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에게는 이들 기능 동사를 중심으로 한 언어의 교수·학습을 하나의 효과적인 언어 학습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 두 가지 측면 모두에 있어 언어 지식의 습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습자가 알고 있는 개별 어휘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언어 능력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언어에 관한 명시적 지도의 필요성이 있다. 언어에 관한 교수 방법이나 교재 개발에 관한 논의는 이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3절 언어의 개념과 범주 설정

언어(collocation)의 어원은 라틴어의 ‘*collocare*(con+locare: 나란히 놓다)’이다. 연세 한국어 사전(1998)에서는 언어를 “명사가 어느 특정 동사와 잘 어울려 쓰이는 공기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로 좀 더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더 복잡한 관념을 나타내는 언어, 이른말”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두텐 독일어 대사전(DUDEN Deutsches Universalwörterbuch, 2003: 925)에서는 언어를 “언어 단위 간에 성립할 수 있는 내용적 결합관계(inhaltliche Kombinierbarkeit sprachlicher Einheiten)”로 정의하고 ‘dick(두꺼운)+Buch(책)’에서는 언어관계의 성립이 가능하나, ‘dick(두꺼운)+Haus(집)’은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예를 들고 있다.

J. R. Firth(1951)<sup>22)</sup>가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과 유지하는 관계(the company words keep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 words)”라는 의미로 언어(collocation)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언어의 개념에 관해서는 학자 간에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언어에 관한 공통적인 개념 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sup>23)</sup> 언어의 유형이나 분류에 관해서는 학자에 따라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

22) Hill(2000: 48) 재인용; Firth는 언어를 개념론이나 ‘사고 접근법(idea approach)’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통합적 수준(syntagmatic level)에서의 추상적 개념으로 보았다. 즉 예를 들어 ‘night’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dark’와의 언어성(collocability)이 포함되어 있으며 ‘dark’의 의미에는 ‘night’와의 언어관계(collocation)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Bischof(2004: 1) 참조.



으며 이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 어휘 학습 대상으로서 언어의 범주를 규정하는 데 어려움과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언어는 아직 교수요목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언어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이나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언어 사전의 편찬을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언어의 범주와 유형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개념과 그에 따른 범주 설정, 유형 분류에 관한 국어학적인 관점과 한국어 교육의 관점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는 개념과 범주에 관한 이론적 규명보다 한국어 어휘 교육에 있어서의 명시적 교육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진해(2000a: 28)는 언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사이의 선택과 피선택의 단일 방향성을 언어의 특성으로 강조하고, 주어진 선택어에 따라 제약적 언어와 준제약적 언어로 구분하였는데<sup>24)</sup>, ‘기염을 토하다’, ‘혼쫌이 나다’, ‘춤을 추다’와 같은 제약적 언어가 ‘머리를 감다’나 ‘입을 열다/다물다’와 같은 준제약적 언어보다 선택어에 대한 결합 범위가 좁고 심리적 현저성이 뛰어나므로 전형적인 언어 구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는 실제 의사소통 현장에서 의미의 이해와 표현 능력의 필요성이 범주 설정의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선택 제약은 범주 설정의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심리적 현저성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서상규(2002: 32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언어를 정의하려 하는 경우에는 “언어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하는 목적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언어의 개념과 범주 설정에 관해 언어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한 국내·외의 논의 및 국어학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 언어 학습 및

---

23) 언어의 개념 정의가 모호한 원인에 대해 김진해(2000a: 14)는 “언어를 그저 일반 자유결합과 관용어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며, 이는 “언어에 포함되는 예들의 성격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관용어처럼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4) 주어진 선택어가 ‘입, 목, 머리, 뒤’ 등과 같이 구체적 대상이 있는 실체성 명사이냐, 아니면 ‘기염, 물구나무, 혼쫌, 주눅’ 등과 같이 추상적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사태성 명사이냐에 따라 각기 제약적 언어와 준제약적 언어로 나누었다 (김진해 2000a: 27-29).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될 연어의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 1. 외국어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본 연어의 개념

독일어·영어 학습자 연어 사전(Student's Dictionary of Collocations, 1999)의 서문에서는 연어를 “다른 언어와는 일치하지 않는 한 언어 내 고유의 단어 결합(solche der Sprache eigene und nicht automatisch in andere Sprachen übertragene Wortkombinationen)”으로 정의하고 있다.

독일어로 망치와 못은 각각 ‘Hammer’와 ‘Nagel’이며 이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hammer’와 ‘nail’이다. 영어를 배우는 독일어 학습자가 독일어의 망치와 못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못을 박다’는 표현을 하려고 할 때는 단어의 일대일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독일어의 ‘einen Nagel einschlagen’을 영어로 직역하면 ‘beat a nail into (the wall)’가 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못을 박다’는 영어로 ‘hammer a nail’ 또는 ‘drive a nail’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또한 불어로는 ‘planter un clou’가 되는데 이를 독일어로 다시 직역하면 ‘못을 심다(eien Nagel einpflanzen)’가 되어 역시 엉뚱한 표현이 되어버리고 만다.

독일어 연어 사전은 이렇게 같은 행위를 나타내는 데 있어 언어마다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단어의 결합을 연어(Kollokation)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연어에 관한 다른 어떤 정의보다 외국어 습득에서 차지하는 연어의 대조언어학적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며, 나아가 외국어 학습과정에 있어 연어 학습의 중요성까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독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어(Kollokation)는 어휘적 연어(lexical collocations)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통사적 연어(grammatical collocation)를 가리키는 말로는 ‘구문(Konstruktion)’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독일어 학습자 연어 사전(Student's Dictionary of Collocations)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편찬되어 있다.

Firth(1951) 이후 제2언어 교수·학습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며, 제2언어 교수·학습에 있어서 언어의 개념과 유형을 규명하고자 하는 논의들은 점점 더 활발해져 왔다.

현태덕(2007: 194-196)에서는 Firth(1951) 이후 언어의 개념에 관한 Palmer(1968), McCarthy(1990), Sinclair(1991), Benson, et. al.(1997) 등의 정의를 소개하고, 이들 정의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습관적인 결합, 일직선상의 결합관계, 비교적 근접한 결합, 함께 나타나는 내용어의 결합’ 등의 표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습관적인 결합이란 자의적인 언어 사용 관습의 축적을, 일직선상의 결합관계라는 것은 특정 단어의 앞이나 뒤에 오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관계를 일컫는다. 또 언어가 비교적 근접한 결합이라는 것은 Sinclair(1991: 170)가 코퍼스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언어는 네 단어 이상의 간격을 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현태덕(2007: 195)은 함께 나타나는 내용어의 결합이라는 정의는 문법적 언어와 어휘적 언어 중에 어휘적 언어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내용어와 기능어의 결합은 언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독일에서 응용언어학과 외국어로서의 불어 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펼쳐온 Hausmann(1984: 399)은 <그림 1>과 같이 단어의 결합 관계를 고정 결합(fixed word combination)과 비고정 결합(non fixed word combination) 관계로 구분하고 언어를 단어의 비고정 결합 관계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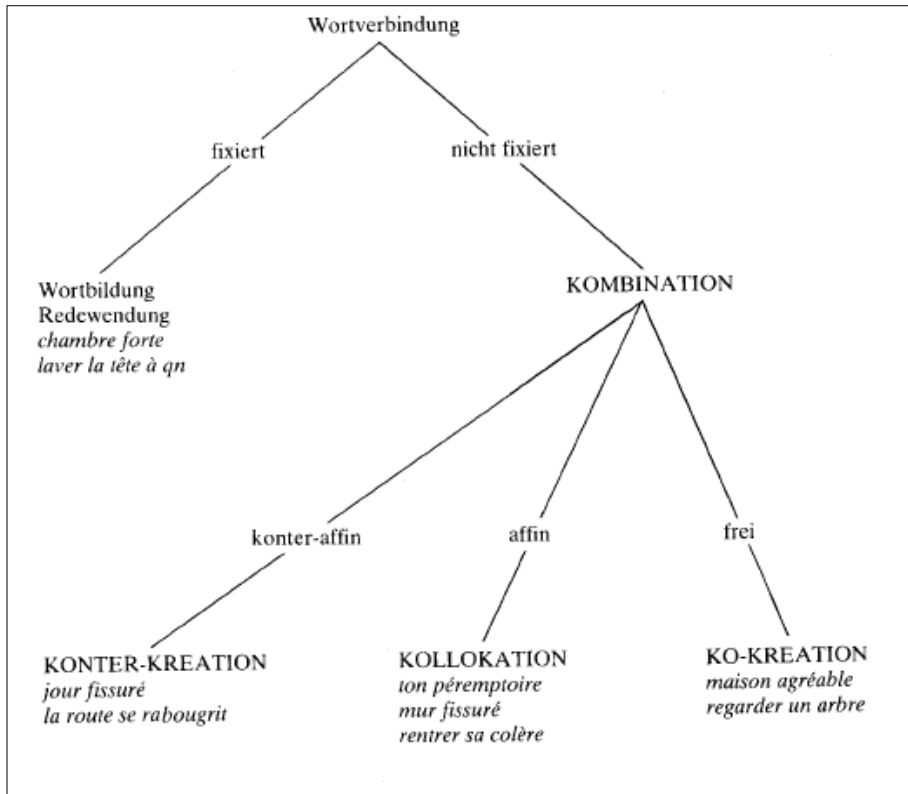
또한 언어의 구성을 언어핵(Basis)과 언어소(Kollokator)로 나타냈는데, 언어핵(Basis)은 의미적으로 독립적이며, 언어소(Kollokator)<sup>25)</sup>는 그 의미가 성립하기 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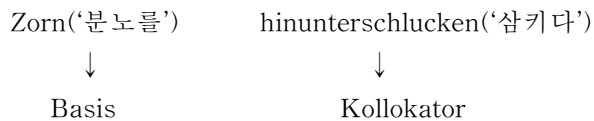
25) 이와 같은 Hausmann(1984)의 정의에 관해 임홍빈(2002: 284-293)은 ‘Basis’를 ‘바탕말’로, ‘Kollokator’를 ‘이은말’로 번역하고, 선택하는 요소를 ‘언어핵’, 선택되는 요소를 ‘언어변’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즉 ‘경멸하다’와 ‘수모를 주다’에서는 ‘경멸’과 ‘수모’가 언어핵으로 각기 ‘하다’와 ‘주다’라는 서술어를 언어변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임홍빈(2002) 이후 국어학의 언어에 관한 정의에서는 언어의 구성요소에 관해 ‘언어핵’과 ‘언어변’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Kollokator가 그 의미의 성립을 위해 Basis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언어의 구성요소가 구현하는 이루는 특정한 의미’(김진해 2000a: 30)는 오히려 Kollokator에서 비롯되므로, ‘떨린 요소’(임홍빈, 2002: 279)라는 의미의 ‘언어변’보다는 ‘언어소(連語素)’가 적합해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Kollokator’를 ‘언어소’라고 부르기로 한다. 한편 김

해 언어학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종속적이라고 주장했다(Hausmann, 1984: 401).

<그림 1> 단어의 결합 관계(Hausmann, 1984)



(7) 언어의 구성(Hausmann, 1984: 401):



진해(2000a: 25-26)는 'Basis'와 'Kollokator'를 각각 '基底語/지배요소'와 '連結語/피지배요소'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선택어'와 '피선택어'의 개념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즉 한국어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에는 선택과 피선택의 단일 방향성이 성립하며 이는 상호 선택적인 관용어와 언어를 본질적으로 구별하는 속성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ESL 또는 EFL 분야의 연구에 있어 다양한 언어 교수·학습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Hill과 Lewis는 언어의 범주를 Hausmann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Hill(2000: 48)은 언어를 “예측할 수 있는 단어의 결합 방식(the way words combine in predictable way)”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일정한 언어 패턴이 수없이 많은 단어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언어를 생산해내는 언어의 속성을 나타내 주는 정의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언어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언어 학습 방안의 모색을 위해 중요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Lewis(2006: 132) 역시 외국어 교수 학습의 관점에서 언어를 “자연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함께 쓰이는 단어들의 결합 방식(Collocation is the way in which words co-occur in natural text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ways)”이라고 넓게 정의하고, 언어의 유형에 다음과 같이 가능한 거의 모든 단어의 결합 관계를 포함시키고 있다.

- (8) a. a difficult decision (adjective + noun)
- b. submit a report (verb + noun)
- c. radio station (noun + noun)
- d. examine thoroughly (verb + adverb)
- e. extremely inconvenient (adverb + adjective)
- f. revise the original plan (verb + adjective + noun)
- g. the fog closed in (noun + verb)
- h. To put it another way (discourse marker)
- i. a few years ago (multi-word prepositional phrase)
- j. turn in (phrasal verb)
- k. aware of (adjective + preposition)
- l. fire escape (compound noun)
- m. backwards and forwards (binomial)
- n. hook, line and sinker (trinomial)
- o. On the other hand (fixed phrase)

- p. A sort of ... (incomplete fixed phrase)
- q. Not half! (fixed expression)
- r. see you later/tomorrow/on Monday (semi-fixed expression)
- s. Too many cooks ... (part of a proverb)
- t. To be or not to be ... (part of a quotation)

한편 Howarth(1998: 24)는 연어 숙달도와 제2 언어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면서 연어를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서 통사적 기능을 가진 단어들의 결합 (combinations of words with a syntactic function as constituents of sentence)”으로 정의하고, 아무리 짧은 문장이라도 몇 개의 어휘적 또는 기능적 덩어리말 (lexical or functional chunk)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학습자가 모국어 화자와 같은 유창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휘 단위(lexical units)나 연어에 초점을 맞추어 심적 어휘부를 가동하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문법 학습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덩어리말(chunk)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고, 언어 교수·학습의 초점을 연어 학습에 맞추어 연어의 습득과 확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습자의 연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모국어의 전이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므로,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 연어가 그 사용에 있어 얼마나 인습화되어 있는지 혹은 제한적으로 쓰이는지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Reder(2001)는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교육의 관점에서, 외국어 학습이나 습득을 위해서는 연어의 정의나 유형에 관한 학문적 논의보다 이해와 표현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심적 어휘부(mental Lexicon)에 있는 단어 결합들이 촉진될 수 있는 과정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연어를 “의미적 상관관계로 인해 특별한 단위를 이루는 단어들의 결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연어는 관용어와는 달리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통사적인 구성이 아닌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말한다는 것이다.

이상 외국어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본 연어의 개념은 ‘의미적 혹은 기능적 상관

관계를 가지며 문장 안에서 통계적으로 자주 함께 쓰이는 어휘의 결합 관계'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Howarth(1998)나 독일어 학습자 언어 사전(Student's Dictionary of Collocations)에서와 같은 대조언어학적인 접근은 한국어 언어 학습을 위해서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 2. 언어의 국어학적 개념

언어에 관한 다양한 국어학적 논의를 정리하여 한국어 언어의 개념과 통사·의미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시도로는 먼저 이희자(1994), 김진해(2000a), 임홍빈(2002)을 들 수 있다. 이희자(1994)는 언어의 개념을 숙어와 구별하고 언어의 유형을 의미적 언어, 통사적 언어, 형태적 언어로 나누어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9) a. 의미적 언어: 구성 요소들이 그의 의미의 함으로 일정한 뜻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요소들의 전의에 기초하여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쓰이게 된 것들로 '뒤가 꼴리다', '속이 타다', '더위를 먹다'류
- b. 통사적 언어: 관용적인 어절의 결합이 통사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들로 '오줌이 마렵다', '절대로 ~아니다', '물구나무를 서다'류
- c. 형태적 언어: 고정된 어휘꼴이나 혹은 극히 제한된 활용꼴로 나타나는 어휘론적인 현상으로 설명되는 어절들의 관계로 '-에 대한', '-ㄴ가 보다'류

김진해(2000a: 20)는 언어를 광의의 언어와 협의의 언어로 구분하고, 광의의 언어를 “통사·의미론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어휘가 동일한 문맥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어휘들의 공기관계”로, 협의의 언어는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를 요구함으로 발

생하는 어휘소들 간의 제한된 공기 관계”로 규정하였다. 김진해는 또한 구성 요소의 의미 반영 여부와 상대적 빈도수 및 심리적 현저성을 기준으로 자유결합과 연어 그리고 관용어의 경계를 나누었다. 그리고 연어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자유결합과 공통점을 지니며, 상대적 빈도수 및 심리적 현저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관용어와 공통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나아가 연어는 자유 결합이나 관용어와 특성 면에서 정도상의 차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다고 보고, 특히 두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제3의 의미를 형성하는 관용어와는 달리, 연어는 그 중 한 요소가 다른 한 요소를 선택하는 관계에 있다고 연어와 관용어의 경계를 구분하였다. 다음은 김진해(2000a)가 분류한 연어의 유형이다.

(10) a. 어휘적 연어:

- ① 전제적 연어: 용언에 의한 전제적 연어, 부사에 의한 전제적 연어, 단위 명사에 의한 연어
- ② 관습적 연어: 단위 명사에 의한 연어, 체언에 의한 관습적 연어 (계약적 연어, 준계약적 연어) [수식어+피수식어]형 관습적 연어, [체언-(의) 체언]형 관습적 연어

b. 형태·통사적 연어:

- ① 부사에 의한 형태·통사적 연어: 양태 부사에 의한 연어, 부정 극어에 의한 연어(예: 단지 -르 뿐이다/-밖에 없다, 결코/감히/도무지/도저히/미처/아무도/아무것도/조금도~‘아니/못하다/없다/-르 수 없다/말다’, 만약/만일/가령 -면)
- ② 의존 명사에 의한 형태·통사적 연어 (예: -는 길에, -ㄴ 날에, -르 따름이다, -기 때문이다)
- ③ 보문 동사에 의한 형태 통사적 연어 (예: -기를/-을 것을/-고 명령하다, -음을/-을 것을/-고 주장하다, -지 걱정이다)

김진해(2000a)에 있어 전제적 연어는 ‘눈을 뜨다’, ‘개가 짖다’와 같이 구성 요소



의 어휘 개념 구조에 결합 가능한 어휘가 내재되어 있는 구성을 말하며, 관습적 언어는 ‘몸부림을 치다’와 같이 어휘 개념 구조에 결합할 수 있는 어휘가 내재되어 있지 않은 구성을 말한다. 즉 관습적 언어는 관계를 이루는 요소 사이에 전혀 의미적인 공통점이 없는 채로 서로 관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전제적 언어와 관습적 언어의 유형 나누기는 언어 표현을 구성하는 요소의 의미 전이 여부가 핵심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임흥빈(2002: 279)은 언어란 기본적으로 일정한 문법적 구성에 나타나는 두 어휘소 간의 어휘적인 선택 관계라고 규정하고, 언어 관계는 어휘소를 선택하는 관계이므로, 의미 선택과 구별된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언어 구성에서 핵심이 되는 언어핵은 비전의적인 기본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언어핵이 전의적 의미를 강하게 가질수록 관용 표현에 가까워진다고 하였다.<sup>26)</sup> 따라서 언어 판별이나 관용 표현과의 구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언어핵의 의미이다. 그와 더불어 언어핵은 언어변과 함께 하나의 어휘단위를 이루어 독립적인 단위와 같이 행동하는 일이 많은데, 즉 두 어휘가 합하여 독립적인 논항을 요구하기도 하고, 피동이나 사동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언어핵이 대명사화 등에서 이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임흥빈은 언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11) a. N+V (명사+동사): 집을 먹다, 물의를 빚다
- b. N+A (명사+형용사): 씹씹이가 헤프다
- c. ADV+V (부사/부사어+동사): 칭칭 동여매다, 까르르 웃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뼈가 빠지게 일하다
- d. ADV+A (부사/부사어+형용사): 지끈지끈 아프다, 아득히 멀다
- e. N의+N (명사+속격 조사+명사): 절망의 구렁텅이, 각고의 노력

26) 이에 관해 문금현(2002)은 A와 B, 두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의미의 전이를 겪어 제3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을 관용구절 (A+B=C, 예: 눈을 감다/ 미역국을 먹다/바가지를 굽다 등), 두 요소 중 한 요소만 의미의 전이를 겪은 것을 상용구절(A+B=AaB 또는 ABb, 예: 손이 크다/썩대발이 되다/속이 없다 또는 더위를 먹다/마음을 놓다/마음을 잡다)이라 하고, 이에 반해 A+B=AB의 의미구조를 가지는 것을 언어로 규정하였다(예: 기대를 걸다/기지개를 켜다/김을 매다/떼를 쓰다/소름이 끼치다/실을 감다).

한편, 임근석(2005: 283-286)에서는 광의의 언어를 협의의 언어와 공기어로 나누고, 협의의 언어를 다시 어휘적 언어와 문법적 언어로 나누어, 문법적 언어의 범주적 위치를 한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광의의 언어의 특성은 높은 공기성과 구성 요소의 의미적 투명성인데, 높은 공기성은 관용 표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지만, 관용표현의 경우 의미가 불투명하여 구성요소로 분석될 수 없다는 점이 광의의 언어와 다르며, 자유결합은 구성요소의 의미가 투명하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공기성 면에서 광의의 언어와 다르다고 규정하였다.<sup>27)</sup>

한편 관용구나 언어의 개념을 어떻게 한국어 교육에 적용시킬지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한 연구로는 한송화·강현화(2002)와 문금현(2002)을 들 수 있다.

한송화·강현화(2002)는 언어 또는 관용구에 관해 기존에 진행되어 온 국내의 논의들을 관용구, 혹은 관용표현에 관한 연구, 관용어 혹은 관용적 표현과 구분한 언어 연구, 넓은 개념으로서의 결합관계에 관한 연구 그리고 기존의 ‘언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매우 넓은 개념으로 언어를 접근한 연구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 제시하였다 그와 함께 언어를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의 결합 혹은 통계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많은 어휘들의 결합으로서, 말뭉치상에서 높은 빈도로 결합하는 구뿐만 아니라, 모어 화자가 특별한 결합이라고 생각지 않더라도 학습자가 오류를 양산해 내거나 스스로 텍스트에서 유용한 언어라고 선택하는 것들도 그 대상이 된다.”(한송화·강현화, 2002: 299)고 정의하였다. 이는 실상 언어와 관용어 또는 자유결합 간의 학문적인 경계를 따지기도 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어휘부 안의 어떤 질서와 구성을 보여주는 걸 도울 수 있는 간단한 범주를 만드는 것”<sup>28)</sup>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 정의로서 실제적으로 관용어나 일부 자유 결합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한송화·강현화(2002)는 또한 어휘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할 언어의 범주를 다음

27) 예를 들면 ‘비행기가 출발하다/떡을 먹다/빨리 달리다’는 자유결합, ‘비행기를 태우다/시치미를 떼다’는 관용표현에 속하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광의의 언어 중 공기어의 예이고, ‘결정이 나다/기대를 걸다/방긋 웃다/당연한 귀결’은 협의의 언어 중 언어, 그리고 ‘-라 것, -고 싶-’은 문법적 언어의 예에 속한다.

28) Michael Lewis(1993), 한송화·강현화(2002: 299) 재인용.

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범주를 설정하는 시도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12) a. ‘미역국을 먹다, 새빨간 거짓말’등의 관용구나 은유적 표현, ‘눈을 뜨다, 시험을 보다’와 같은 구동사(phrasal verb)
- b. ‘무거운+책임, 부담, 주제’, ‘깊은+마음, 생각, 뜻’과 같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의미 자질 등으로 자연스럽게 예측되지 않는 어휘간의 결합
- c. ‘높은 파도, 높은 구두’, ‘빨간 장미, 빨간 불’과 같이 다른 결합보다 더 예측 가능하고 빈도가 높은 어휘의 결합
- d. ‘시험을+보다, 붙다, 합격하다, 떨어지다’와 같이 명사를 중심으로 한 연어 구조
- e. ‘시험+(안) 나오다, 망치다’ 등과 같이 좀 더 확장된 연어 영역
- f. ‘면허+시험’과 ‘시험+문제’에서와 같이 수식구와 피 수식구의 연어 구조
- g. ‘시험에 쉽게/무난하게/당당히/간신히 합격하다’와 같이 세 단어 이상의 결합
- h. ‘별다른/오랜 생각’, ‘생각 잘 하신’, ‘생각이 들다’에서 ‘생각’이나 ‘방법, 상황, 문제...’등과 같이 추상적 어휘의 연어 관계
- i. 보도 자료 등에 많이 나타나는 ‘시험을 치르다’, ‘시험에 응시하다’와 같이 맥락에 따른 연어 구조
- j. ‘서명을 쓰다\*’, ‘창문을 짓다\*’등과 같이 학습자 오류를 중심으로 한 연어 구조

한송화·강현화(2002)에서 제시된 연어 교육의 대상에 관해서는 그 범주 설정의 근거와 실효성에 관한 좀 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이러한 실제적인 범주 설정과 그에 따른 학습 단계별 연어 목록의 선정에 관한 확장된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금현(2002:220)은 연어를 “둘 이상의 단어가 축자적 의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결합 관계를 형성하는 어근으로 출현 빈도가 높고 심리적인 현저성이 높다.”고 정의하고 관용 표현과 언어의 경우 생성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언어와 일반 구절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는 사용 빈도나 구성 요소들 사이의 제한 여부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문금현(2002)은 언어를 의미적인 결합에 의해 공기관계가 형성된 어휘적 언어와 문법적 결합에 의해 공기관계가 형성된 문법적 언어<sup>29)</sup>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어휘적 언어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와 같은 내용어들이 긴밀한 공기 관계를 형성하며, 언어 구성을 이루는 중심 단위가 어휘소 2개로 이루어져 있고, 해당 단위들의 통사적 관계를 표시해주는 조사나 어미의 문법소가 포함된 구성을 말한다. 문금현(2002: 222)은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의 특성을 감안하여 세분화된 유형 분류를 지양하고 어휘적 언어를 통사적인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언어 학습을 위한 언어 패턴 정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간단한 유형 분류가 적합할 것이다.

- (13) a. 주술관계: 구역질이 나다/군침이 돌다/나이가 들다/눈이 부시다/똥이 마렵다/배가 고프다
- b. 목술관계: 김을 매다/떡을 감다/몸부림을 치다/물구나무를 서다/방귀를 끼다/손뼉을 치다
- c. 수식관계: [체언+관형격 조사+체언]형 - 간발의 차/우연의 일치/최후의 보루/한 치의 오차  
 [부사+용언]형 - 깜박 잊다/깜짝 놀라다/누누이 강조하다  
 [부사어+용언]형 - 감기에 걸리다/병에 걸리다/충격에서 벗어나다/타성에 젖다  
 [용언+관형형 어미+체언]형 - 감칠 맛/단적인 예/막다른 골목/왕성한 식욕

29) 문금현(2002)에서 문법적 언어는 ‘결코 -ㄹ 수 없다’, ‘단지 -ㄹ 뿐이다’, ‘차마 -ㄹ 수 없다’와 같이 통사적 요인에 의한 어절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성의 중심 단위가 어휘소뿐만 아니라 문법소도 될 수 있고 어휘가 꼭 2개일 필요도 없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어절 결합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교수 요목의 주된 성분이 되는 것들로서 언어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 3.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어의 개념과 범주 설정

기존의 국어학적 연구에 있어 연어의 범주 한정에 관한 기준으로는 주로 어휘 선택 제약, 의미 해석의 투명성, 격틀 변화, 구조 변형, 선택의 단일 방향성, 다른 언어로의 번역 가능 여부 등이 거론되어 왔다.(임유중, 2006: 156-158 참조) 그러나 이들은 모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 대상으로서의 연어 범주 설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임유중(2006: 156-174)에서는 위에 거론된 기존의 연어 선정 기준들을 검토하여 그중 어휘 선택 제약과 의미 해석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하여 연어의 범주 한정을 시도하였다.

<표 2> 연어의 범주(임유중 2006: 174)

구분	자유 구성	연어			관용어		
		‘개가 짖다’	이별을 고하다 <sup>30)</sup>	거래를 트다	손이 부족하다	전철을 밟다	미역국 먹다
결합 제약	A	B	B	C	C	C	C
의미 특성	a	a	b	b	c	d	e

A: 어휘적 유사어 대치 검증에 제약이 없음

B: 어휘적 유사어 대치 검증에 제약이 있음

C: 어휘적 유사어 대치 검증에 제약이 심함(불가능)

a: 투명+투명

b: 투명+불투명

c: 불투명+투명

d: 불투명+불투명

e: 불투명

<표 2>에서 임유중(2006)은 어휘적 유사어 대치 검증에 제약이 있는 것들 중 연어핵의 의미가 투명한 유형을 연어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어 선정 기준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한 결과로서, 연어와 관용어의 경계를 효과적으

30) 가장 전형적인 연어 구성의 형태로서 ‘나이를 먹다’, ‘욕을 먹다’ 따위의 결합 관계.

로 설정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 명시적 언어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할 언어의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뚜렷한 기준이 정해진 바 없다. 박숙영(2005: 25)은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자유결합, 언어 그리고 관용어로 분류하던 것을 하나의 연속 변차로 나타나는 연속체로 보고,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형태·통사적 언어로 분류하던 결합 관계도 크게 언어의 범주에 넣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제2장 제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 교육에 있어서 이해와 표현의 필요성은 구분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재 안에서의 제시 방법이나 교수·학습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넓은 의미의 언어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다시 그 안에서의 하위분류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유중(2006: 174)의 언어의 범주를 표현과 이해, 즉 말하기와 듣기의 영역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구성요소의 의미가 모두 투명하나 결합제약을 보이는 ‘개가 짖다’, ‘우산을 쓰다’, ‘눈을 감다/뜨다’류의 구성이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기가 가장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별을 고하다’, ‘욕을 먹다’, ‘나이를 먹다’와 같은 [투명의미+불투명의미]의 결합 형태의 경우에는 ‘이별을 통보하다, 이별하자고 (말)하다’, ‘욕을 듣다’, ‘나이가 들다’와 같이 제한적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나아가 관용어의 경우에는 다음에서와 같이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는 데 큰 무리가 없다.<sup>31)</sup>

- (14) a. 손이 부족하다 → 인력이 부족하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 b. 전철을 밟다 → 잘못을 반복하다, 잘못을 되풀이하다
- c. 미역국을 먹다 → (시험에) 떨어지다, 실패하다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언어의 범주 설정에는 결합 제약보다는 의미적 투명성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다시 말해, 자유 결합을

---

31) 이에 관해 김진혜(2000a: 15)에서는 관용어는 비유적·수사적 차원에서 생성된 구성이므로 언어와 달리 개념적으로 동일한 대응어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제외한 경우 구성 요소가 모두 의미적으로 투명하나 결합제약을 가지는 ‘개가 짖다’, ‘눈을 감다’류의 연어가 다른 표현으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가 가장 불가능하며, 결합제약도 강하고 구성요소가 의미적으로 불투명할수록 다른 표현으로의 대체가 오히려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표현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이해 능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표현 능력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 교육 대상의 범주를 설정할 때, 앞서 제시한 임유중(2006: 174)의 언어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바뀔 수 있다.

<표3> 한국어 교육 대상으로서 언어의 범주

구분	이해 및 표현 교육이 모두 필수적인 언어			이해 교육이 우선 필요한 언어 <sup>32)</sup>		
	개가 짖다	이별을 고하다	거래를 트다	손이 부족하다	전철을 밟다	미역국을 먹다
결합제약	B	B	C	C	C	C
의미특성	a	b	b	c	d	e

한 가지 언어의 범주 설정에 관해 더 짚어 볼 점은 ‘유령 회사’, ‘유령 단체’와 같이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은유적 의미를 지니는 구성을 언어에 포함시켜야 할지의 여부이다. 언어의 범주에 관한 기존의 국어학적 논의에서는 명사와 명사의 결합 관계에 관해서는 ‘절망의 구렁텅이’, ‘각고의 노력’에서와 같이 [명사+속격 조사+명사](임홍빈, 2002)<sup>33)</sup>의 결합 형태와 단위 명사에 의한 결합 형태<sup>34)</sup>만을 언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사한 경우로는 앞에서 살펴 본 한송화·강현화(2002)에서 한국어 어휘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할 언어의 범주에 명사와 명사의 결합 관계 중

32) 이해 교육이 우선 필요한 단어는 초·중급에서는 이해 능력 위주로 교육하고, 유창성의 측면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표현 능력 쪽으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33) 김진해(2000a)에서는 [체인-(의) 체인]형 관습적 연어가 이에 해당된다.

34) 예를 들어 ‘담배 (한, 두…) 가치’, ‘책 (한, 두…) 권’, 김진해(2000a: 81-86) 참조.

에 ‘면허+시험’과 ‘시험+문제’에서와 같이 수식구와 피수식구의 연어 구조를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의미의 투명성 또는 전이성의 측면에서 볼 때 ‘유령 단체’와 ‘면허 시험’은 다른 구성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래 가)에서 볼 수 있듯이 ‘유령’은 ‘회사’, ‘단체’와 같은 일부 제한된 명사와만 결합하는 제약성을 보이며, 나)에서와 같이 유사어 대치 검증에도 제약을 보인다. 또한 은유적 의미를 나타낸다.

- (15) a. ‘유령 단체’, ‘유령 회사’, \*‘유령 가정’, \*‘유령 가게’  
 b. \*‘유령 조직’, \*‘유령 기업’

‘유령 회사’를 독일어로 직역하면 ‘Geistfirma’(‘Geist’는 ‘유령’, ‘Firma’는 ‘회사’를 의미)가 되지만 ‘유령 회사’에 해당되는 독일어는 ‘Briefkastenfirma’<sup>35)</sup>(‘Briefkasten’은 ‘우편함’을, ‘Firma’는 ‘회사’를 의미)이다. 이러한 모든 속성들은 연어의 전형적인 속성에 속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이러한 명사구의 결합 형태를 연어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형태를 한국어 학습 대상으로서의 연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sup>36)</sup>

다음은 기존에 문법적 연어 또는 형태·통사적 연어로 분류되어온 연어의 문제이다. 강현화(2005: 72-73), 박숙영(2005: 25) 등은 모두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이들도 크게 연어 교육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언어 교육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 즉 이해 및 표현 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 형태·통사적 연어는 그 교육이 가장 필수적인 결합 형태이므로 당연히 연어에 포함시켜야 한다. 형태·통사적 연어들은 실상 기존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 문법 교육의 대상이자 교수요목 설정의 기준으로 대부분의 교재가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35) 독일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둘 이상의 명사를 함께 연결하여 새로운 명사를 만들어내는 조어법이 보편적인데, Hausmann(2003: 317)에서는 이러한 합성어들 중 ‘Shiebedach(미끄러지는 천장 → 선루프), Briefkastenfirma(우편함+ 회사 → 유령회사), Wortschwall(말, 단어+ 홍수 → 한꺼번에 쏟아지는 말)과 같이 의미적 전이 양상을 보이는 것들을 독일어 연어의 예외적인 형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36) Lewis(2006: 132)에서도 radio station과 같은 noun+noun의 결합 관계를 연어에 포함시키고 있다.



니다. 하지만 형태·통사적 연어를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어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연어의 효과적인 제시 및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논의에서도 이들을 배제하지 말고, 기존의 제시 및 교수 방법에 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어휘적 연어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 대상으로서의 연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 (16) 그 의미의 이해와 표현을 위해 하나의 어근으로 인식해야 하는 두 단어 이상의 결합으로, 그 범주에 연어와 관용어 그리고 형태·통사적 연어를 모두 포함하며, ‘유령 회사’, ‘유령 단체’와 같이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은유적 의미를 지니는 결합 관계도 포함한다.

또한 연어를 아래 (17)에서와 같이 표현 연어와 이해 연어<sup>37)</sup>의 두 범주로 나누어<sup>38)</sup> 그 제시 방법이나 교수·학습 방법을 달리할 것을 제안한다.

- (17) a. 표현 연어: 의사소통을 위해 ‘다른 표현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대체가 어려워 해당 연어의 이해와 표현을 위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한 결합’(예: ‘눈을 뜨다/감다’, ‘시험에 붙다/떨어지다’, ‘비가 오

37) 여기서 ‘표현 연어’와 ‘이해 연어’란 각기 의사소통을 위해 ‘다른 표현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대체가 어려워 해당 연어의 이해와 표현을 위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한 결합’(예: ‘개가 짖다’, ‘눈을 뜨다/감다’, ‘시험에 붙다/떨어지다’ 등)과 ‘한국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나 표현 영역에 있어서는 유창성을 높여주지만 대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반드시 표현 능력의 학습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결합’(예: ‘전철을 밟다’, ‘미역국을 먹다’ 등)을 말한다.

38) 이응백(1972: 553)과 조현용(2000: 71)에서는 어휘 교육의 관점에서 학습용 기본 어휘를 표현 어휘와 이해 어휘의 두 범주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응백의 경우 표현 어휘와 이해 어휘를 작문과 독해라는 문어의 영역에 한정하였고, 조현용은 한영균(1998)의 의견에 따라 표현 어휘를 구어생활을 위한 기초 어휘로, 이해 어휘를 문어 생활을 위한 기초 어휘로 보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표현과 이해의 개념은 의사소통 영역 전반에 걸친, 즉 구어 생활과 문어 생활 전반에 있어 말하기·쓰기 능력과 듣기·이해하기 능력에 관한 것이다. 특히 최근 의사소통 교수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문어와 구어가 표현과 이해 영역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그러나 조현용(2000)에서 표현어휘와 이해 어휘를 나누어 어휘 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은 표현과 이해를 위한 연어의 범주를 구별하여 제시하고 교수·학습해야 한다는 본고의 접근 방법에도 많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 ‘살이 찌다/빠지다’, ‘열이 나다/내리다’, ‘춤을 추다’, ‘책임을 지다’ 등.)

- b. 이해 연어: 유창성을 높여주지만 대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반드시 표현 능력의 학습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결합’(예: ‘입을 막다/다물다’, ‘입이 무겁다’, ‘발 벗고 나서다’, ‘바가지를 씌우다/쓰다’, ‘발을 끊다’, ‘허탕을 치다’, ‘전철을 밟다’, ‘손이 부족하다’, ‘미역국을 먹다’ 등.)

표현 연어는 구성 요소의 난이도에 따라 초급에서부터 학습하도록 하되, 이해와 더불어 표현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충분한 활용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반해, 이해 연어는 중급 이상에서 그 의미의 이해를 위한 학습을 위주로 하되, 표현 능력을 위한 활용 연습은 고급 이상 학습자의 유창성 향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 (16)과 (17)의 정의를 바탕으로 교재 분석을 통한 한국어 교재의 연어 제시 방안을 모색하되, 형태·통사적 연어의 제시나 교육 방법 등에 관해서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하고, 우선 어휘적 연어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해 가기로 한다.

## 제4절 연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근래 외국인을 위한 영어와 독일어 교육 분야에서 연어의 학습 방안에 관한 실험 연구 및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연어 오류 분석과 더불어 연어를 활용한 어휘 교수·학습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제4절에서는 이를 토대로 연어 교육에 관한 국내·외의 모형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또한 이들 모형과 더불어 앞에서 논의한 연어의 특성 및 연어 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연어 교육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고, 효과적인 연어 교육 방안의 하나로서 연어 목록을 활용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언어 학습 모형

Siepmann(2004)은 언어 학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어의 형태와 유형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는 자주 쓰이는 언어 표현의 구성을 ‘언어소(Kollokator)+언어핵(Basis)’의 형태로 분석하여 학습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이를 전제로 한 Siepmann(2004)의 언어 학습 모형이다.

<표 4> Siepmann(2004)의 언어 학습 모형

학습 단계	학습 활동 내용
언어 찾기와 언어 목록 작성	학습자들이 학습 자료(구어 자료나 문어 자료)에서 언어 표현을 찾아 언어소(Kollokator)+언어핵(Basis)의 형태로 언어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
연습 활동	학습자들에게 언어 목록을 제시하고 듣기 활동을 통해 동의어를 찾게 하거나 또는 언어소만을 제시하고 듣기 활동을 통해 결합 관계에 있는 언어핵(Basis)을 찾아 완성하게 한다. 연습 활동 후에는 반드시 몇 가지 언어의 예를 들어 문맥 안에서의 쓰임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문장의 생성	듣기 활동을 통해 들었던 텍스트를 언어들을 사용해 요약하도록 한다. 다음 단계로는 같은 주제에 관해 다른 언어들이 사용된 텍스트를 제시함으로써 언어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언어의 형태와 유형에 관한 학습자의 인식은 언어 학습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독일어·영어 학습자 언어 사전(Student's dictionary of collocations, 1999)의 서문에서는, 학습자가 텍스트 안에서 언어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해하고 학습한 어휘 능력은 표현 능력으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언어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iepmann(2004)과 Reder(2006)도 언어에 관한 학습자의 인식이 항상 학습의 첫 단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언어를 학습할 때는 ‘언어임을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학습과 활용을 할 때 연어의 패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연어소(Kollokator)의 ‘은유적 의미’<sup>39)</sup>를 이해함으로써 연어를 모국어로 번역해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Reder(2006)는 연어 학습이 일반적으로 다음의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 (18) a. 단어 결합 단위로서의 연어의 발견
- b. 단어 결합 단위로서의 연어의 활용 연습
- c. 단어 결합 단위로서의 연어의 적용

또한 외국인 학습자가 연어의 은유적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방안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 (19) a. 목표어 문화의 이해
- b. 인지적 의미론의 적용
- c. 연어소(Kollokator)를 활용한 다양한 단어 결합의 학습

Jimmie Hill · Morgan Lewis · Michael Lewis(2000: 90-106)는 교실에서의 학습 전략, 과제 활동 및 연습 활동 유형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연어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 (20) 일반적 전략
- a. 큰 단위의 학습 텍스트(Larger Frame work) 선정.
- b. 반복 학습 전략(The same thing twice activities collocations)

---

39) Reder(2006)는 은유적 연어(metaphorische Kollokation)와 비은유적 연어(nichtmetaphorische Kollokation)를 구별하고 외국인 학습자들이 은유적 연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의 부정적 전이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Reder의 구분을 한국어 단어에 적용하여 예를 들자면 ‘매듭을 풀다’에서 ‘풀다’나 ‘물건을 팔다’에서 ‘팔다’가 단어 뜻 그대로의 지시적 의미로 쓰인다면 ‘화를 풀다’에서의 ‘풀다’와 ‘다리품을 팔다’에서의 ‘팔다’는 은유적 의미가 덧붙여진 것이다.) 즉 목표어 연어의 은유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국어를 대응시켜 번역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으므로 연어 교육은 목표어와 모국어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여 목표어 연어의 은유적 의미를 이해하고 문맥 안에서의 쓰임을 익히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 c. 그룹 활동으로 같은 이야기를 4-3-2분으로 시간을 단축해가면서 세 번 이야기하게 한다.(4-3-2 minutes talks)
- d. 간단하고 정확한 표현의 학습에서 벗어나 오류를 두려워하지 않는 학습이 되도록 한다.(Rehearsal in safety)
- e.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점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한다.(Expand the event)
- f. 작문을 할 때 글감이 부족하다는 것은 심적 어휘부에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어휘가 부족하다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글을 쓰기 전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글감뿐 아니라 필요한 어휘를 찾게 한다.(Essay preparation)
- g. 에세이 피드백(Essay feedback): 1단계 - 학습자의 초고에 관해 연어로 대치할 수 있는 단어를 지적해 준다, 2단계 - 표현상의 오류보다는 내용상의 오류에 초점을 맞춘 피드백 단계, 3단계 - 학습자가 알지 못하는 연어 표현의 제시를 통한 구체적인 피드백 단계, 4단계 - 교사의 피드백 내용을 참고로 하여 퇴고하게 한다.

(21) 텍스트를 활용한 언어학습 전략(Exploiting a text)

- a. 텍스트 안의 연어 찾기 활동(Finding collocations in the text)
- b. 연어를 활용한 텍스트의 재구성(Reconstructing the content)

(22) 연어 사전의 활용(Using a collocation dictionary)

- a. <표. 5>의 예와 같이 한 연어핵 또는 연어소와 연결되는 다른 단어 결합들을 기록하도록 한다.(Recording collocations)

<표 5> 연어 구성의 단어 결합

apply for a be out of a find a hunt for a resign from a	job
---	-----

- b. 에세이 쓰기 준비(Essay preparation): 1단계- topic에 관련된 명사의 나열, 2단계- 영어 사전에서 학습자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나열된 명사와 연결될 수 있는 부사나 동사 찾기, 3단계- 연어 구성 후 사전에서 확인하기
- c. 사전을 활용하여 관련 연어 찾기(Find a better word)
- d. 같은 단어를 이용한 다양한 연어 표현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그 중 생활에서 많이 그리고 유용하게 쓰이는 연어 표현(Really useful word)을 찾아내게 하여 활용 연습
- e. 그룹 활동으로 사전의 표제어 중 일정한 규칙에 따라 단어 찾기 (Sorting): 규칙의 예- 긍정이나 부정의 의미로 쓰이는 부사어
- f. 유의어(Near synonyms)의 연어 관계 찾아서 학습하기

이정원·김낙복(2005)은 통제 집단(G1)과 실험 집단(G2)을 이용한 실험 연구에서 연어 중심 어휘 지도가 영어 어휘 발달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실험 결과에서 전통적인 제시·연습·생성(PPP: present-practice-produce)의 학습 방식보다 관찰·가설·실험 (OHE: observe-hypothesize-experiment)의 방식이 어휘 학습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실험에서 통제집단에게는 기존의 PPP 방식에 기초하여 단어 목록을 이용해 어휘 학습을 실시하였다. 이에 반해 실험 집단은 새로운 OHE 방식에 기반을 둔 어휘 결합 원리를 통해 연어 중심으로 어휘를 학습하였는데 학습 후에 실시된 사후 평가와 후속 평가에서 모두 실험 집단의 연어 성적이 통제 집단의 성적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래 <표 6>과 <표 7>은 이정원·김낙복(2005)의 실험에서 실시된 집단별 어휘 학습 방법을 비교 제시한 것이다.

<표 6> 실험에서 실시된 집단별 어휘 학습 활동 방법(이정원 · 김낙복, 2005: 117)

단계	학습 활동 과정		활동 방법	
	G1	G2	G1	G2
	제시	관찰	주제별 단어목록을 제시한다.	제시된 주제별 단어를 품사별로 관찰한다.
	연습	가설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익힌다.	주어진 단어를 조합하면서 언어 유형별로 가설을 세운다(유형별 가설 설정과 수정 활동).
	생성	실험	찾은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고 논의한다.	유형별 언어를 활용하여 어휘 항목이나 문장을 완성하고 논의한다(언어 유형을 문장 속에서 실험).

실험에 있어 각 학습 단계에 실제 행해진 학습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표 7> 실험에서 실시된 각 학습 과정의 학습 활동들(이정원 · 김낙복 2005: 118)

집단 단계	G1		G2	
	학습 과정	학습 활동	학습 과정	학습 활동
1	제시	본시 어휘 학습 주제 선정과 목표 제시	관찰	본시 어휘 학습 주제 선정과 목표 제시
2		주제와 관련된 가능한 단어를 찾아 무작위로 적기		주제와 관련된 가능한 단어를 찾아 품사별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란에 적기
3	연습	찾은 영어 단어에 대응하는 우리말의 의미 적기	가설	찾은 단어에 대한 언어적 결합을 정리하고 [N+N, A+N, V+N, V+Adv/Adv+A] 의미 적기
4	생성	찾은 단어를 활용하여 어휘 항목이나 문장 완성해보기	실험	언어 항목을 활용하여 어휘 항목이나 문장 완성해보기

5		질문과 응답하기 활동	질문과 응답하기 활동
6		발견사항 적기와 정보 공유 활동	발견사항 적기와 정보 공유 활동
7		자기 평가 및 집단 평가	자기 평가 및 집단 평가

실제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의 거의 모든 수업들은 PPP 방식의 수업 모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들도 이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다. 이정원·김낙복(2005)의 실험 결과가 유효하다면 언어 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 및 학습 과정 설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교재 구성 및 학습 활동 과정을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문금현(2002)은 한국어 구어자료와 문어 자료를 분석하여 언어 목록을 작성하고 교재에서의 언어 제시 방법 및 구체적인 언어 학습 방법을 언어 능력에 따른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다음은 각 단계별 구체적인 학습 방법의 예이다.

- (23) a. 초급단계: 그림카드의 활용, 뜻풀이와 언어 목록 연결 짓기
- b. 중급단계: 구성 요소와 단어 카드 짝짓기/ 구성 요소의 단어 연결짓기/ 보기에서 골라 빈칸 채우기/ 관련 언어 찾기/ 대립 관계의 문형으로 연습하기
- c. 고급단계: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연습하기/ 같은 언어장에 속하는 언어를 묶어서 확장 연습하기/ 같은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 말뭉치를 활용하여 이야기나 글을 만들기/ 언어의 의미 기능에 의해 유형별로 묶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부사어로 언어 구성을 확장하기/ 의성·의태어와 관련지어서 학습하기

박숙영(2005)에서도 문금현(2002)에서와 유사하게 학습 단계별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언어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학습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들을 활용하여 언어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언어의 범주



설정이나 학습 단계별 그리고 단원별 학습 연어의 선정과 제시 방안에 관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관해서는 제3장 제4절 한국어 교재의 연어 제시 방안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 2. 연어 목록을 활용한 연어 교육 방법

제2장에서 살펴 본 연어의 특성과 그에 따른 연어 학습의 중요성 및 학습 방안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때 효과적인 연어 교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연어 구성과 패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만 연어의 효율적인 활용 및 심화 그리고 확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어 교육을 할 때는 항상 학습자가 연어의 구성 원칙과 유형에 관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어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주어진 문장 안에서 연어를 ‘발견’<sup>40)</sup>하도록 하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이다. 단순히 교사가 연어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연어 표현들을 찾아내거나 발견하도록 함으로써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연어 목록의 제시는 연어표현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 (24) a. 연어핵이나 연어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
- b. 같은 패턴에 속한 연어 표현들의 목록으로 제시
- c. 목표어와 모국어 연어 표현의 병렬 목록으로 제시

---

40) 연어 학습 과정에서의 이러한 ‘찾기’ 또는 ‘발견’의 중요성은 앞에서 소개한 Reder(2006)와 Siepmann(2004)의 연어 학습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있으며, Hammer(1991)는 학습자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와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학습자에게 발견활동(discovery activities)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발견하도록 하며, 발견한 패턴을 적게 하는 학습 과정을 제안하였다. Hammer(1991)에 관하여는 이정원·김낙복(2006) 참조.

넷째, 언어 학습은 부분에서 전체가 아니라 전체에서 부분으로의 학습 원칙을 전체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개별 단어를 학습한 후 단어 결합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결합으로서의 언어 표현을 먼저 알게 한 후 개별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도록 해야만 이해 능력으로서뿐만 아니라 표현 능력으로서의 언어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어휘를 안다’ 또는 ‘학습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휘의 의미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맥락 안에서 그 어휘의 쓰임을 알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 교육은 어휘와 문법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초급 단계에서는 단어 카드를 활용한 언어의 학습이나 단어 연결하기 등의 방법이 언어의 학습을 위하여 효과적이겠지만 중·고급 학습자를 위해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과 연계하여 좀 더 본격적으로 언어의 활용 능력을 키우고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 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발견’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고급 학습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언어 목록을 활용한 언어 교육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언어 목록을 활용한 이러한 교육 방법은 기본적인 언어 구성과 패턴에 관한 학습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고안된 것이다. 기본적인 언어 구성과 패턴에 관한 학습은 초급 단계부터 어휘 학습과 통합적 관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짝 짓기, 빈 칸 채우기, 언어를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유의어나 반의어 찾기 등 일반적인 어휘학습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5) 읽기 과제 활동에서 언어 목록을 활용한 언어 학습 모형

- a. 언어 찾기: 읽기 과제를 제시하고, 제시된 과제를 읽으며 학습자 스스로 언어를 찾아보도록 한다.
- b. 언어 목록 제시: 가나다순으로 작성된 언어 목록을 제시한다.
- c. 학습자 언어 목록 작성하기: 텍스트에서 학습자가 찾은 언어를 주어진 언어 목록에서 확인하며 학습자 스스로 새로운 언어 목록을 만들어 보게 한다.

- d. 연습 및 확장: 학습자 언어 목록의 언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문장 만들기 활용 연습이 끝난 후에는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언어 표현 찾아보기, 언어핵이 같은 다른 언어 표현들을 찾고 의미 알아보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어휘 및 언어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 e. 텍스트 재구성: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재구성하여 써보도록 한다.

(25)의 읽기 학습에 있어 언어 목록을 활용한 언어 학습 모델은 읽기 과제물 대신에 듣기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그대로 듣기 학습을 위한 언어 학습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26) 듣기 과제 활동에서 언어 목록을 활용한 언어 학습 모형

- a. 언어 찾기: 듣기 과제물을 제시하고, 제시된 과제물을 들으며 학습자 스스로 언어를 찾아 적어보도록 한다.
- b. 언어 목록 제시: 가나다순으로 작성된 언어 목록을 제시한다.
- c. 학습자 언어 목록 작성하기: 학습자가 들은 언어를 주어진 언어 목록에서 확인하며 학습자 스스로 새로운 언어 목록을 만들어 보게 한다.
- d. 연습 및 확장: 학습자 언어 목록의 언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문장 만들기 활용 연습이 끝난 후에는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언어 표현 찾아보기, 언어핵이 같은 다른 언어 표현들을 찾고 의미 알아보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어휘 및 언어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 e. 텍스트 구성하여 쓰기: 학습자 언어 목록을 활용하여 들은 내용을 재구성하여 써 보도록 한다.

(27) 쓰기 과제 활동에서 언어 목록을 활용한 언어 학습 모형

- a. 주제 제시: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절한 도입 단계를 통하여 쓰기 과제의 주제를 제시한다.

- b. 주제를 듣고 떠오르는 단어 적어보기: 주제에 관해 떠오르는 단어를 3개-5개-7개... 순으로 늘려가며 적어 보도록 한다.
- c. 연어 목록 제시: 연어핵을 중심으로 가나다순으로 작성된 연어 목록을 제시한다.
- d. 연어 찾기: b.에서 적은 단어들과 관련된 연어 표현을 목록에서 찾아 보도록 한다.
- e. 쓰기: 학습자 스스로 찾은 연어를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써 보도록 한다.
- f. 연습 및 확장: 쓰기가 끝난 후에는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연어 표현 찾아보기, 연어핵이 같은 다른 연어 표현들을 찾고 의미 알아보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어휘 및 연어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28) 말하기 과제 활동에서 연어 목록을 활용한 연어 학습 모형

- a. 주제별 연어 목록 제시: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연어를 중심으로 작성된 목록을 제시한다. (예: 주제-봄, 꽃이 피다/지다, 바람이 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다 등)
- b. 이야기 구성하여 말하기: 연어 목록의 연어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꾸며 말해보도록 한다.
- c. 연습 및 확장: 말하기가 끝난 후에는 연어 목록을 활용하여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연어 표현 찾아보기, 연어핵이 같은 다른 연어 표현들을 찾고 의미 알아보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어휘 및 연어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 d. 쓰기 활동과 연계: 말하기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다시 구성하여 문장으로 써 보도록 함으로써 쓰기 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다.

## 제3장 교재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독일어 교재와 한국어 교재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어 교재에 있어 언어 제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언어 제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를 삼고자 한다.

### 제1절 교재 분석의 대상과 기준

이해영(2006: 27)에서는 교재의 어휘 학습 영역에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29) a.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휘가 선택되었는가?
- b. 학습자의 요구(가령 숙달도, 인지 능력, 학습 목표)를 반영하는가?
- c. 단계별로 학습량이 적당한가?
- d. 다양한 주제 관련 어휘가 다루어지는가?
- e. 새로 나온 어휘는 후에 충분히 반복되는가?
- f. 어휘 학습을 위한 다양한 연습 방법이 제공되는가? 단순 제시인가?
- g. 연습 활동이 어휘의 구조나 어휘간의 관계에 대하여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가?
- h. 어휘 학습이 학습자의 어휘 학습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

교재 분석의 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언어의 특성과 이해영(2006)의 어휘 학습 영역 점검 목록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우선 다음 두 가지를 통해 언어 선정의 적절성을 살펴본다.

(30) 첫째, 한국어와 독일어 교재에 제시된 연어들이 얼마나 기초 어휘를 반영하고 있는가?

둘째, 단계별로 적절한 학습량이 선정되었는가?

첫째 항목을 위해서는 교재에 제시된 연어와 한국어와 독일어 학습용 기본 어휘 목록을 비교하여, 제시된 연어 중 기초 어휘의 비율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국어와 독일어 교육용 기본 어휘 목록으로는 각기 국립국어연구원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국립국어연구원, 2003) 목록<sup>41)</sup>과 독일 문화원이 제공하는 ‘ZDaF Grundwortschatz’(1999)<sup>42)</sup> 목록을 활용하기로 한다. 이 두 개의 기본 어휘 목록은 그 선정 기관이나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각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및 독일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 어휘로서의 객관성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어휘 자료의 규모가 비슷하여 비교 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연어 제시의 적절성은 다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본다.

(31) 첫째, 학습자가 연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습득을 위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둘째, 확장 및 심화를 위한 기본적인 학습 정보로서 해당 연어의 패턴 및 유의어, 반의어 등 의미 관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학습한 연어의 활용 및 확장을 위한 연습 과제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

41)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2003)는 1990년대 이후의 현대 한국어 문어 및 구어 자료와 함께 20종의 한국어 교재를 조사 대상 자료로 하여 2000~2002년까지 수행된 국립국어연구원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의 결과물을 토대로 선정된 한국어 학습용 기초 어휘 목록으로 총 5,965개의 어휘를 포함하고 있다.

42) ZDaF Wortschatz(Zertifikat Deutsch Als Fremdsprache Wortschatz, Goethe Institut, 1999)는 독일 문화원이 선정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용 기초 어휘 목록으로 2,075개의 기초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참조 <http://www.quia.com/jg/519007list.html>).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다음과 같다.

<표 8> 분석 대상 교재

언어	교재
한국어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한국어, 본교재(Student Book) 1, 2, 3>, <연습 교재(Practice Book) 1, 2, 3>
	이화여자대학교 언어 교육원 <말이 트이는 한국어, 본교재(Student Book) I, II, III>, <연습 교재(Work Book) I, II, III>
독일어	Themen aktuell, <본교재(Kursbuch) 1, 2, 3>, <연습 교재(Arbeitsbuch) 1, 2, 3>
	Lerntraining Deutsch als Fremdsprache leicht gemacht Wortschatz

한국어 교재로 서울대와 이화여대의 교재를 택한 이유는 대표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재 중 서로 다른 유형의 교재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결과를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한국어 교재는 크게 문법 위주로 구성된 교재와 의사소통 위주로 구성된 교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 교재는 통합식 교재로 구성되어 있으나 문법과 발음의 제시에 치중한 편이며,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재는 의사소통 위주의 구성에 어휘와 문화적 요소의 제시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Themen aktuell>은 1980년대 Themen으로 출판되어, 1990년대 <Themen neu>, 2000년대 <Themen aktuell>로 개정되며, 독일 문화원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을 위해 가장 많이 쓰여 온 대표적인 외국인용 위한 독일어 교재라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DaF Wortschatz>는 본고에서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다른 통합 교재들과는 그 체계나 성격이 다르나, 최근 들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한 분야별 부교재의 필요성과 개발에 관

한 논의가 차츰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어휘 부교재로서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각각의 교재에서 연어 표현들을 추출하여 기본 어휘 목록과 비교하고, 그 출현 빈도와 제시 형태 및 연습 과제의 제시 여부 등을 비교하였다.

추출 대상이 되는 한국어 연어의 범주에는 본고의 ‘제2장 제3절 3.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어의 개념과 범주 설정’에 따라 표현 연어와 이해 연어(표현 교육과 이해 교육의 대상이 되는 연어)로서, 구성 요소의 의미가 모두 투명하고 결합 제약도 없는 자유 결합을 제외하고, 관용어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연어이다.

독일어 역시 관용어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연어를 그 추출 범위로 삼았다. Hausmann(2003)은 합성어<sup>43)</sup>를 포함한 다양한 단어 결합 형태를 예외적인 구조의 연어로 정의하며, 언어 교육의 입장에서 연어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데, 독일어 연어의 추출 범위는 이러한 Hausmann(2003)의 정의를 토대로 하여, 여기에 관용 표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Hausmann(2003)에 따른 독일어 연어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2) 일반적인 통사적 구조의 연어:

- a. 언어핵이 체언(substantive)인 경우: blinder Passagier(무임 승객), heikeles Thema(미묘한, 까다로운 문제)류/ Ruhe einkehren(평화로워지다)/ den Tisch abräumen(식탁을 치우다) 류/zu Hause(집에)류
- b. 언어핵이 동사나 부사인 경우: peinlich genau(아주 정확하게), verbissenkämpfen(이를 악물고 싸우다)

---

43) 독일어 조어법의 큰 특색 중의 하나가 합성어가 극히 생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인데, Hausmann(2003: 317)은 이러한 명사 결합 관계 중 구성 요소들의 독자적인 의미가 전이되어 은유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결합 관계를 연어의 특수한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합성어의 예로는 ‘Briefkastenfirma’(Briefkasten-우편함, Firma-회사/Briefkastenfirma-우편회사)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전문 용어에 많이 존재한다(Hausmann, 2003: 317 참조). 본고의 앞부분에서는 한국어에 있어서도 ‘우편 회사’와 같이 [N+N]의 긴밀한 결합관계에서 그 의미의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연어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책벌레’, ‘뽕소니차’와 같이 구성 요소의 독자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은유적 의미를 가지게 된 합성어도 연어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33) 예외적인 구조의 언어:

- a. 목적어가 부사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 Bauklötze staunen(매우 놀라운), nur Bahnhof verstehen(이해하지 못하다)류
- b. 동사가 형용사적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경우: verrückt spielen(영망진창이 되다), kaputt gehen(고장나다, 망가지다)류
- c. 기능 동사구 : zur Entfaltung kommen(드러내다, 전개하다), unter die Dusche gehen(샤워를 하다)류
- d.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가 언어핵으로 쓰이는 경우: treulose Tomate(배신자), nichtigem Anlass beleidigt tun(별 것 아닌 일로 불쾌해하다)류
- e. 두 개의 언어가 연결된 삼중 구조의 언어: massive Kritik üben(강하게 비난하다)류
- f. 전형적인 수식어와 함께 연결되는 구성: dringlichen Appel richten(간청하다), scharfe Angriff richten(날카롭게 공격하다)
- g. 합성어(Wortzusammensetzung): Briefkastenfirma(유령회사), Schiebedach(선루프)류
- h. 세 개 이상의 단어가 연결되어 은유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pseudo-Dreiergruppen): Geld zum Fenster hinauswerfen(돈을 흥청망청 낭비하다)류

## 제2절 언어 선정의 적절성 비교

### 1. 학습용 기초 어휘의 반영

교재에서 특히 결합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되는 어휘들은 학습용 기초 어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각 교재에 제시된 언어가 학습용 기초 어휘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각 교재의 언어 목록을 추출

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어 학습용 어휘’(국립국어연구원, 2003) 및 ‘독일어 학습용 기초 어휘’(ZDaF Grundwortschatz, 독일 문화원, 1999)와 이들 각 교재의 연어목록을 비교하여, 각각의 교재에 제시된 연어가 학습용 기초어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이화여대 급별 교재 <말이 트이는 한국어>에 제시되어 있는 연어의 급별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9> 이대 교재 급별 연어목록

이대 1(연어)			
가게를 닫다	마음이 넓다	사진을 찍다	춤을 추다
감기에 걸리다	바람이 불다	상다리가 부러지다	피아노를 치다
거울을 보다	바이올린을 켜다	스키를 타다	한잔 하다
계획을 세우다	배가 고프다	안개가 끼다	
고개를 끄덕이다	배가 부르다	안경을 쓰다	
이대 2(연어)			
감기에 걸리다	면허증을 따다	이를 닦다	꿈을 꾸다
거품을 내다	모자를 쓰다	입에 맞다	냄새가 나다
계획을 세우다	기억이 나다	입에 안 맞다	땀이 나다
골프를 치다	기대가 되다	잠이 들다	문을 잠그다
군침이 돌다	길을 잃어버리다	장갑을 끼다	바람이 불다
귀양을 가다	반지를 끼다	재미를 붙이다	밥을 짓다
걱정이 되다	밥을 새우다	재채기가 나다	본분을 잇다
기억에 남다	배탈이 나다	주사를 맞다	살을 빼다
길이 막히다	깜짝 놀라다	줄을 서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김치를 담그다	별 말씀을 다하다	(불쾌)지수가 높다	스트레스를 풀다
꽃이 피다	별이 (잘) 들다	짐을 풀다	엄벌에 처하다
노래를 부르다	비가 오다	짐을 짓다	여유가 있다
눈이 부시다	살이 빠지다	껍질을 벗기다	열량이 낮다/높다
눈이 오다	소리를 지르다	태풍이 불다	웃음이 돌다
담배를 피우다	소풍을 가다	한잔 하다	자신이 있다/없다
더위를 먹다	스트레스가 풀리다	한턱(을) 내다	정의를 내리다
마음에 들다	엄벌에 처하다	힘이 들다	
이대 2 (관용어)			
귀가 가렵다	눈이 캄캄하다	바람을 피우다	손이 크다
귀가 아프다	바가지를 긁다	발 벗고 나서다	입이 무겁다

귀가 얇다	바가지를 쓰다	발을 끊다	입이 짧다
누구 코에 붙이냐?	바가지를 썬우다	발이 넓다	코앞에 닥치다
눈감아 주다	바람을 맞다(약속)	손을 잡다	콧대가 높다
눈이 높다	바람을 쐬다	손이 모자르다	
이대 3 (언어)			
가슴이 두근거리다	마음이 맞다	소용이 없다	잠이 들다
간단명료하게	마중 나가다	손에 익다	잠이 오다
감기에(가,를) 걸리다	말도 안되는(농담)	손을 끊다	잠자리에 들다
값을 깎다	머리가 멍하다	손이 (많이) 가다	적성에 맞다
개꿈	머리를 감기다	손이 뻣다	전등을 끄다
견문을 넓히다	면허증을 따다	송송 썰다	진화를 걸다
경사가 급하다	모자를 쓰다/썬우다	수입이 째뻑하다	절망에 쌓이다
경험을 쌓다	목이 마르다	시간을 내다	정신을 차리다
공을 세우다(군인)	몸살이 나다	시비가 붙다	주머니가 넉넉하다
기가 막히다	몸이 결리다(근육)	시험에 떨어지다	짜증이 나다
기분을 상하다	무릎을 꿇다	시험에 붙다	차례를 지내다
기분이 언짢다	미련이 없다	시험을 치르다	천만 다행이다
기침이 나다	바가지를 쓰다	신발을 신다	천만의 말씀이다
김치를 담그다	배가 고프다	안경을 끼다	철철 흐르다
꿈에도 모르다	배가 부르다	안도의 한숨	최선을 다하다
꿈에서 깨다	별일 아니다	야단을 맞다	춤을 추다
꿈을 꾸다	본의 아니게	어쩔 줄을 모르다	치수를 재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을 끄다	없는 것이 없다	친하게 지내다
눈에 띄다	불을 켜다	열이 내리다	(약속을)칼같이 지키다
단풍이 들다	불행 중 다행이다	오해가 풀리다	콧물이 나다
(줄)담배를 피우다	비가 오다	용기가 나다	타산을 맞추다
도둑을 맞다	뺑소니차	용기를 내다	수지를 맞추다
도둑이 들다	사진을 찍다	용서를 빌다	테니스를 치다
돈을 벌다(번 돈)	사활을 걸다	우산을 쓰다	편의를 봐 주다
들통이 나다	살이 빠지다	유행을 타다	편지를 부치다
마음(을) 먹다	살이 찌다	이유를 대다	풀이 죽다
마음에 두다	상을 차리다	자리를 비우다	핑계를 대다
마음에 들다	선택의 기로에 서다	잘못을 범하다	한턱내다
마음을 비우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잠을 설치다	햇빛이 들다
마음이 넓다	소문이 자자하다	잠을(에서) 깨다	화를 내다

이대 3 (관용어)			
고장난 수도꼭지	뒤집어 씌우다	식은 죽먹기	월급이 취꼬리만하다
그림의 떡	바람(을) 맞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하늘의 별따기
꿀 먹은 병어리	손가락에 장을 지지다	엎드려 절 받기	혹을 떼다
누워서 떡먹기	손이 발이 되도록 발다	입에 쓴 약	
한번만 눈감아 주다	손이 없는 날	제 눈에 안경	

이중 연어핵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 학습용 어휘(국립국어연구원, 2003)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총 139개의 연어 중 106개가 학습용 기초 어휘를 바탕으로 하였고, 33개(23.7%)는 학습용 기초 어휘에 속하지 않는 것이었다.

학습용 기초 어휘에 속하지 않는 연어들은 다음과 같다.

<표 10> 이대 교재 급별 연어목록 중 학습용 기초 어휘에 속하지 않는 연어 목록

낮잠을 자다	본분을 잇다	사활을 걸다	수지를 맞추다
상다리가 부러지다	열량이 낮다/높다	시비가 붙다	꿀 먹은 병어리
군침이 돌다	정의를 내리다	안도의 한숨	손이 없는 날
귀양을 가다	견문을 넓히다	전등을 끄다	월급이 취꼬리만하다
면허증을 따다	경사가 급하다	천만다행이다	혹을 떼다
배탈이 나다	공을 세우다	철철 흐르다	
별이 들다	미련이 없다	치수를 재다	
엄벌에 처하다	본의 아니게	콧물이 나다	
지수가 높다	뺑소니차	타산을 맞추다	

이들 학습용 기초 어휘에 속하지 않는 연어들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로 ‘귀양, 면허증, 엄벌, 지수, 본분, 열량, 정의, 견문, 경사, 공(功), 본의, 사활, 시비, 안도, 타산’ 등 한자어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넥타이를 매다’, ‘테니스를 치다’, ‘비디오를 찍다’, ‘택시를 잡다’, ‘바이올린을 켜다’, ‘스트레스를 받다’ 등과 같이 외래어를 바탕으로 하는 연어들과 학습용 기초 어휘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들 외래어는 대부분 학습용 기초 어휘에 반영이 되어 있었다.

서울대 급별 교재 <한국어>에 제시되어 있는 연어의 급별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1> 서울대 교재 급별 연어목록

서울대 1(연어)			
눈이 오다	감기에 걸리다	구경을 다니다	
비가 오다	배가 고프다	시험을 보다	
서울대 2(연어)			
감기에 걸리다	눈이 오다	생각이 나다	전화를 받다
그림을 그리다	담배를 끊다	소개를 받다	주문을 받다
기회가 있다/없다	담배를 피우다	시간이 나다	초대를 받다
길이 막히다	바람이 불다	신발(운동화, 구두)을 신다	춤을 추다
къ을 썬다	배가 고프다	잠을 자다	큰일이 나다
꽃이 피다	배가 부르다	전화가 오다	탁구/테니스를 치다
꿈을 꾸다	비가 내리다	전화를 걸다	피아노를 치다
노래를 부르다	비가 오다	전화를 끊다	화가 나다
눈이 내리다	사진을 찍다	전화를 바꾸다	화를 내다
서울대 3 (연어)			
가게를 닫다	머리를 감다	생각이 나다	잠이 오다
감기에 걸리다	모자를 쓰다	생각이 들다	장난을 치다
거울을 보다	목이 마르다	세탁기를 돌리다	전기가 나가다
계획을 세우다	문제를 내다	소포를 부치다	전화를 받다
고개를 끄덕이다	문제를 풀다	손을 보다	전화가 오다
고장이 나다	바람이 불다	수도를 틀다	전화를 걸다
그림을 그리다	배(가) 고프다	수수께끼를 내다	전화를 끊다
기가 막히다	배가 부르다	수수께끼를 풀다	정이 들다
김치/깍두기를 담그다	병이 나다	시계를 차다	주사를 맞다
꽃이 피다	불을 켜다	시험에 붙다	술을 서다
나이를 먹다	불을 끄다	시험을 보다	최선을 다하다
넥타이를 매다	비/소나기가 오다	신발(운동화, 구두)을 신다	춤을 추다
노래를 부르다	비디오를 찍다	안경을 끼다	큰일이 나다

눈이 오다	사고가 나다	야단을 맞다	택시를 잡다
담배를 피우다	사진을 찾아 보다	야단을 치다	테니스를 치다
돈을 찾다	사진을 찍다	양말을 신다	피아노를 치다
마음에 (안) 들다	사진이 (잘) 나오다	얼음이 얼다	화가 나다
마음을 먹다	살이 찌다	열이 나다	화를 내다
마음이 맞다	상을 타다	우산을 쓰다	화를 풀다
서울대 3(관용어)			
귀가 가렵다	발이 넓다	한잔 사다	
손발이 맞다	손이 크다	한잔 하다	
눈이 높다	하늘의 별따기	한턱 내다	

서울대 교재에 제시된 연어는 총 85개(323회)로, 제시 연어의 수는 이화 여대 교재보다 훨씬 적었다. 그러나 제시 빈도는 거의 비슷하여 같은 연어가 반복 제시된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어 목록을 연어핵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 학습용 기초 어휘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수수께끼’를 제외한 모든 연어핵이 학습용 기초 어휘 목록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서울대 교재의 경우 제시 연어 수는 적지만, 제시된 연어는 한국어 학습자가 알아야 할 기초 어휘의 범주 안에서 선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Themen aktuell>에 제시된 연어의 급별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2> <Themen aktuell> 급별 연어 목록

Themen 1 (연어)		
Abitur machen	Geschäft betreiben	scharfe Fotos machen
Abschluß machen	Geschirr spülen	schlechte/gute Laune
Arbeit machen	gute Nerven	Schmuck tragen
Aufgabe machen	Gymnastik machen	schmutzige Arbeit
Ausflug machen	in einer Sekunde	Schuhe putzen
Bad nehmen	in Ordnung	schwere Arbeit
Bett machen	ins Bett gehen	Ski fahren
Blumen gießen	Kaffee machen	spazieren gehen
Camping machen	kein Problem	Spaziergang machen
das Licht ausmachen	Krach machen	Spiel machen

der Pfeffer fehlen	Kunst machen	Sport machen
der Wein ist trocken	Kurs machen	Sport treiben
Diät machen	Lärm machen	Sport/Yoga machen
Diplom machen	Lehre machen	Streit haben
Dreck machen	Lust haben	Streit machen
Dummheit machen	macht nichts	Theater machen
ein Passbild machen	Maschine abstellen	Theater spielen
eine Frage stellen	Medikamente(Tablette, Nasentropfen) nehmen	Trompete spielen
eine heiße Story	mit heißem Bemühen	tut weh
eine Panne haben	Musik machen	Umfrage machen
einen Beruf lernen	Ordnung machen	Unfall haben
Erfolge heben	Pause machen	Unfall passieren
Essen machen	Pause machen	Urlaub machen
Examen machen	Pech haben	Urlaub machen
Fehler machen	Politik machen	Wäsche waschen
Feierabend machen	Prüfung machen	Zähne putzen
frei haben	Quatsch machen	zu Ende
Frühstück machen	Rat geben	zu Fuß
Fußball spielen	Recht haben	zu Hause
Geld abheben	Reise machen	zum Schluss
Geld ausgeben(für etw.)	Ruhe finden	zur Schule gehen
Geld tauschen	Spaß machen	
Geld verdienen	sauber machen	
Themen 1 (관용어)		
13. Monatsgehalt	gute Besserung	vor allem
Auf Wiedersehen	guten Morgen	wie bitte
den Boden unter den Füßen verlieren	kann sein	Wie geht es
Donnerwetter	mein Gott	Zahn um Zahn
ein nettes Mädchen ohne Katzen	stimmt so	zum Beispiel
es gibt	tut mir leid	zur Zeit
Themen 2 (연어)		
Abitur machen	Geschirr spülen	Schach spielen
Abschluß machen	Haushalt machen	scharfe Fotos (machen)
Angst haben	Hemd zumachen/aufmachen	Schlagzeil machen
Anspruch stellen	Herz schlagen	schlechte/gute Laune (haben)
Arbeit machen	im Jahr	schmutzige Arbeit
aus dem Augen verlieren	in Angriff nehmen	Schuhe putzen

aus dem Regel kippen aus der Hand (fressen)	in Frage kommen in Ordnung	schwer verletzen Shirm zumachen/aufmachen
Ausbildung machen	ins Auge fassen	Ski fahren
Ausflug machen	ins Bett gehen	spazieren gehen
Blumen gießen	Internet surfen	Spaziergang machen
Chance haben	Interview machen	Spaziergang machen
das Licht anmachen	Kaffee machen	Spiel machen
das Licht ausmachen	kaputtfahren	Sport treiben
das Telefon ist besetzt	Karriere machen	starke/kleine Verletzung
Der Regen ist stark	Kindermädchen	Stelle bekommen
Dialoge machen	Klavier spielen	Stelle finden
die Schuhe anziehen	Kontakt finden	Stelle nehmen
Diplom bestehen	Kunst machen	Straßentheater machen
Diplom machen	Kurs machen	Test bestehen
ein Gewitter kommen	Leihgroßmutter	Theater spielen
Eindruck machen	Musik machen	Theater spielen
eine Gespräch führen	noch mal	tut (mir) weh
eine Krawatte anziehen	Ordnung machen	Übungen machen
eine Lehre machen	Party machen	um keinen Preis
eine Panne haben	Pause machen	Unfall haben/passieren
einen Beruf Lernen	Plan machen	Unglück machen
Einkäufe machen	Pratikum machen	Urlaub machen
Essen machen	Probleme lösen	Versicherung abschließen
Examen bestehen	Prüfung bestehen	Vertrag abschließen
Examen machen	Prüfung bestehen	Vertrag unterschreiben
Feierabend machen	Prüfung machen	von Beruf sein
frei haben	Quiz machen	Vorschläge machen
Frisur machen	Rat geben	Wäsche waschen
Frühstück machen	Recht haben	Zähne putzen
gar nicht	Regelung treffen	zu Hause
Gedanken machen	Reise machen	zum Glück
Geld ausgeben(für etw.)	Spaß machen	zum Teil
Geld verdienen	sauber machen	
Themen 2 (관용어)		
13.Monatsgehalt	ein paar	tut mir leid
auf jeden Fall	es geht	vor allem
auf keinen Fall	es gibt	zu Fuß
den Boden unter den Füßen verlieren	Gott sei Dank	zum Beispiel



der Pfeffer fehlen	mein Gott	zum Schluss
ein nettes Mädchen ohne Katzen	Müllcocktail	zur Zeit
Themen 3 (연어)		
Abitur machen	Hand reichen	Reise machen
Abschluß machen	hart bleiben	Reparatur machen
Anfang machen	Hausaufgaben machen	eine (große) Rolle spielen
Angst haben	zu Hause	jdm. den Rücken frei halten
Aufgabe lösen	zu Hilfe nehmen	Rücksicht nehmen
Auge zumachen(kein)	um Hilfe schreien	Scherzkeks
Augenkontakt	höchstwahrscheinlich	schief laufen
Ausflug machen	Heißhunger	nicht schlecht
ins Bad gehen	Hunger haben	die Schuhe anziehen
Ballon fahren	Hut aufsetzen	(auf die) Schulter klopfen
Bescheid geben	kaputt machen	(der) Sinn bestehen
ins Bett gehen	klar gehen	Ski fahren
Beziehung führen	Kompliment machen	aus Spaß
Billanz erstellen	Kontakt finden	Spaß machen
Glühbirne	Kontakt aufnehmen	spazieren gehen
starke Brille	Kontakt abbrechen	Spaziergang machen
Brille tragen	in Kontakt kommen	ein Spiel verlieren
Brille aufsetzen	Krach machen	Sport treibn
Buch zuschlagen	Kurs machen	Sport machen
contra geben	zum Lachen (sein)	bei der Stangen halten
Dienst leisten	etw. In die Lage versetzen	etw. Jdm. gut stehen
eilig haben	schwere Last	Stelle verlieren
Einladungen schreiben	zu Lasten gehen	Strategien entwickeln
Ellbogen stützen	schlechte/gute Laune (haben)	Streit führen
Entscheidung treffen	Leistung halten	Streithammel
zu Entscheidungen kommen	unter die Leute	Technik beherrschen
in Erfüllung gehen	das Licht ausmachen	Temperament haben
die Erfüllung finden	(die) Lieferung kommen	Lauter Termin
ernst nehmen	Löcher bohren	Test machen
Examen bestehen	in die Luft gehen	Theater spielen
Fehler machen	Medikament nehmen	Tiere halten
Flug buchen(einen)	einer Meinung sein	Tisch decken
Formular ausfüllen	Mund schließen	Traum erfüllen
scharfe Fotos (machen)	mit vollem Mund (sprechen)	Übungen machen
frei haben	Münze werfen	Umstände mchen
Früchte anbauen	Musik machen	Unterricht machen

zu Fuß gar nicht zu Gast	Mut machen die Nacht zum Tag machen Nagel (in die Wand) schlagen	Urlaub machen Urlaub nehmen Verantwortung tragen
Gedanken machen Gefallen tun im Gegenteil Geizkragen Geld abheben Geld ausgeben(für etw.) Geld verdienen Geschäfte schließen Geschichte erzählen ein (fröhliches) Gesicht machen Gewicht verlieren zum Glück Gymnastik machen	Namen tragen Nase passen aber natürlich auf die Nerven gehen Notizen machen totale Null (in etw.) in Ordnung Pause machen Pferde leiten Picnic machen	Vergnügen machen zum Vergnügen Verspätung haben Versprechen halten Vorschläge machen Vorschläge annehmen Vortrag halten (auf etw) Wert legen Witze reißen Wünsche erfüllen
die Haare kämen die Haare verlieren Hand geben Hand schütteln aus der Hand Handschlag Hand drücken	Probleme lösen Programm laufen (Freizeit)programm spielt sich Prüfung ablegen im Rampenlicht stehen Ratschläge bekommen Ratschläge geben zu (jds) Recht kommen Recht haben eine Rede halten	Zähne putzen Zeit vertreiben Zeit nehmen  in der Zeitung stehen Wäsche waschen Blumen gießen Gespräch führen Termin machen schlechte Nerven haben
<b>Themen 3 (관용어)</b>		
ab und zu auf Achse sein auf einmal auf jeden Fall auf keinen Fall  aus allen Wolken fallen bei etw. Den Kürzeren ziehen bis aufs Messer kämpfen Das geht Sie nicht an Das geht zu weit Das ist genug	Das ist meine Sache Das macht nichts Das(es) geht nicht der alte Affe ein voll behütetes Kind sein es gibt es kommt darauf an  es läuft Grüß Gott im Allgemeinen im Kommen	In der Regel jeder kennt jeden tut mir leid vor allem Wie geht es  zum Beispiel zur Zeit  Tag und Nacht die Stunden zählen rund um die Uhr

<Themen aktuell>에는 이상과 같이 총 208개(418회)의 연어가 제시되고 있는

데, 이 중 언어책이 독일어 학습용 기초어휘(Goethe Institut, 1999)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47개(22.6%)였다. 이는 서울대 교재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이며, 이화 여대 교재(23.7%)와 비교하여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비율이다. 그러나 분석의 기준으로 삼은 ‘한국어 학습용 어휘’의 규모(5,965개)가 ‘독일어 학습용 기초 어휘’(2,075개)의 두 배 이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화 여대 교재보다는 그 비율이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학습용 기초 어휘에 속하지 않는 단어에는 ‘Highschool’, ‘Internet’, ‘Test’, ‘Quiz’ 등과 같은 외래어나 ‘Trompete’, ‘Golf’ 같은 특정 악기나 운동의 명칭, ‘Blödsinn reden(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 ‘Quatsch(헛소리)’, 등과 같은 비속어가 다수 속해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다음은 <DaF Wortschatz>에 제시된 언어 목록이다.

<표 13> <DaF Wortschatz> 언어 목록

Wortschatz <언어>		
in Abrede stellen	(auf etw.) Einfluß üben	der Regen lässt nach
allein erziehend	in Empfang nehmen	Rotlichtszene
Anklage erheben	ein Ende machen	(auf etw.)Rücksicht nehmen
Anschlag verüben	einen Entschluß fassen	keine Ruhe geben
Ansprache richten	die Erlaubnis erteilen/geben	in Ruhe lassen
in Anspruch nehmen	in Erstaunen versetzen/geraten	im Satz stehen
Anstrengungen unternehmen	in Erwägung ziehen	gut/schlecht (bei etw.) abschneiden
Antwort geben	Fehler machen	Schritte tun
Anwendung finden	Feuer ausbrechen	Schuhe binden
grün vor Ärger sein	zur Folge haben	Schue putzen
zur Aufführung kommen/gelangen	Folge leisten	(jdm.) die Schuld zuschreiben
in Aufregung versetzen	eine Froderung stellen	in Sicht kommen
(jdm.) schöne Augen machen	in Frage stellen	den Sieg erkämpfen
Augen trauen	in Gang setzen	Sorgen machen

die Auge verdrehen zum Ausdruck bringen	Gefallen tun es geht (jdm., etw.) gut/schlecht	(jdm.) gut stehen (die) Stelle ausschreiben
Auswahl treffen	Tschengeld	in die eigene Tasche wirtschaften
eine Bank überfallen	Trinkgeld	in die Tat umsetzen
Waschbrettbauch	Geld ausgeben	Termin festsetzen
Beachtung finden/schenken	Geschichte erzählen	ein Theater machen
Befehl erteilen	ein Gespräch führen	das Tor schießen
im Begriff (sein)	Glauben schenken	gut/schlecht tun
Beistand leisten	in besten Händen sein	(die) Uhr geht nach
Bericht erstatten	Wochenendhaus	(die) Uhr geht vor
Berücksichtigung finden	zu Hause	Umstände machen
einen Beschluß fassen	Hunger haben	eine Unterhaltung führen
Bestes tun	Interesse finden/zeigen	Unterricht erteilen
einen Besuch bestatten	in Kauf nehmen	vereinbarung treffen
in Betracht ziehen	zur Konsequenz haben	in Vergessenheit geraten
(einen) Beitrag leisten	Konto ausgleichen	Verspätung haben
ins Bett gehen	wachsende Kosten	ein Versprechen geben
in Bewegung kommen	in Kraft treten	Verständnis haben
unter Beweis stellen	außer Kraft setzen	Vertrauen schenken
(auf etw.) Bezug nehmen	in der Lage (sein)	auf Vorschläge eingehen
Billanz ziehen	das Licht brennen	auf den Vorschläge einlassen
Glühbirne	Licht machen	Vorsorge treffen
Blödsinn reden	Medikament einnehmen	einen Vorwurf erheben
die Blumen gießen	Mund halten	Wache halten
Blumen geht ein	Mütze aufsetzen	eine Wahl treffen
Brief abgeben	Nagel (in die Wand) Schlagen	Wasser aufsetzen
(eine) Brille aufsetzen	Nase putzen	Wasser aufstellen
in die Brüche gehen	Der Nebel ist dicht	Widerspruch erheben
Dank abstatten/aussprechen	auf die Nerven gehen	eine Wirkung ausüben
zur Debatte stellen	in Ordnung (sein)	zu Wort kommen
zur Diskussion stellen	in Ordnung bringen	in Wut geraten
zur Durchführung bringen	Pflicht tun	im Zusammenhng stehen
unter der Dusche stehen	(die) Polizisten ermitteln	in Zweifel ziehen
eine Eid leisten	eienen Rat geben	
Eindruck machen	in Rechnung stellen	
Wortschatz <관용어>		
glatt wie ein Aal	jdm. Wird kein Haar gekrümmt	jdm. Zu Ohren kommen

sich winden wie ein Aal	an den haaren herbeigezogen	faustdick hinter den Ohren haben
sich in der Sonne aalen	die Haarre zu Berge stehen	hinter die Ohren schreiben
ab und zu	Wasserhahn	aufs falsche Pferd setzen
ab und an	bis zum Hls stecken	Pferdeschwanz
affenstark	Hals über Kopf	weder Porelle noch Fisch
auf und ab	Streithammel	pudelnass
mit eienem blauen Auge davon kommen	Hand (für jdn) ins feuer legen	Unglücksrabe
die Faust aufs Auge passen	von Hand in den Mund leben	Rabaneltern
ein Auge zudrücken	Ansthase	Rabenschwarz
Augen waren größer als der Magen	zwei Hasen auf einmal jagen	das fünfte Rad am Wagen
ins Auge gehen	auf der faulen Haut liegen	Leseratte
ein Auge auf jdn. werfen	Haut und Haar	die Welt duch die rosarote Brille sehen
ein Dorn im Auge sein	mit Haut und Haaren einander verlieben	den roten Faden verlieren
unter vier Augen sprechen	das letzte Hemd bekommen	Rotlichtviertel
aus den Augen lassen	zwei Herzen schalgen in jds. Brust	Rothaut
bärenstark	Himmel und Hölle	rot vor Scham
bärengail	im siebten Himmel sein	dem Rotstift zum Opfer fallen
Bärenhunger	hin und wieder	den Rücken frei halten
(jdm) eienen Bären aufbinden	hin und da	mit Sack und Pack
(mit etw.) bergab gehen	hin und her	die Schnauze voll haben
Arbeitsbiene	auf zwei Hochzeiten tanzen	Schneckentempo
bienenfleißig	sich auf den Hosenboden setzen	die ersten Schritte machen
eine Fahrt ins blaue	Lachen die Hühner	Schwarzearbeit
blauen Dunst vormachen	mit den Hühner ins Bett gehen	die schwarz Witwe
das Blaue vom Himmen versprechen	hundekalt	der schwarze Erdteil
ein blaues Wunder erleben	wie Hund und Katze	das schwarze Schaf
blau sein	Ja und Amen sagen	schwarz auf weiß
blauer Brief	Lackkaffe	ins Schwrze treffen
blauer Montag	Besuchskaninchen	den schwarzen Peter zuschieben

Sündenbock	alles auf eine Karte setzen	Schwein haben
jdm. Daumen drücken nicht bis drie zählen können	alle Katzen sind grau die Katze im Sack kaufen	Schweine zusammenhüthen Riesenschwein haben
Elefant im Porzellanladen auf den ersten Blich verlieben	Naschkatze Schmutzekatze/-katter	Sparschwein schweineteuer/Sauteruer
mit der Faust auf den Tisch schlagen	mit Kind und Kegel	ein Buch sieben Siegl'n
ein dickes Fell haben	klipp und klar	für etw. Siebten Sinn haben
um den Finger gewickelt	auf den Kopf gefallen sein	mit Kanonne auf Spatzen schießen
auf die Finger sehen	auf etw. Sich Hals über Kopf werfen	Stierkämpfe
alle zehn Finger lecken gesund wie ein Fisch um Wasser	aus dem Kopf schlage jdm ein Stein vom Herz fallen	Stierhoden rotes Tuch
keine Fliege etw. zuleide tun	den Nagel auf den Kopf treffen	Tür und Tor
zwei Fliegen mit einer Klappe schlagen	den Kopf in den Sant stecken	Spaßvogel
die Flinte zu früh ins Konr werfen	kräbsrot	das Wasser steht bis zum Wasser
jdm. eine Floh ins Ohr setzen	Korokodilstränen	jdm. das Wasser laufen im Mund zusammen
Flohmarkt	kurz und klein	eine weiße Weste haben
fuchsteufelswild	larmfrom	etw. Schwarz auf weiß habnen
mit dem linken füße aufstehen	jdm. eine Laus über die Leber gelaufen	Weißglut
Gänsehaut	tut mir leid	weißer Tod
Gämsemarsch	Liebe auf dem ersten Blick	Weiß- Kragen-Kriminalität
es gibt	die Antwort aufden Lippen haben	Auf wiedersehen
wie geht es	Was ist los?	wieselflink
glanz und gloria	Was geht hier los?	mit dem Wimpern zucken
graue Maus	Partzlöwe	ein mann, ein Wort
die keinen grauen Zellen	Löwenanteil	jedes Wort auf Goldwaage legen
graue Emiinez	mausetod	jdm. die Wärmer aus der Nase ziehen
vom grünen Tisch wegentscheiden	fünf Minuten vor Zwölf kommen	der Zahn der Zeit

grünes Licht haben/egeb jdn. über den grüne Klee roben	Lustmolche aus einer Mücke eienen Elefanten machen	Zebrastreifen Sauregurkenzeit
grün vor Neid die grüne Welle	auf den Mund gefallen sein auf die Nase binden	die zweite Geige spielen zweimal sagen lassen
auf einen Zwiig kommen	an der Nase herum führen	zwischen zwei Stellen sitzen
jdm grün und blau schlagen	aufs Ohr legen	zwölf Briefe bekommen

이상 353개의 연어 중 독일어 학습용 기초어휘(Goethe Institut, 1999)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65개(18.4%)로, 이화여대 교재나 <Themen aktuell>보다 낮았다. 특히 학습용 기초 어휘에 속하지 않는 단어들은 Floh(벼룩), Elefant(코끼리), Aal(장어), Bock(양), Fliege(파리), Fuchs(여우), Hase(토끼), Löwe(사자), mause(쥐), Forelle(송어), Schnecken(달팽이), Schwein(돼지) 등 동물의 이름이 많았는데, 이는 주제별(동물, 색깔 등) 관용어 학습을 독립된 부분으로 구성한 <DaF Wortschatz>의 내용 구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들을 제외하면 학습용 기초 어휘에 속하지 않는 단어를 바탕으로 한 연어의 비중은 위에 제시한 비율보다도 더 낮았다.

## 2. 단계별 학습량 비교

각 급별로 제시된 연어의 수 및 새로 제시된 연어의 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각 교재에 제시된 연어의 단계별 학습량

교재	급별	새로 제시된 연어 수	교재	급별	새로 제시된 연어 수	교재	급별	새로 제시된 연어 수
이대 1	18	18	서울대 1	6	6	<i>Themen 1</i>	115	115
이대 2	90	88	서울대 2	36	36	<i>Themen 2</i>	134	107
이대 3	139	121	서울대 3	85	83	<i>Themen 3</i>	208	177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 1>에 처음 제시된 연어 표현은 18개였고, <말이 트이는 한국어 2>에 제시된 연어 중 1권에 제시되었던 연어를 제외하고 새로 제시된 연어는 88개,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의 연어 중 앞의 1, 2권에서 제시되었던 연어를 제외하고 새로 제시된 연어는 121개였다. 이상 단계별로 새로 제시된 연어의 수를 보면 1, 2, 3권에 제시된 연어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앞 권에 제시된 연어가 다음 권에 다시 제시되는 경우도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2권의 경우 2개, 3권의 경우 18개).

서울대 <한국어 1>에 처음 제시된 연어는 6개, <한국어 2>에는 36개의 연어가 새로 제시되었으며, <한국어 3>에는 모두 83개의 연어가 새로 제시되었다. 서울대 교재의 경우에도 급별 교재의 연어 수는 많은 차이가 났으며, 중복 제시되는 연어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2권의 경우 0개, 3권의 경우 2개).

한편, <Themen aktuell 1>에 제시된 연어는 모두 115개이다. <Themen aktuell 2>의 연어 중 1권에 나왔던 연어를 제외하고 새로 제시된 연어는 107개로, 1권에서는 연어의 수가 극히 적고 2권, 3권에서 급격히 그 수가 늘어나는 한국어 교재와는 달리 1권에 제시된 연어가 오히려 더 많았으며 그 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Themen aktuell 3>에 새로 제시된 연어의 수는 177개로 앞 권보다 현저히 많았다.

앞 권에서 제시되었던 연어가 다시 제시된 수는 <Themen aktuell 2>가 27개, <Themen aktuell 3>이 31개로 한국어 교재보다는 많았으나, 제시 연어의 수가 한국어 교재보다 훨씬 많음을 감안할 때 그 중복 비율은 역시 높지 않다고 하겠다.

### 제3절 연어 제시의 적절성 비교

제3절에서는 각 교재에 연어가 제시된 배경과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연어의 제시가 연어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연어 제시의 배경

우선 연어가 어휘 학습 영역에 있어 연어의 학습을 위해 교재에 도입·제시되었는지, 아니면 문법 표현의 기능이나 단원의 주제와 관련하여 부차적, 우연적으로 도입되었는지의 여부를 교재의 3권(주교재 및 연습 교재 포함)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시된 연어가 연어의 의도적 학습을 위해 제시되었는가 여부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로 판단하였다.

첫째, 대화문, 읽기 본문 등 제시문과 독립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는가?

둘째, 제시된 연어가 긴밀한 결합 관계이거나, 구성 요소들의 원래 의미가 그대로가 아닌 은유적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셋째, 연어의 학습 및 활용 또는 확장을 위한 연습 과제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에는 본교재(Studentbook)와 연습 교재(Workbook)를 통틀어 총 139개의 연어가 330회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 연어 자체의 학습을 위해 선정된 경우는 21개였고, 단원이나 제시문의 주제 또는 문법 항목의 기능과 관련되어 부차적으로 도입된 경우가 118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어 표현 자체의 학습을 목적으로 하여 도입된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 (34) 마음(을) 먹다/마음에 두다/마음에 들다/마음을 비우다/마음이 넓다/손에 익다/손을 꿰다/손이 많이 가다/손이 없는 날/칼같이 지키다/유행을 타다/담배를 피우다/수입이 짹짹하다/시험에 붙다/없는 것이 없다/편지를 부

치다/어쩔 줄을 모르다/잠을 설치다/잠이 오다/잠이 들다

이들은 본문이나 대화문에 한 번씩 제시되었던 연어들 중 선정되어 특별히 언어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습 교재(Workbook)에 다시 제시된 것들로서, 이들의 제시 형태에 관해서는 제3장 4절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서울대 <한국어 3>의 본교재(Studentbook)와 연습 교재(Practicebook)에는 총 85개의 연어가 323회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언어 표현 자체의 학습을 위해 교재에 도입된 경우는 다음의 5개뿐이었다.

(35) 귀가 가렵다/손발이 맞다/눈이 높다/발이 넓다/손이 크다

서울대 교재의 경우 이외에도 ‘고장이 나다, 기가 막히다, 문제를 내다/풀다, 불을 켜다, 세탁기를 돌리다, 수도를 틀다, 사진을 찍다, 사진이 (잘/땀게) 나오다, 상을/월급을 타다, 손을 보다, 최선을 다하다’ 등의 연어가 결합 관계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와 함께 본교재(Studentbook)에 제시되었지만, Practicebook의 연습 과제에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Themen aktuell 3>에는 총 208개의 연어가 418회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 언어 자체의 학습을 위한 도입은 79개(116회)를 차지하였다.

언어 학습에 목적을 두고 도입된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36) Angst haben/ins Bad gehen/Ballon fahren/ins Bett gehen/Bilanz erstellen/  
Glühbirne/starke Brille/Brille tragen/Brille aufsetzen/contra geben/Ellbogen  
stützen/zu Fuß/Gefallen tun/Geizkragen/Geld abheben/ein (fröhliches) Gesicht  
machen/die Haare kämen/die Haare verlieren/Hand schütteln/aus der  
Hand/Handschlag/zu Hause/um Hilfe schreien/höchstwahrscheinlich/Krach  
machen/schlechte(gute) Laune (haben)/Medikament nehmen/Mund schließen/

Mut machen/auf die Nerven gehen/in Ordnung/Pferde leiten/Picnic machen/  
 Probleme lösen/(Freizeit)programm spielt sich/zu (jds.) Recht kommen/ Recht  
 haben/eine Rede halten/Reparatur machen/jdm. den Rücken frei  
 halten/Scherzkeks/die Schuhe anziehen/Ski fahren/ein Spiel verlieren/Sport  
 treiben/Sport machen/bei der Stangen halten/etw. Jdm. gut stehen/ Strategien  
 entwickeln/Streithammel/Theater spielen/Tisch decken/Traum erfüllen/  
 Umstände machen/Versprechen halten /Vortrag halten/Zähne putzen/ in der  
 Zeitung stehen/Wäsche waschen/Blumen gießen/schlechte Nerven haben/ab  
 und zu/auf jeden Fall/auf keinen Fall/Das geht Sie nicht an/Das geht zu  
 weit/Das ist genug/Das ist meine Sache/Das macht nichts/ein voll  
 behütetes Kind sein/Grüß Gott/im Allgemeinen/im Kommen sein/tut mir  
 leid/vor allem/Wie geht es/Tag und Nacht/die Stunden zählen/rund um die  
 Uhr

한국어 교재에서 연어의 학습을 위해 도입된 표현들이 모두 본문이나 대화문에  
 한 번씩 제시되었던 표현들 중 일부가 특별히 연어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습 교  
 재(Workbook)에 다시 제시된 것에 비해, <Themen aktuell>에서는 연습 교재  
 (Arbeitsbuch)에 본문이나 대화문에 나오지 않았던 연어들이 이미 제시되었던 연어  
 의 결합 관계나 활용 연습을 목적으로 하여 다수 선정, 도입된 점이 눈에 띈다.  
 이들 연어의 제시 형태에 관해서는 역시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DaF Wortschatz>에는 1부 기본편에 약 70개, 2부 심화편에 약 260여 개, 총  
 334개의 연어가 제시되었다. 이 중 1부 기본편에 제시된 연어는 주로 다른 개별 어  
 휘들의 학습을 위한 연습에 부차적으로 도입된 경우이고, 2부 심화편에 도입된 연  
 어 표현들은 거의 대부분 연어 표현 자체의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들이  
 다.<sup>44)</sup>

DaF Wortschatz 구성의 특성상 중복 제시된 연어는 거의 없는바, 자세한 제시

44) 앞에 제시한 DaF Wortschatz 연어 목록의 대부분이 연어 자체의 학습을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여기서  
 다시 연어 학습을 위해 도입된 연어의 목록을 제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형태와 교재 구성에 관해서는 이하 2. 제시 형태에서 다루기로 한다.

## 2. 제시 형태

다음으로는 도입된 연어가 학습자로 하여금 연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철저한 습득을 위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그리고 연어의 패턴이나 의미 관계에 관한 정보가 함께 주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는 급별 교재마다 구성이 다르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1>의 경우 본교재(Studentbook)는 ‘준비-문형 및 기타 단원의 학습 내용 제시와 연습 문제’, ‘과제-말하기 활동 과제’, ‘읽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 활동을 위한 대화문과 읽기 제시문에는 단어와 표현이 문형이나 개별 어휘의 형태로 따로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부 연어가 그 의미나 쓰임에 관한 정보는 없이, ‘마음에 들다’(말이 트이는 한국어 1, 본교재(Studentbook), 76쪽)와 같이 결합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2>의 경우 1권의 구성에 ‘관용 표현’과 ‘쓰기’가 추가되어 있는데, ‘관용 표현’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정 의미 자질을 공통으로 가지는 관용 표현끼리 묶어 함께 제시하고, 대화문을 통해 상황 맥락 안에서 해당 관용 표현의 연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관용 표현을 제외한 연어는 1권과 동일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37) 이대 교재 관용 표현의 제시와 연습 활동의 예(말이 트이는 한국어 2, 본교재(Studentbook), 11쪽):

- 발이 넓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
- 발을 끊다: 서로 오가지 않거나 관계를 끊다
- 발벗고 나서다: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

A: 제임스 씨는 요즘 술집에 안 가요?

B: 네, 발을 끊었어요.

A: 왜요?

B: 긴장이 나빠서요.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은 ‘준비’, ‘상황 표현’, ‘어휘 확장’, ‘읽기·쓰기’로 구성되었다. ‘상황 표현’의 대화문과 ‘읽기’의 본문 아래에는 ‘단어와 표현’란을 두어, 제시문에 새로 쓰인 단어 중 학습이 필요한 단어의 뜻과 쓰임을 설명하고 있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1과 2의 경우에는 단어와 표현이 주로 개별 어휘 중심으로 설명 없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중요 표현이 관련 어휘들과 함께 명시적으로 제시만 이루어지기도 하고, 뜻과 예문이 함께 소개되는 경우도 있었다.

(38) 이대 교재 연어 제시의 예(말이 트이는 한국어 3, 본교재(Studentbook), 78쪽):

- 잠이 들다, 특별한 일, 불면증, ~에 시달리다, 잠이 오다, 수면제, 포도주, 효과, 밥을 세우다, 불규칙하다, 머리가 멍하다, 졸리다(말이 트이는 한국어 3, 단어와 표현, 85쪽)
-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이나 예문이 없는 경우에는 의미 관계나 패턴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으나 긴밀한 결합 관계의 표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학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의 기능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의 경우 교재 전체에 제시된 연어 표현 139개 중 76개의 연어가 주로 제시문에 제시되어 있는데 ‘단어와 표현’란에 이러한 방식으로 다시 명시적으로 제시된 연어는 약 60여 개이다.

한편,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에서 5회 이상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시된 연어와 그 주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표 15>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에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시된 연어와 그 주된 배경

연어 표현	제시 빈도	주된 제시 배경
담배를 피우다	21회	‘금연에 대해 조언하기’ 과제(12과)
마음에 들다	12회	‘감정’을 주제로 한 단원의 제시문 및 과제(1과, 2과)
배가 고프다	8회	산발적으로 제시
감기에 걸리다	7회	‘소아과에서 의사에게 아기의 증상 말하기’ 과제(3과)
테니스를 치다	6회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 형식으로 바꿔 쓰기(주제: 테니스, 4과)
상을 차리다	5회	‘돌잔치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에게 조언하기, 과제(13과)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 제시된 연어의 경우는 대부분 연어의 습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단원 주제와의 연관성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었다. 반면에 나머지 대부분의 연어들은 1회 제시가 가장 많았고 일부는 2~3회의 빈도로 제시되어 연어의 완전한 습득을 위한 반복 제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담배를 피우다’와 ‘마음에 들다’는 위의 단원 외에도 교재 전반에 걸쳐 단원의 내용이나 연어 학습의 목적과는 특별한 관계없이 문형 연습을 위해 반복 제시되고 있다.

서울대 교재는 급별 교재가 큰 차이 없이 ‘대화문’, ‘문법과 표현’<sup>45)</sup>, ‘연습 1-문형 연습’, ‘연습 2-읽기·말하기·듣기’의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어에 관한 명시적 제시는 주로 ‘문법과 표현’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 3>을 기준으로 볼 때, 54개의 연어 중 학습자가 연어 관계에 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적 제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23개로 그 비율은 이화여대 교재보다 낮았으나, 다음의 예에서

45) 이는 서울대 한국어 3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한국어 1은 ‘문법과 표현’ 대신 ‘발음’, ‘어휘와 표현’으로, 한국어 2는 ‘발음’, ‘문법’, ‘어휘와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한국어 1은 ‘연습’이 단계 구별 없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볼 수 있듯이 연어 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 비교적 자세히 이루어지고 있다.

(39) 서울대 교재 연어 제시의 예(한국어 3, 본교재(Studentbook), 24쪽)

· 상(을) 받다[타다]  
 바바라는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을 받았어요.  
 나는 한 번도 결석을 안 해서 개근상을 탔어요.  
 다나카 씨는 상을 두 개나 탔으니까 한턱 내세요.

(39)에서는 ‘타다’와 ‘받다’의 유의어 관계 및 우등상, 개근상이라는 ‘상’의 하위 개념을 도입하여 의미관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상을’과 ‘타다’ 사이에 ‘두 개나’가 삽입되어 [상을+타다] 형태의 결합 관계에 대한 패턴 정보 및 ‘타다>탔으니까’에서 술어의 어미 활용까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화여대 교재에서 연어가 주로 제시문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 서울대 <한국어 3>의 경우 제시 영역별로 살펴보면, 제시문에는 23개(26회)의 연어가, 문법 제시 및 문형 연습에는 48개(161회)의 연어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연어가 단원의 주제 또는 학습 내용과의 연계나 어휘 학습에 목적을 두고 제시된 것이 아니라, 문형 연습을 위한 예문에 우연적,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서울대 교재에 있어 연어의 반복 제시는 이화여대 교재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음의 연어들은 10회 이상 반복 제시되고 있다.

<표 16> 서울대 교재 3에 반복 제시된 연어와 그 빈도

연어 표현	제시 빈도	연어 표현	제시 빈도
신발(구두, 운동화)를 신다	22	화를 내다	15
비가 오다	21	배(가) 고프다	15
사진을 찍다	18	마음에 (안) 들다	13
담배를 피우다	16	감기에 걸리다	11

그러나 서울대 교재의 경우 이화 여대 교재와는 달리 위의 언어들 중 ‘사진을 찍다’ 외에는 모두 단원의 주제와는 큰 관련 없이 제시되고 있다. 이 또한 언어가 주로 문형 연습을 위한 예문에 산발적이고 우연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46)</sup>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대 교재와 이화여대 교재 둘 다 언어의 철저한 습득을 위한 반복 제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언어 표현들이 언어의 의도적, 명시적 학습과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쓰인 경우는 서울대 교재가 이화 여대 교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배를 피우다’, ‘마음에 들다’, ‘배가 고프다’, ‘감기에 걸리다’는 서울대 교재와 이화 여대 교재 둘 다에서 언어의 학습과 관계없이 고빈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Themen aktuell>은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와 마찬가지로 급별 본교재(Kursbuch)와 연습 교재(Arbeitsbuch)로 이루어져 있지만 교재의 구성은 한국어 교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본교재는 대략 20개 내외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4~5개의 소주제에 관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화문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제시문이 그림이나 사진과 함께 제시되고, 각각의 제시문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과제 활동 등이 연계되어 있다. 즉 한국어 교재가 일반적으로 제시문, 문법 및 어휘의 제시, 연습 및 과제 활동으로 한 단원이 구성되는 데 반해, <Themen aktuell>의 경우에는 제시문, 문법 및 어휘의 제시, 연습 및 과제 활동의 구성이 한 단원 안에서 4~5차례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원의 주제가 개별 주제로 심화 또는 확장되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언어의 명시적 제시와 언어 관계 관한 정보 제공이 주로 어휘 및 표현의 제시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Themen aktuell>에서는 언어의 명시적 제시가 다음의 예와 같이 문법의 제시 및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활동 과제

---

46) 이들의 영역별 분포는 주로 문법 영역(문법 항목의 제시 및 문형 연습)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분포 내용은 뒤에 첨부된 부록 ‘서울대 한국어 3 언어 목록 및 항목별 분석 자료’를 참고 할 것.



등 각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47)</sup>

아래의 <그림 2>에서는 단원의 문법 항목(현재 완료 시제)의 문형을 ‘...hat gerade...’와 같이 제시하고, 단원의 주제 ‘일상생활(Alltag)’과 관련된 어휘들을 박스 안에 제시하여 문형 연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박스 안에 있는 어휘들 중에 술어가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 모두 <목적어+술어>의 언어 결합 형태로 제시 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Sonnenbad nehmen’(일광욕을 하다)과 같이 연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2> 단원의 문법 제시와 연계된 언어의 명시적 제시 및 활용의 예  
(Themen 1, 본교재 7과(82쪽)-과제 1)

**1. Was meinen Sie? Was haben die Personen gerade gemacht?**

Nr. ...	hat	gerade ...
	ist	

geschlafen Essen gekocht  
 ein Sonnenbad genommen geheiratet  
 gefallen einen Brief geschrieben  
 in der Sauna gewesen  
 eine Flasche Schnaps getrunken  
 geschwommen  
 nach Hause gekommen

<그림 3>은 <그림 2>의 문형 연습에 이어 현재 완료 시제를 활용한 듣기 과제이다. 과제의 내용은 학습자들이 듣기 지문을 듣고 그림의 인물들이 월요일에 무엇을 했는지 현재 완료형으로 말해보는 것이다. 듣기 후 과제를 위해, 박스 안에 역시 일상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어휘 표현들이 ‘Besuch haben’(손


47) <Themen aktuell>에서는 한국어 교재와는 달리 단원 전체의 중요 어휘 및 표현, 문법 항목과 예문을 연습 교재(Arbeitsbuch)의 각 단원 첫 두 페이지에 독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휘는 우선 품사별로 개별 어휘로 제시되고, 단원의 기능(설득하기, 의사 표현하기 등)과 관련된 중요 표현(Redemittel)은 다시 구나 문장 단위로 제시되고 있다.

님이 오다), 'Fußball spielen'(축구를 하다), 'Ausflug machen'(소풍을 가다), 'zu Hause (geblieben)''(집에 있었다)와 같이 대부분 연어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3> 듣기 과제와 연계된 연어의 명시적 제시의 예  
(Themen 1, 본교재 7과(82쪽)-과제 2)

**2. Montagmorgen im Büro**

a) Was glauben Sie: Was haben die Leute am Wochenende gemacht?



Besuch gehabt im Garten gearbeitet eine Küche gekauft einkaufen gegangen tanzen gegangen  
Geburtstag gefeiert ein Tennisspiel gesehen das Auto gewaschen einen Ausflug gemacht  
im Theater gewesen zu Hause geblieben Fußball gespielt für eine Prüfung gelernt

b) Hören Sie zu. Was haben die Leute wirklich gemacht?

c) Überlegen Sie: Was haben die Leute vielleicht außerdem gemacht?

gekocht	genommen	ist	gekommen	Frau Bärlein	hat	...
gekauft	gesehen		geblieben	Herr Kretschmar	ist	
gearbeitet	geschrieben		gefallen	Tina		
gehabt	geschlafen		gegangen	Herr Weiher		
...	gewaschen		geschwommen			
	...		gewesen			


<그림 4>는 <그림 2>, <그림 3>과 같은 단원의 말하기 과제이다. 내용은 가족 간의 대화 모형을 활용해, 학습자들이 앞에서 배운 문법 표현을 활용하여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수행하는 일들을 묻고 대답하는 활동이다. 예문과 박스 안에 9개의 연어 표현<sup>48)</sup>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활용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어휘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48) Hände waschen, Zähne putzen, Schularbeiten machen, Licht ausmachen, Schuhe putzen, Blumen gießen, Waschmaschine abstellen.


<그림 4> 말하기 과제와 연계된 연어의 명시적 제시의 예  
(Themen 1, 본교재 7과(85쪽)-과제 7)

**7. Kennen Sie das auch?**

Habt ihr eure Hände gewaschen?  
 Habt ihr die Zähne geputzt?  
 Habt ihr eure Milch getrunken?  
 Habt ihr euer Brot gegessen?  
 Habt ihr eure Schularbeiten gemacht?  
 Habt ihr eure Zimmer aufgeräumt?



Was fragen die Kinder und der Vater?



Keller aufräumen	Kuchen backen
Licht in der Garage ausmachen	Pullover waschen
Lehrerin anrufen	Gemüsesuppe kochen
Bad putzen	Heizung anstellen
Blumen gießen	Schuhe putzen
Cola mitbringen	Katze füttern
Waschmaschine abstellen	Schulhefte kaufen
	Knopf annähen

다음의 <그림 5>는 읽기 과제와 연계하여 본문에 포함된 연어 및 관용어들의 은유적 의미를 학습하는 연습 과제를 제시한 예이다. <그림 5>에 제시된 연습 과제의 내용은 (40), (41)과 같다. (41)의 <과제 16>은, 왼쪽 편에 <그림 5>의 읽기 본문에서 연어 표현을 포함한 문장을 뽑아 연어를 이탤릭체로 표시하여 1~7까지 제시하고<sup>49)</sup>, 오른쪽에 연어 및 관용어 표현의 뜻을 a)~g)까지 순서를 달리하여 제시한 후 맞는 것끼리 짝을 짓는 어휘 연습 과제이다. 이를 통해 연어의 의미와 함께 문장 안에서의 쓰임 및 패턴 정보까지를 함께 알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9) 과제 16에 이탤릭체로 제시된 연어 표현의 직역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findet ihre Erfüllung(성취를 발견하다→가장 좋아하다), in der Beziehung läuft (관계 안에서 달리다→관계가 원만하다), ein wohlhütendes Kind sein(잘 지켜진 아이이다→보호받다), jdm. den Rücken frei halten(~에게 등을 열어 놓다→아무것도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 zieht den Kürzeren(짧은 것을 뽑다→지다), von jdm. hingerissen(~에게 넋을 잃다→매혹당하다).





auch <i>in der Beziehung</i> .	kümmern
3. Die beiden <i>führen</i> eine extreme <i>Beziehung</i> .	d) Das schönste ist für sie...
4. Peggy war ein <i>wohltütendes</i> Kind.	e) geht...gut
5. Meine Eltern <i>halten</i> mir <i>den Rücken frei</i> .	f) beschützt
6. Thomas <i>zieht</i> beim schwimmen <i>den Kürzeren</i> .	g) begeistert
7. Peggy war von Thomas sofort <i>hingerissen</i> .	

<그림6> 쓰기 과제와 연계된 언어의 명시적 제시 및 활용의 예  
(Themen , 본교재 4과(47쪽)- 과제 16)

**11. Party**  
**A** Überlegen Sie sich einen Anlass für eine Party, z. B. Geburtstag oder Kursende. Planen Sie in kleinen Gruppen und machen Sie Notizen.

*Raum und Zeit*  
Wen laden Sie ein? Maximal wie viele Personen? Wo wird gefeiert?  
Wann findet die Party statt? Wann kommen die Gäste? Für wann ist das Ende geplant?  
*Programm*: Was tun die Gäste?

diskutieren sich unterhalten	eine Rede halten Gedichte aufsagen	Lieder singen Musik hören	lesen tanzen
---------------------------------	---------------------------------------	------------------------------	-----------------

*Speisen und Getränke*  
Was bieten Sie zu diesem Anlass an?  
Essen: Sachen, die man ohne Besteck essen kann, zum Beispiel Erdnüsse. Dann habe ich hinterher nicht so viel Arbeit.  
Brote mit ...; Salate;  
ohne Besteck essbare Sachen;  
Salziges, z. B. ...; Süßes, z. B. ...;  
Spezialitäten meiner Heimat / Familie;  
vegetarische Gerichte; warme Speisen  
Getränke:  
Kaffee und Tee; kalte Getränke;  
nicht alkoholische Getränke, z. B.  
Mineralwasser und Saft;  
alkoholische Getränke; warme Getränke

*Vorbereitung*

eine Tanzfläche frei machen Einladungen schreiben	Gäste telefonisch einladen für Musik sorgen	Essen und Getränke besorgen Raum dekorieren	Tisch decken
--	--	--	--------------

Ungefähr ... Tage / Stunden vorher ...  
Wir laden ungefähr zwanzig Personen ein.  
Die Party beginnt um ...

**B** Präsentieren Sie Ihre Partypläne:

<그림 6>은 단원의 주제 ‘일상생활(tägliches Leben)’과 관련하여 생일이나 중강 파티 등을 주제로 하여 그룹으로 계획을 짜고, 파티 계획표를 작성하는 과제이다. 역시 박스 안에 파티와 관련된 표현들을 어휘의 결합 관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eine Rede halten(축사를 하다)’, ‘Gedichte aufsagen(시를 낭송하다)’, ‘Einladung schreiben(초대장을 쓰다)’, ‘Tisch decken(상을 차리다)’와 같이 다양한 연어 표현들을 제시하여 덩어리말의 학습과 활용을 통한 어휘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Themen 3에는 모두 306개의 연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긴밀한 결합 관계의 구성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는 모두 84개(121회)였으며, 유형에 관한 패턴 정보(52개, 81회)나 의미 관계에 관한 정보(21개, 29회)가 제공된 경우는 모두 73개(110회)였다. 5회 이상의 고빈도로 쓰인 연어는 다음과 같다.

- (42) ‘ins Bett gehen’(5회), ‘auf die Nerven gehen’(5회), ‘die Schuhe anziehen’(10회), ‘schlechte/gute Laune haben’(6회), ‘Sport treiben’(6회), ‘es gibt’(20회), ‘zu Hause’(18회)<sup>50)</sup>, ‘ab und zu’(6회), ‘tut mir leid’(9회), ‘vor allem’(5회), ‘zum Beispiel’(15회)

이중 ‘es gibt’, ‘tut mir leid’(9회), ‘zum Beispiel’, ‘ab und zu’, ‘vor allem’은 고정구(fixed phrase) 또는 고정 표현(fixed expression)<sup>51)</sup>으로서의 특성상 연어 학습과 관계없이 문장 안에서 반복되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다. 나머지 연어들도 제시 영역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 연어 학습을 위해서보다는 단원의 주제 또는 기능과 관련되어 제시된 경우가 많아<sup>52)</sup>, <Themen aktuell>의 경우에도 한국어

50) zu는 영어의 to와 같이 ‘~로’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로서 여기서는 ‘Hause’와 결합하여 ‘집에’라는 뜻을 나타낸다. ‘zu Hause’는 전치사+명사의 구성으로 독일어에 있어 일반적인 연어의 구성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독일어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in과 함께 쓰이는데 반해 ‘zu Hause’가 ‘집에’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긴밀한 결합관계로 쓰인다는 점에서 연어로 분류될 수 있다. 구명철(2006: 120)에서도 ‘zu Hause’를 ‘blinder Passagier’(눈먼 승객-무임 승객)와 같은 유형의 연어로 분류하고 있다.

51) Lewis(2006: 132)에서도 고정구(fixed phrase, 예: ‘on the other hand’)와 고정 표현(fixed expression, 예: Not half!; semi-fixed expression, 예: see you later)을 연어에 포함시키고 있다.

52) 이에 관한 자세한 분포 내용은 뒤에 첨부된 부록 ‘<Themen aktuell> 연어 목록 및 항목별 분석 자료’

교재의 경우와 같이 연어의 철저한 학습을 위한 반복 제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aF Wortschatz>는 어휘 부교재라는 성격상 어휘의 연습·활용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교재들과 같이 제시 영역에 따른 분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교재의 구성에 따른 언어 제시의 양상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교재는 크게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기본편(1장-9장)은 동사, 명사, 관사, 전치사, 문장 등 9개의 문법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재의 서문에 따르면 이는 학습자들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 분야별로 반복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기본편, 1. 동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어휘 활용 연습 과제를 통해 동사를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43) a. 문장의 내용과 문맥에 따라 알맞은 동사 고르기
- b. 동사의 격변화, 시제 활용, 능동·수동, 가정법 등 동사의 문법 활용 연습
- c. 사물과 관련 있는 동사 연결하기 (예: Hammer(망치)-Nagel einschlagen(못을 박다))
- d. 동사를 수식구로 전환하기

심화편(10-16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어휘의 활용 연습 및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44) a. 10장. 동사(zum Verb)
- b. 11장. 합성어(Wortzusammensetzung)
- c. 12장. 품사의 전성(von einer Klasse in die anderen)
- d. 13장. 유의어·반의어(Synonyme und Antonyme)
- e. 14장. 상위어(Oberbegriffe)
- f. 15장. 표현과 관용어(Ausdrücke und Wendungen)
- g. 16장. 주제별 어휘(Themengebiet)

---

를 참고할 것.

이 중 ‘10장. 동사의 심화 학습’, ‘11장. 합성어’, ‘15장. 표현과 관용어’, ‘16장. 주제별 어휘’는 언어 학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0장에서는 다양한 기능 동사구에 대한 활용 연습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기능 동사구란 “동사의 원래 의미는 동작 명사(Nomen actions)가 갖고, 동사라는 문법적인 특성은 기능동사가 갖는 확장 형태(Streckform)”<sup>53)</sup>로서, 독일어에는 일반 동사를 명사화하여 특정한 기능 동사와 결합 관계를 이루는 기능 동사구가 특히 발달되어 있다.<sup>54)</sup> 10장의 내용은 거의 기능 동사구의 연습 활용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45) 동작 명사(언어핵)에 알맞은 기능동사(언어소) 채워 넣기

in Kraft *treten*

(Kraft: 힘, 효력, treten: 밟다 → Kraft treten: 효력이 발생하다)

(46) 동사를 동작 명사로 바꾸어 기능 동사구 만들기

sprechen → *ein Gespräch führen*

(sprechen: 말하다, Gespräch: 대화, führen: 이끌다

→ Gespräch führen: 대화하다)

(47) 동작 명사를 제시하고 결합 관계에 있는 기능 동사를 채워 넣어 문장 완성하기

53) 구명철(2005: 2). 기능 동사구에 관해서는 이를 언어와 별개의 범주로 보는 시각(Fleischer, 1997: 253)도 있으나, 기능 동사가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문법화 되어 쓰인다는 점과 동작 명사가 특정한 동사만을 기능 동사로 요구하는 선택어-피선택어의 관계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언어의 한 범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독일어에 있어 기능 동사구를 언어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관해서는 Hausmann.(2003: 317)과 구명철(2005: 8-15)을 참조할 것.

54) 독일어 기능 동사구의 예를 들자면 Bezug nehmen(관계를 맺다), in Zweifel ziehen(의심하다), Einfluss üben(영향을 미치다), Anklage erheben(기소하다), Anwendung finden(적용하다), in Bewegung kommen(움직이다), zum Ausdruck bringen(표현하다), Eindruck machen(~인상을 주다)와 같은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auf etw.) Bezug nehmen’에서 nehmen은 원래의 의미인 ‘받아들이다’가 아니라 ‘(관계-Bezug-를) 맺다, 형성하다’의 의미로 실현되며, 이와 같이 타동사구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목적어 앞에 연결되는 전치사(이 경우 ‘auf’)도 특정한 전치사만 선택되는 피선택성을 보인다.



Unterricht → Unterricht erteilen

(Unterricht: 수업, erteilen: 수여하다, 주다

→ Unterricht erteilen: 수업을 하다)

- (48) 가장 높은 빈도로 쓰이는 기능 동사 ‘tun’(하다)과 ‘machen’(만들다)이 포함된 기능 동사구들을 모아 ‘tun’(하다)과 ‘machen’(만들다) 중 어느 것이 결합되는지 학습하기

Könnten Sie mir einen Gefallen tun?

Er will ihr einen Antrag machen.

(Gefallen: 친절, tun: 하다 → Gefallen tun: 친절을 배풀다, 도와주다)

(Antrag: 제안, 신청, machen: 만들다 → Antrag machen: 제안하다)

‘11장. 합성어’(Wortzusammensetzung)에서는 2개 이상의 낱말이 모여서 만들어진 합성어 중 구성 요소의 의미가 전이된 결합 관계에 대한 활용 및 확장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15장은 주로 신체 부위 관련 연어 및 관용어의 활용 및 확장을 위한 연습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활용 연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49) 관용 표현의 실제 의미 고르기

Ein Mann, ein Wort.(한 남자, 낱말 하나)

Es bedeutet, dass...(이것이 뜻하는 바는...)

1. ich mich auf einen Mann 100-prozentig verlassen kann

(내가 100% 믿을 수 있는 남자이다)

2. ein Mann nur ein Wort sagen soll(남자는 한 마디만 해야 한다)

3. Männer nicht so viel Vokabulare haben(남자들은 어휘력이 풍부하지 못하다)

(50) 관용 표현 채워 넣기

Ich lege meine Hand für ihn\_\_\_\_\_.

1. ins feuer 2. in den Ofen 3. in den Schloß

(Hand für jmd. ins feuer legen: ~를 위해 불에 손을 넣다 → 전적으로 신뢰하다)

(51) 첩어 형태의 언어 채워 넣기

klipp und *klar* / ab und *zu*

(klipp und klar: 분명한, ab und zu: 가끔)

(52) 신체 관련 관용표현과 동일한 의미의 대응 표현 짝 짓기

Er hat die Schnauze voll. ----- Er will nicht mehr machen.

(Schnauze voll haben: 코가 가득 차다 →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53) 신체 관련 관용표현에서 틀린 단어 찾아 고치기

Ich drücke dir den *Mund*(→ Daumen)

(jdm. Daumen drücken: ~에게 엄지 손가락을 누르다 → 건투를 빌다)

‘16장. 주제별 어휘’에서는 나라, 동식물, 색, 숫자 등 의미 자질에 따른 어휘 확장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식물과 관련된 관용적 표현 및 색깔 이름과 관련된 언어 표현 등을 모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DaF Wortschatz에 제시된 언어는 모두 총 353개인데, 이 중 260개에 관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합 관계의 학습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연습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제3절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한국어 교재와 독일어 교재에서 연어에 관한 명시적 제시 및 연어의 활용 및 확장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양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7> 각 교재의 연어 정보 제공 양상

교재명	한국어 교재		독일어 교재	
	말이 트이는 한국어 3 (이대)	한국어 3 (서울대)	Themen aktuell 3	DaF Wortschatz
총 제시 연어	139개	85개	208개	334개
명시적 제시가 이루어진 연어	약 58개(62회)	23개(57회)	84개(121회)	약 260개
패턴 및 의미관 계 정보 제공	18개(22회)	26개(47회)	73개(110회)	약 260개

## 제4절 학습한 연어의 활용 및 확장을 위한 연습 과제의 제시 비교

제4절에서는 제시된 연어들의 활용 및 확장을 위해 연습 과제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각 교재의 3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의 연습 교재(Workbook)는 <문법 및 구조>, <어휘>, <확장 표현>, <읽기>의 4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주로 <어휘> 부문에서 모두 21개의 연어에 관해 활용 연습이 이루어고 있다. 이 연어들은 모두 본교재(Student Book)에 한 번 이상 제시되었던 연어들로, 본교재(Student Book)의 제시문이나 어휘·표현의 제시 부문에서 제시되었던 연어에 관한 확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활용 연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연어핵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구별하는 유형이 주를 이루었다.<sup>55)</sup>

(54) 이대 교재 활용 연습의 예(연습 교재(Workbook) 3, 7쪽):

II. 다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쓰십시오.  
마음에 들다/마음이 맞다/마음을 먹다/마음을 비우다/마음에 두다/마음이 넓다  
1. 수진은 알뜰해서 물건이 아무리 싸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않습니다.

(55) 이대 교재 활용 연습의 예(연습 교재(Workbook) 3, 164쪽):

III. \_\_\_\_\_친 부분이 관계 없는 것을 하나 고르시오.  
2. (가) 손이 가다 (나) 손이 없는 날 (다) 손에 익다 (라) 손을 끊다

서울대 <한국어3>의 연습 교재(Practice Book)는 주로 문형 연습 위주로 구성되어, 전권에 걸쳐 연어에 관한 의도적인 활용 연습은 신체 부위 관용어를 모아 문맥에 맞게 활용하여 대화문을 완성하는 다음의 과제뿐이었다.<sup>55)</sup>

(56) 서울대 교재 활용 연습의 예(연습 교재(Practice Book) 3, 189쪽):

• 친구와 함께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눈이 높다/발이 넓다 손이 크다/손발이 맞다/귀가 가렵다  
1. 가: 우리 형은 어디에 가나 아는 사람이 많아요.  
나: \_\_\_\_\_.

<Themen aktuell> 3 연습교재는 한 단원이 약 20개 내외의 과제로 구성되어, 단원의 내용과 관련된 말하기, 문법, 어휘 활용 및 확장에 관한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특히 어휘 및 표현에 관한 연습 과제는 낱말 간의 결합관계에 관한 연습 과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어에 관한 연습 과제의 주된 유형은 다

55) 여기 제시된 두 개의 연습 과제에 21개 중 10개의 연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사실상 연어에 관한 본격적인 연습 과제는 위의 두 과제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56) 이들 신체 부위 관용어는 한국어 3의 Student Book 194쪽에서 그림과 예문을 들어 따로 제시한 것이다.

음과 같다.

(57) 연어의 은유적 의미 풀어서 말하기(Themen aktuell, 연습 교재 44쪽):

8. 다음 문장을 박스 안의 표현 중 하나를 이용하여 다르게 말해 보시오.((a)-(l))  
- 박스 안의 해당 표현: populär werden  
(a) Die Fitness- und Wellnesswelle ist in Deutschland immer stärker im Kommen.  
→ Die Fitness- und Wellnesswelle wird in Deutschland immer stärker populär  
(populär werden: 대중적이 되다, Kommen: 오다 → im Kommen sein: 대중적이다)

(58) 문맥에 알맞은 언어 골라 문장 완성하기(Themen aktuell, 연습 교재 41쪽)

4. 맞는 표현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 den Mut haben, fit bleiben, ganz gefüllt sein... (8개 표현 제시)  
(f) Man muss sich fit halten.

(59) 같은 동사를 구성 요소로 갖는 언어 학습하기(Themen aktuell, 연습 교재 76-77쪽)

15. 알맞은 동사를 채워 넣으시오.  
- stehen, erhalten, verlieren... (18개 동사 제시)  
(r) verlieren: den Schlüssel~/ein Spiel~/Geld~/die Haare~  
(‘verlieren’의 원래 뜻은 ‘잃어버리다’로, ‘den Schlüssel/Geld~’(열쇠를/돈을 잃어버리다)은 본래의 뜻으로 쓰인 경우이며, ‘ein Spiel~’(게임에 지다), ‘die Haare~’(머리가 빠지다)는 의미가 전이된 언어 결합관계)

다음 <그림 7>의 예에서는 단원의 주제(여가 생활과 운동)와 관련된 언어 표현들(‘Rad


fahren, Picnic machen, Tennis spielen, Ski fahren' 등)을 그림을 통해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어휘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7> 단원 주제와 연계된 언어의 확장을 위한 연습 과제의 예  
(Themen aktuell 연습 교재 3과(39쪽)-과제1)


**1. Wo passen die Verben?**


angeln	Rad fahren	Golf spielen	wandern	surfen	Schach spielen	malen
lesen	Billard spielen	tanzen	laufen/joggen	nähen	reiten	feiern
schwimmen	im Garten arbeiten	Picknick machen	Ski fahren	Fußball spielen		
fotografieren	Karten spielen	Camping machen	segeln	fernsehen	Tennis spielen	


  

a)  \_\_\_\_\_


b)  \_\_\_\_\_


c)  \_\_\_\_\_


d)  \_\_\_\_\_


e)  \_\_\_\_\_


  

f)  \_\_\_\_\_


g)  \_\_\_\_\_


h)  \_\_\_\_\_


i)  \_\_\_\_\_


j)  \_\_\_\_\_


  

k)  \_\_\_\_\_


l)  \_\_\_\_\_


m)  \_\_\_\_\_


n)  \_\_\_\_\_


o)  \_\_\_\_\_


  

p)  \_\_\_\_\_


q)  \_\_\_\_\_


r)  \_\_\_\_\_


s)  \_\_\_\_\_


t)  \_\_\_\_\_


  

u)  \_\_\_\_\_

v)  \_\_\_\_\_

w)  \_\_\_\_\_

x)  \_\_\_\_\_

y)  \_\_\_\_\_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각 교재의 연습 과제 도입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 18>과 같다.

<표 18> 각 교재의 연습 과제 도입 비율

	말이 트이는 한국어 3 (이대)	한국어 3 (서울대)	Themen aktuell 3
총 제시언어	139개	85개	208개
활용 연습이 이루어 진 언어의 수(비율)	21개(15%)	5개(6%)	83개(40%)

## 제5절 결과 분석 및 제안

### 1. 결과 분석

한국어 교재와 독일어 교재에 있어 언어 선정의 적절성 및 언어 제시의 적절성에 관한 3장의 비교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어 학습용 어휘’의 반영 여부를 두고 볼 때 서울대 교재는 1개의 언어만을 제외한 모든 언어들이 ‘한국어 학습용 어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서울대 교재의 언어 제시량은 비록 적지만, 반영된 언어는 기초 어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 교재의 경우에는 139개 중 33개(23.7%)의 언어가 학습용 기초 어휘에 속하지 않는 낱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한편, <Themen aktuell>의 경우 208개 중 47개(22.6%)의 언어가, DaF Wortschatz의 경우 353개의 언어 중 65개(18.4%)가 ‘한국어 학습용 어휘’에 속하지 않는 낱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는 서울대 교재보다는 높은 비율이지만, 이화여대 교재보다는 낮은 비율로, 특히 ‘독일어 학습용 기초 어휘’의 규모(2,075개)와 ‘한국어 학습용 어휘’(5,965개)의 규모를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양상을 두고 볼 때 이화여대 교재의 경우 연어로 제시된 연어 중 다수가 기초 어휘에 속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화여대의 교재에서 ‘한국어 학습용 어휘’에 속하지 않는 연어들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로 ‘귀양, 면허증, 엄벌, 지수, 본분, 열량, 정의, 견문, 경사, 공(功), 본의, 사활, 시비, 안도, 타산’ 등 한자어와 관련된 연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반해 ‘넥타이를 매다’, ‘테니스를 치다’, ‘비디오를 찍다’, ‘택시를 잡다’, ‘바이올린을 켜다’, ‘스트레스를 받다’ 등과 같이 외래어를 바탕으로 하는 연어들과 ‘한국어 학습용 어휘’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들 외래어는 대부분 ‘한국어 학습용 어휘’에 반영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의 선정 과정에서 한자어에 관한 비중이 고유어나 외래어보다 낮게 취급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57)</sup> 이는, 전문 용어 분야에서 한자어 관련 연어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과, 최근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히 중·고급을 위한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의 한자어 반영에 관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단계별 학습량에 관한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어 교재의 단계별 연어 제시량의 차이가 독일어 교재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sup>58)</sup> 한국어 교재 중에도 서울대와 이화여대 교재 사이에 편차가 컸다. 특히 한국어 교재의 경우 각 교재의 1권에는 극히 적은 연어가 제시되고 2권에서는 5~6배의 연어가 제시되고 있음에 비해, 독일어 교재에서는 1권의 연어 수가 115개로, 2권에 새로 제시된 107개보다 오히려 많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현용(2000: 143-149)에 따르면, 하루 수업에 적당한 새 어휘 수에 관한 학습자 요구 조사의 결과, 고급 학습자가 초급 학습자에 비해 더 많은 어휘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고급 단계와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어

57)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2003: 12)에 따르면 기본 어휘 중 한자어, 고유어 및 외래어의 비중은 한자어가 2,474개, 고유어가 2,395개, 외래어가 249개로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의 순서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어 어휘에서 한자어와 고유어, 외래어의 비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대 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58) 각 교재별 연어의 단계별 제시량에 관해서는 71쪽 <표 13> 참조.



휘 학습량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9)</sup> 이러한 학습자 요구 분석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한국어 교재에 있어 초급에는 너무 적은 연어가 제시되고, 중·고급에 연어의 제시가 집중되어 있는 점은 시정해서 급별로 어휘의 난이도와 단원의 주제를 고려하여 일정한 수의 연어가 제시되도록 안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재와 독일어 교재를 비교할 때, 한국어 교재의 단계별 언어 학습량이 훨씬 적어, 한국어 교재 전반에 있어 교재를 통한 풍부한 연어의 제시와 언어 학습에 대한 고려가 시급함을 드러내고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한국어와 독일어 각 교재에 있어 언어 제시 양상에 관한 결과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9> 각 교재의 언어 제시 양상

교재명	한국어 교재		독일어 교재	
	말이 트이는 한국어 3 (이대)	한국어 3 (서울대)	Themen aktuell 3	DaF Wortschatz
총 제시 언어 (빈도)	139개(330회)	85개(323회)	208개(418회)	334개
명시적 제시가 이루어진 언어	약 58개(62회)	23개(57회)	84개(121회)	약 260개
패턴 및 의미관계 정보 제공	18개(22회)	26개(47회)	73개(110회)	약 260개
연습과제	21개	5개	83개	약 260개
언어 학습을 위한 도입(빈도)	21개	5개	83개	약 260개
언어 학습을 위한 도입(비율)	15.1%	5.9%	39.9%	약 77.8%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교재의 경우 이화여대 교재와 서울대 교재 간

59) 조현용(2000: 143-149)에 따르면 하루 수업에 적당한 새 어휘 수에 관한 학습자의 요구는 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5개 이하: 2%, 6-10개: 23%, 11-15개: 36%, 16-20개: 21%, 21개 이상: 18%.

에 차이는 있지만 단원의 주제와 관련되어 제시문의 어휘로 도입된 연어들이 적절한 연어 정보 제공 및 연습 과제와의 연계 과정을 거쳐 어휘 학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시문의 어휘가 어휘 제시 영역에서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비율은 비교적 높지만, 연어 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쳐 연습 과제의 제공 단계까지 가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연어 학습의 측면에서 한국어 교재에 가장 부족한 면은 단원에 제시된 연어를 학습자가 철저히 학습하고 이해나 표현 어휘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연습·활용 과제와 연계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에 비해 독일어 교재의 경우 DaF Wortschatz는 어휘 부교재라는 성격상 일대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Themen aktuell>의 경우에도 정보 제공 및 연습 활용 단계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한국어 교재보다 훨씬 높아서 결합 관계로서의 어휘 학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시문의 연어에 한정되지 않고, 의미 관계나 패턴, 단원 주제와의 연관성하에 새로운 연어를 제시함으로써 연어의 확장을 시도하는 점과 다양한 형태의 연습 활동을 연계시키고 있는 점은 한국어 교재의 연어 제시 방안을 위해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어 교재의 연어 제시 양상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연어 학습을 위해 도입된 연어들이 ‘손, 발, 귀’ 등 신체 부위 관용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 교재가 편찬될 때 관용어의 제시·학습에 대한 고려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긴밀한 결합관계로 쓰이는 어휘의 학습에 대한 인식은 전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담배를 피우다’, ‘배가 고프다’와 같이 일부 연어가 단원 주제와도 관계없이 문형 연습을 위해 습관적으로 자주 도입되는 점은 시정해야 할 사항이다.

## 2. 한국어 교재의 연어 제시 방안

한국어 교재와 독일어 교재의 연어 제시 양상에 관한 비교 분석 결과 및 연어에 관해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어 목록 선정과 한국어 교재에서의 연어 제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그에 관한 원칙과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가. 연어 목록 선정에 관한 제언

효과적인 연어 제시 방안의 논의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시할 연어를 선정하는 일이다. 한국어 교재를 위한 연어 목록의 선정은 문금현(2002)과 박숙영(2005)에서 시도된 바 있으나, 실제 한국어 교재의 개발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문금현(2002)의 목록은 실제 구어 자료와 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인의 사용 빈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급별로 연어 목록을 선정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선정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고, 박숙영(2005)에서 선정한 연어 목록은 기존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연어들을 바탕으로 하여 선정되었으므로 교재 개발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sup>60)</sup>

연어 학습을 고려한 교재의 개발을 위해서는 문금현(2002)에서와 같이 실제 한국인의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분석 작업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말뭉치의 규모가 한국인의 실제 언어생활을 잘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 달해야 하며 연어의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어 학습을 위한 연어 목록

---

60) 서상규 외(1998)에서는 한국어 기본 어휘 목록을 선정하고, 선정된 목록과 한국어 교재 8종 어휘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는데, 고빈도 어휘의 일치율은 불과 19.29%였다. 서상규 외(1998: 92)에서는 그 원인에 관하여 선정된 기초 어휘 후보군이 일반적인 한국어 화자들의 말뭉치를 반영한 것으로, 그 사용 환경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환경과 다를 수도 있지만, 대상이 된 한국어 교재의 어휘 구성이 불합리 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한국어 교육기관인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들의 교재가 비교적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검증을 거쳐 온 것은 사실이지만, 어휘를 문법과 같은 독립된 교수 영역의 대상으로 보고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어 교재의 어휘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일반적인 한국인의 언어생활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의 연어 제시를 위한 연어 목록은 기존 한국어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안 될 것이다.

록 선정을 위해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어 학습용 어휘’는 그 빈도 순위에 따라 A(982개), B(2,111개), C(2,872개) 등급으로 나뉘어 그 품사 및 빈도에 관한 정보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한국어 연어의 유형은 품사와 관련지어 크게 (60)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60) a. [N+V]: 주술관계-‘배탈이 나다’, ‘맛이 가다’/목적 관계-‘소란을 떨다’, ‘물의를 빚다’  
 b. [Adj.+N]: 수식 관계-‘새빨간 거짓말’  
 c. [Adv.+A]: 수식 관계-‘아득히 멀다’  
 d. [N+속격조사+N]: 수식 관계-‘절망의 구렁텅이’  
 e. [N+N]: 수식 관계- ‘면허 시험’/ 비유적 용법- ‘유령 회사’

이 중 1차적으로 A등급의 어휘 중 각각의 유형에서 선택어가 되는 명사, 형용사, 부사를 중심으로 연어의 목록을 선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연어 목록을 선정할 경우 한국어 학습의 대상으로서의 연어 목록의 범주를 어떻게 정하며, 또 어떻게 급별 연어 목록으로 나눌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어 학습용 어휘’ A등급에 속하는 ‘마음’의 연어 관계를 한국어 연어사전<sup>61)</sup>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다수의 연어가 등장한다.<sup>62)</sup>

61) 한국어 연어사전(2007, 김하수 외)은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말뭉치 용례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기초 어휘의 연어 관계를 추출하여 수록하였으며, 기초 어휘는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재와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 연구 성과물,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현대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서 상위 빈도의 어휘 중복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 대상으로서의 연어 목록을 선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연어사전은 표제어 선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구성 요소 중 연어핵을 중심으로 연어가 등재되어야 하는데 일부 동사는 연어소를 중심으로 그 연어 관계가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개별 어휘는 모국어와 학습 목표어간 일대일 번역이 가능하지만 연어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어 학습자가 ‘결정을 내리다’라는 연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모국어와 일대일 대응이 되는 연어핵 ‘결정’을 중심으로 해당 결합 관계를 찾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 연어사전에는 ‘결정’은 등재되어 있지 않고 동사 ‘내리다’에 ‘결론을~, 결정을~, 판단을~, 평가를~’이 등재되어 있다. 이 경우 학습자가 동사 ‘내리다’를 통해 ‘결정을 내리다’라는 연어 표현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에는 오히려 ‘결정’에 ‘결정을 내리다/결정을 보다/결정을 짓다/결정이 나다/결정에 따르다’의 연어 관계가 등재되어 있다.

(61) 마음:

- a. 마음+동: (마음이) 가다, 가볍다, 급하다, 놓이다, 돌아서다, 맞다, 무겁다, 통하다, 풀리다…  
 (마음을) 가다듬다, 가라앉히다, 놓다, 다잡다, 돌리다, 먹다, 비우다, 삭이다, 열다, 잡다, 줄이다, 주다, 진정하다, 풀다…  
 (마음에) 들다, 남다, 거리끼다, 걸리다…
- b. 관+마음: 가벼운~, 감사하는~, 경건한~, 고마운~, 기쁜~, 너그러운~…

이 중 어디까지를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 대상 연어로 할 것인지, 나아가 교재에 제시할 연어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의 제1장 제2절에서는 이승연·최은지(2007)의 작업에 주목한 바 있다. 이승연·최은지(2007)는 학습자 급별 공통 어휘 명사 목록을 추출하여, 이들 명사가 학습자 말뭉치와 한국어 일반 말뭉치에서 보이는 연어 사용 양상을 기준으로 용언과의 결합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연어 사용 양상을 한국어 모어 화자의 그것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일반말뭉치에서 나타난 ‘마음’에 관한 연어들이다.

<표 20> 이승연·최은지(2007: 312)의 명사 ‘마음’에 관한 학습자 말뭉치와 한국어 일반 말뭉치 연어 사용 비교

		주어-서술어	목적어-서술어
마음	학습자 말뭉치	눅다(초·중·고급), 생기다	가지다(중·고급), 놓다(고급), 먹다(고급)
	세종 말뭉치	착하다, 눅다, 생기다, 들다, 통하다, 끌리다, 무겁다, 가다 등	가지다, 먹다, 열다, 드러내다, 읽다, 잡다, 얻다 등

이러한 조사를 확장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말뭉치 중 출현 빈도가 높은 연

62) 한국어 연어 사전에는 ‘관(형어)+마음’, ‘마음+동(사)’ 유형의 연어가 ‘마음’의 4가지 의미에 따라 제시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엄밀한 의미 구분 없이 ‘마음+동(사)’ 유형의 연어만을 추려서 정리한 것이므로 실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결합 관계가 존재한다.

어 목록만을 뽑아, 그중 중심이 되는 구성 요소가 한국어 교육용 기초 어휘에 해당되는 언어 관계를 추려 한국어 학습 목표 언어 목록을 선정한다면 기존에 제시된 언어 목록들보다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신뢰도 높은 언어 목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교재에 있어 언어의 효과적인 제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으므로 본격적인 언어 목록의 선정은 시도하지 않는다. 다만 앞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에 서는 언어 목록의 선정에 관하여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그 의미의 이해와 표현을 위해 하나의 어근으로 인식해야 하는 두 단어 이상의 결합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언어를 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언어의 구성 유형에 관해서도 기준을 정하여 유형별로 선정해야 한다.<sup>63)</sup>

셋째, ‘유령 회사’, ‘유령 단체’와 같이 언어적 속성을 보이는 명사구나, ‘뽕소니 차’, ‘공부벌레’와 같이 은유적 의미를 가지게 된 합성어도 언어의 범주에 포함시켜 선정한다.

넷째, 선정된 언어를 토대로 주제별 언어 목록을 선정하여 교재 편찬이나 어휘 교수·학습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제별 언어 목록은 급별로 그리고 표현 언어와 이해 언어로 나누어 선정한다.

---

63) 언어의 유형 나누기는 매우 복잡해질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자세한 유형 나누기가 아니라 언어 학습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술관계와 목술 관계를 포함하는 [명사+ 동사], 수식 관계의 [관형어+ 명사], [부사어+ 명사] 그리고 [명사+ 명사]의 결합 관계 정도로 나누는 것이 적당할 듯하다. 앞에서 언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소개하는 가운데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에 있어 언어 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두드러진 점은 언어의 형태와 유형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한국어 학습자연어사전에서도 이미 유형별로 언어를 등재하고 있다. 언어의 형태와 유형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언어 교육의 필수 조건으로 보는 Siepmann(2004), Reder(2006) 그리고 독일어·영어 학습자 언어 사전(Student's dictionary of collocations, 1999)의 견해에 관해서는 제2장 제4절 언어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참조할 것.

## 나. 연어 제시 방안에 관한 제언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고려할 때 교재에서 연어를 제시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은 다음 6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교재에서 연어의 제시는 연어 학습을 목적으로 계획적·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재의 경우 우선 일정한 의사소통 기능이 단원 학습 목표로 설정되고, 그 기능에 필요한 문법 표현의 효과적인 제시를 위해 만들어지거나 선정된 제시문 안에서 연어가 우연히 도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 나온 어휘의 학습 차원에서 연어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있으나 연어 관계에 관한 정보 제공과 연습·활용 및 확장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일부 관용어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었다. 이는 어휘가 다른 학습 영역의 부차적인 도구로 취급된 결과이다.<sup>64)</sup>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어는 언어 능력의 가장 효과적인 확장 수단이다. 따라서 연어 학습은 반드시 독립적인 학습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바, 이는 완전한 습득에 이르도록 ‘연어의 제시 - 연어 정보 제공<sup>65)</sup> - 활용 연습’의 3단계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연어의 제시 방안은 통합식 교재와 어휘 교재를 구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어휘의 학습은 유의미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의사소통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통합식 교재에서는 단원의 주제, 의사소통 기능의 맥락과 연계하여 연어를 선정하고 그에 관한 제시 및 학습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어휘 교재의 경우는 어휘의 활용 연습과 심화, 확장을 주된 목표로 하여 편찬되므로 연어의 선정이나 제시에 있어 통합식 교재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분야별 부교재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최근 높

64) 조현용(2000: 154)에서는 어휘 중심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휘를 다른 영역 학습의 중심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65) 연어의 경우 일반적인 어휘와는 달리 발음, 형태, 의미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언어핵+언어소의 결합 관계와 연어의 유형 그리고 문맥 안에서의 화용에 관한 정보 등 언어 정보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아지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어휘 부교재가 편찬되어 나온 것은 없다. 그러나 어휘 교재의 편찬을 전제로 하여 생각해 보면, 통합식 교재가 아닌 어휘 교재에서 연어를 다루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다. 첫째는 <DaF Wortschatz>에서와 같이 어휘교재 안에서 적절한 분야와 연계하여 연어의 활용 연습 및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연어 학습만을 위한 연어 교재를 만드는 방법이다. 오미정(2004: 158)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어휘 교재가 어휘의 특성에 따라 난이도별, 어종별, 품사별, 분야별로 다양하게 편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어휘 교재의 한 가지 유형으로 연어 학습 교재를 편찬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될 것이다. 이 경우 첫 번째 방법보다 더 풍부한 연어를 다룰 수 있으므로, 주제나 분야 또는 유형, 의미 관계 등 다양한 분류를 통해 연어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합식 교재이든 어휘 교재이든 교재에서 연어를 제시할 때는 표현 연어와 이해 연어를 구별하여, 표현 연어의 경우 초급에서부터 활용 정보의 제공과 활용 연습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해 연어의 경우에는 초·중급에서는 그 의미의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고, 유창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고급 단계에서 선별적으로 활용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연어의 제시는 철저한 학습을 위해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가 연어임을 알고 학습하는 것이 연어 학습의 출발점이라는 견해<sup>66)</sup>에 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거니와, 어휘부에서의 언어 지식 습득 과정은 음운 부문이나 문법 부문의 습득과는 달리 의도적·의식적·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김광해, 1993: 21 참조), 이를 위해서는 교재에서의 명시적·반복적 제시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연어의 은유적 의미를 이해하고 문맥 안에서의 쓰임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요소와의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제시해야 한다. 특히 관용어는 많은 경우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문화

---

66) Siepmann(2004), Reder(2006), 독·영 학습자영어사전(1999).



적인 배경이 함께 제시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여섯째,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그리고 의미장에 따라 연관되는 언어들을 함께 제시하여 어휘 확장과 함께 관련 항목들의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서울대 교재와 이화여대의 교재에서 신체 관련 관용어들이 함께 제시된 경우나 독일어 교재에서 단원의 주제로 제시된 운동과 여가 생활이나 신체 또는 동물, 색깔 등에 관한 언어들을 묶어 함께 제시한 예들은 모두 의미장에 따른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효과적인 학습 및 확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의미관계를 활용한 제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다. 언어 제시 방안의 예

다음으로는 실제적으로 이상의 원칙을 고려한 언어 제시 모형을 통합 교재와 어휘 교재로 나누어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 1) 통합식 교재에서의 언어 제시

<제시 예 1>은 단원의 주제에 따라 주제별 학습 목표 언어를 선정하여 교재에 제시하고, 활용 연습을 통하여 학습하도록 한 통합식 교재의 언어 제시 방안 예이다. <제시 예 1>을 위한 단원의 주제 및 학습 단계, 주제별 언어 목록<sup>67)</sup>, 학습 목표 어휘는 다음 (62)~(64)와 같이 구성하였다.

(62) a. 단원의 주제: 일상생활-의식주

b. 학습 단계: 초급

---

67) 여기서 제시한 주제별 언어 목록의 예는 <일상생활> 중 <의식주>에 관한 것이다. ‘일상생활’과 같이 범위가 넓은 주제는 ‘의식주’, ‘운동’, ‘일’, ‘가족·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하위 주제로 나누어 언어 목록을 선정하는 것이 교재 편찬이나 학습 도구 개발을 위해 효율적일 것이다.

<표 21> 주제별 연어 목록의 예: 일상생활-의식주/초급/표현 연어

가방을 메다	모자를 쓰다	에어컨을 끄다
거울을 보다	목(이) 마르다	에어컨을 켜다
과일을 깎다	밥(을) 하다	옷(치마, 바지)을 입다
구두를 신다	배(가) 고프다	우산을 쓰다
김치를 담그다	배(가) 부르다	이를 닦다
꿈을 꾸다	불을 끄다	잠을 자다
넥타이를 매다	불을 켜다	잠이 깨다
담배를 피우다	불을 피우다	잠이 들다
라디오를 끄다	산책(을) 하다	잠이 오다
라디오를 켜다	살이 빠지다	전화를 걸다
맛이 없다	살이 찌다	전화를 받다
맛이 있다	상을 차리다	전화를 하다
맛을 내다	(시)장을 보다	전화를 하다
맛이 나다	신문을 보다	점화를 걸다
머리를 감다	신발을 신다	커피를 타다
머리를 깎다	안경을 끼다	텔레비전을 끄다
머리를 빗다	안경을 쓰다	텔레비전을 켜다

<표 22> 주제별 연어 목록의 예: 일상생활-의식주/ 중급/ 표현 연어

가구를 들여놓다	도시락을 싸다	빨래를 널다
간장을 담그다	된장을 담그다	선풍기를 끄다
고추장을 담그다	멋을 내다	선풍기를 켜다
김을 굽다	멋을 부리다	버릇(습관)이 들다
껍질을 벗기다	목걸이를 하다	찌개를 끓이다
나물을 무치다	밥맛이 없다	커튼을 열다
냄새를 맡다	밥맛이 있다	커튼을 치다
단추를 끼다(끼우다)	밥을 차리다	커피를 타다/뽑다
단추를 달다	베개를 베다	햇빛이 들다
달걀(계란)을 부치다	빨래를 개다	

<표 23> 주제별 연어 목록의 예: 일상생활-의식주/ 고급/ 표현 연어

거품이 나다	떡국을 끓이다	잠자리에 들다
거품이 빠지다	수도꼭지를 잠그다	튀김을 튀기다
껍질을 까다	수도꼭지를 틀다	페인트를 칠하다
냉방이 되다	식욕이 없다	핸드백을 들다
단추를 잠그다	식욕이 있다	

<표 24> 주제별 연어 목록의 예: 일상생활-의식주/ 이해 연어

갈증을 풀다	세간을 내다/들이다	맛을 버리다
송송 썰다*	맵시가 나다	식욕을 버리다
보글보글 끓이다*	감칠맛이 나다	날(주름)을 세우다
잠자리를 바꾸다	창문이나다	밥을 짓다
수수한옷차림	전화를 놓다	옷을 짓다
맵시 있는 옷차림	세를 놓다	매듭을 짓다
살림을 내다	세를 들다	형편/생활/살림이 피다

<표 21> ~ <표 24>의 주제별 연어 목록을 선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중 의식주에 관련된 명사를 추출하였다.
- 둘째, 서울대와 이화여대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연어 목록 및 한국어 연어사전 (김하수 외, 2007)을 토대로 이들 명사를 연어핵으로 하는 연어의 목록을 만들었다.<sup>68)</sup>
- 셋째, 이렇게 만들어진 연어 목록을 표현 연어와 이해 연어로 나누고<sup>69)</sup>, 표현 연어는 다시 초·중·고급으로 구분하였다. 표현 연어의 급별 분류 기준은 ‘한국어 학습용 어휘’의 급별 기준(A, B, C)에 따랐다<sup>70)</sup>.

68) 앞에서(가. 연어 목록 선정에 관한 제언) 논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재를 위한 연어 목록의 선정은 한국어 학습용 어휘(국립국어연구원) 목록과 실제 한국어 화자의 연어 사용 양상에 관한 말뭉치 분석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만들어져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연어 제시 모형을 보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우선 기존 한국어 교재 및 연어 사전을 토대로 하여 주제별 연어 목록을 만들었다. 따라서 해당 명사들을 구성 요소로 하는 연어의 선정 및 범위 한정에는 임의성이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69) 표현 연어와 이해 연어의 분류 기준은 2장-(17) 참조.

70) 연어의 두 구성 요소가 각기 ‘한국어 학습용 어휘’의 다른 급에 속하는 경우 높은 급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찌개’(B급), ‘끓이다’(C급)의 경우 ‘찌개를 끓이다’는 고급(C)으로 분류하였다. 또 ‘단추’(B), ‘끼다’(B), ‘달다’(B), ‘잠그다’(C)의 경우, ‘단추를 달다/끼다’는 중급에, ‘단추를 잠그다’는 고급에 포함시켰다. 한편, ‘나물을 무치다’와 같이 연어를 이루는 서술어가 한국어 학습용 어휘(국립국어연구원)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당 명사의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연어 목록(고급)에 포함시켰다.

(63) 학습 목표 연어

- a. 제시 및 활용 연어: 잠을(에서) 깨다, 꿈을 꾸다, 이를 닦다, 머리를 빗다, 바지/셔츠를 입다
- b. 확장 연어: 구두/양말을 신다, 넥타이를 매다, 모자/안경을 쓰다, 장갑을 끼다, 목걸이를 하다

(64) 학습 목표 문법 표현: 시간 순서에 따른 행위를 나타내는 [-고]

다음은 (62)~(64)의 주제, 학습 단계와 목표, 학습 목표 연어 및 <표 21>~<표 24>의 주제별 연어 목록을 바탕으로 한 통합 교재에서 연어 제시의 모형이다.

■ 제시 예 1.

1. 김민수 씨의 집입니다.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왼쪽의 표현들을 사용해서 말해 보십시오.

잠을 깨다, 꿈(을) 꾸다, 세수(를) 하다, 이를 닦다, 면도(를) 하다, 머리를 빗다, 바지/셔츠를 입다, 화(가)나다



<보기> 잠을 깨워요. 면도를 해요.

2.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 1) 두 사람은 무슨 관계입니까?
- 2) 김민수 씨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3.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를 닦아요.

- 1) 어젯밤에 무서운 꿈을 \_\_\_\_\_.
- 2) 친구 때문에 화가 많이 \_\_\_\_\_.
- 3) 전화 벨소리에 잠을 \_\_\_\_\_.
- 4) 머리를 예쁘게 \_\_\_\_\_.
- 5) 오늘 김 선생님은 파란 바지에 파란 셔츠를 \_\_\_\_\_.

4. 여러분은 다음 일 중 무엇을 먼저 합니까?

<보기> 이를 닦아요. 세수를 해요.  
→ 이를 먼저 닦고 세수를 해요.  
→ 세수를 먼저 하고 이를 닦아요.

- 1) 세수를 해요. 면도를 해요.  
→ \_\_\_\_\_
- 2) 신문을 봐요. 아침을 먹어요.  
→ \_\_\_\_\_
- 3) 머리를 빗어요. 화장을 해요.  
→ \_\_\_\_\_
- 4) 숙제를 해요. 잠을 자요.  
→ \_\_\_\_\_

5. 관계있는 것끼리 연결하십시오.



- |     |   |      |
|-----|---|------|
| 신발  | · | · 쓰다 |
| 넥타이 | · | · 끼다 |
| 모자  | · | · 하다 |
| 안경  | · | · 매다 |
| 장갑  | · | · 신다 |
| 목걸이 | · |      |
| 양말  | · |      |

중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68)의 연어들을 확인 복습하고 아래 <제시 예 2>에서와 같이 의식주에 관한 연어 표현을 확장 학습하도록 할 수 있다.

■ 제시 예 2.

(65) 학습 목표 연어: 찌개를 끓이다, 상을 차리다, 빨래를 널다/개다, 잠자리에 들다

6. 김민수 씨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요? 다음 표현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찌개를 끓이다, 상(밥, 저녁)을 차리다, 저녁을 먹다, 신문을 보다(읽다), 산책을 가다, 빨래를 널다/개다, TV를 보다, 책을 읽다, 음악을 듣다, 잠자리에 들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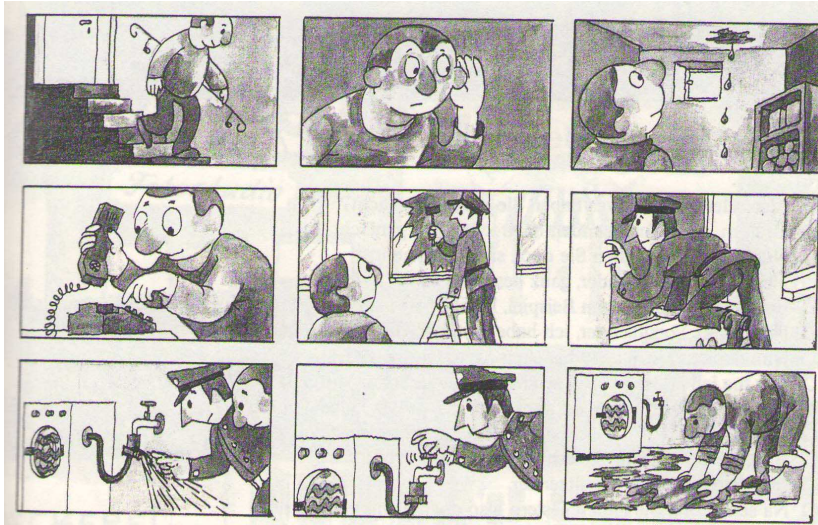


---

2) 어휘 교재에서의 연어 제시의 예

다음은 어휘 교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연어 제시의 모형들이다.

■ 제시 예 3: 그림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 1) (계단을 내려가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 2) (물이 새다)\_\_\_\_\_
- 3) (전화를 걸다)\_\_\_\_\_
- 4) (유리를 깨다)\_\_\_\_\_
- 5) (수도꼭지를 잠그다)\_\_\_\_\_
- 6) (바닥을 닦다)\_\_\_\_\_

<제시 예 3>은 여러 가지 연어를 특정한 상황과 관련지어 유의미한 맥락 안에서 학습하도록 제시하는 방법이다.

■ 제시 예 4: 알맞은 동사를 찾아 쓰십시오.

나다    치다    부리다    떨다

<보기> 장난을   치다  

- |              |              |
|--------------|--------------|
| 1) 수다를 _____ | 2) 멧을 _____  |
| 3) 화가 _____  | 4) 사고가 _____ |
| 5) 엄살을 _____ | 6) 도망을 _____ |
| 7) 결정이 _____ | 8) 갈증이 _____ |
| 9) 장난을 _____ | 10) 신이 _____ |

<제시 예 4>는 기능 동사로서 다양한 연어를 구성하는 ‘나다’, ‘치다’, ‘부리다’, ‘떨다’<sup>71)</sup> 등과 관련된 연어를 따로 모아 학습하도록 하는 제시 방안이다. ‘나다’, ‘치다’, ‘부리다’, ‘떨다’와 연결된 연어 구성을 구별하여 학습하도록 함과 동시에 ‘화가나다’, ‘사고가나다’, ‘결정이나다’, ‘신이나다’/ ‘수다를떨다’, ‘엄살을떨다’와 같이, 같은 기능 동사를 공유하는 연어 구성을 비교하여 학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제시 예 5: 다음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낱말을 쓰십시오.

<보기> 손발이\_\_\_\_\_ / 답이\_\_\_\_\_ / 번호가\_\_\_\_\_ / 예감이\_\_\_\_\_ :   맞다  

- |  |       |
|--|-------|
| 1) 마음을_____ / 더위를_____ / 나이를_____ / 겁을 _____ : | _____ |
| 2) 일기를_____ / 모자를_____ / 바가지를_____ / 돈을_____ : | _____ |
| 3) 바지를_____ / 손해를_____ / 상처를_____ / 영향을_____ : | _____ |

<제시 예 5>는 같은 연어소를 공유하는 연어들을 모아 활용 연습을 통하여 제

71) 이렇게 다양한 연어를 구성하는 기능 동사에는 이들 동사 외에도 ‘내다’, ‘놓다’, ‘들다’, ‘보다’, ‘잡다’, ‘지다’, ‘짓다’, ‘피우다’ 등이 있다. 고급 학습자를 위해서는 이들을 구성 요소로 하는 연어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여 학습하도록 할 수 있다. 연어 구성의 기능 동사에 관하여는 최경숙 (1997) 참조.



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같은 언어핵을 공유하는 언어들을 모아 제시할 수 있다.

■ 제시 예 6: 보기와 같이 알맞은 동사를 쓰십시오.

<보기> 잠을 자다

- |              |              |
|--------------|--------------|
| 1) 그림을 _____ | 2) 춤을 _____  |
| 3) 꿈을 _____  | 4) 걸음을 _____ |
| 5) 짐을 _____  | 6) 얼음이 _____ |

<제시 예 6>은 ‘그림을 그리다’, ‘춤을 추다’, ‘잠을 자다’, ‘꿈을 꾸다’와 같이 동족목적어를 취하는 언어들을 모아 제시하는 방안이다. <제시 예 3>~<제시 예 5>가 고급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제시 방안이라면 <제시 예 6>의 경우는 초급 교재에서부터 활용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관계를 활용한 제시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관용어의 학습을 위해서는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그 배경 의미까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43)의 예와 같이 제시문과 연계하여 뜻풀이와 함께 제시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이상에서 통합식 교재와 어휘 교재의 언어 제시 모형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 보았다. 언어 제시 방법에 따로 구별을 두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통합식 교재에서는 문법을 비롯한 다른 학습 요소와의 조화 및 급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학습 목표 언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재에서 주제별 언어 목록을 부록이나 관련 단원에 급별로 제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2)의 예에서 소개한 언어 사전을 활용한 언어 학습 방법은 언어 목록을 활용한 언어 학습에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중·고급 이상의 교재에 언어 목록을 제시해 준다면 교재를 활용한 보다 본격적이고 다양한 언어 학습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 제4장 결론

지금까지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재와 독일어 교재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재에서의 효과적인 언어 제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제1장에서는 언어에 관해 언어 교육적 연구 외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밝히고, 선행 연구에 관해 소개하였다.

이어 제2장에서는 오늘날 언어 교육에 있어 그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어휘 교육의 대상이 개별 어휘가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개별 어휘들이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는 덩어리말(chunk)임을 설명하고, 학습자에게 이러한 결합 관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결합 관계로서의 언어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언어의 개념에 관한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을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어 교육의 대상으로서 언어의 개념을 ‘그 의미의 이해와 표현을 위해 하나의 어근으로 인식해야 하는 두 단어 이상의 결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 범주에 언어와 관용어 그리고 형태·통사적 언어를 모두 포함시키되, ‘유령 회사’, ‘유령 단체’와 같이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은유적 의미를 지니는 결합 관계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실제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시도되거나, 연구 논문을 통해 제시된 국내·외의 언어 교육의 방법과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화여대 및 서울대의 한국어 교재(각각 1~3급, 본교재와 연습 교재)와 외국인들을 위한 독일어 교재(Themen aktuell 1~3급, 본교재와 연습 교재 및 DaF Wortschatz)를 대상으로 언어 선정의 적절성 및 언어 제시의 적절성, 학습한 언어의 활용 및 확장을 위한 연습 과제의 제시 여부를 비교 분석하였다. 언어 선정의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기 한국어와 독일어 학습용 기초 어휘의 반영률과 단계별 학습량을 비교 분석하였고, 언어가 언어 자체의 학습을 목적으로 하여 교재에 제시되었는지 여부와 제시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언어 제시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재의 경우 서울대 교재에 제시된 언어는 1개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어 학습용 어휘’를 반영하고 있었고, 이화여대 교재의 경우 다수의 언어가 ‘한국어 학습용 어휘’의 범주 밖에서 선정되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용 어휘’에 속하지 않는 이들 언어의 대부분이 한자어의 결합 관계임에 따라, ‘한국어 학습용 어휘’의 한자어 반영 비율에 관해 좀 더 엄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단계별 학습량의 비교 분석 결과 한국어 교재의 단계별 학습량의 차가 독일어 교재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어 교재의 초급 단계에서 언어 제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휘의 난이도와 단원의 주제를 고려하여 급별로 일정한 수의 언어가 제시되도록 안배해야 할 것이다.

언어 제시의 적절성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어 교재의 경우 독일어 교재에 비해 단원의 주제와 관련되어 제시문의 어휘로 도입된 언어들이 적절한 언어 정보 제공 및 연습 과제와의 연계 과정을 거쳐 언어 학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단원에 제시된 언어를 연습·활용 과제와 연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담배를 피우다’, ‘배가 고프다’와 같이 일부 언어가 단원 주제와도 관계없이 문형 연습을 위해 습관적으로 자주 도입되고 있는 현상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와 제2장에서 언어 교육에 관한 논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언어 목록의 선정과 한국어 교재의 언어 제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언어 목록 선정에 관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말뭉치 중 출현 빈도가 높은 언어 목록만을 뽑아, 그중 중심이 되는 구성 요소가 ‘한국어 학습용 어휘’에 해당되는 언어 관계를 추려 한국어 학습 목표 언어 목록을 선정할 것을 제안하고, 선정 시 다음 네 가지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그 의미의 이해와 표현을 위해 하나의 어근으로 인식해야 하는 두 단어 이상의 결합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언어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언어의 유형에 관해서도 그 기준을 정하여 유형별로 선정하여야 한다.

셋째, ‘유령 회사’, ‘유령 단체’와 같이 언어적 속성을 보이는 명사구나, ‘뽕소니차’,

‘공부별레’와 같이 은유적 의미를 가지게 된 합성어도 연어의 범주에 포함시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선정된 연어를 토대로 주제별 연어 목록을 선정하되, 급별로 그리고 표현 연어와 이해 연어로 나누어 선정한다.

연어 제시의 방안은 다음 여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교재에서 연어의 제시는 연어 학습을 목적으로 계획적·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완전한 습득에 이르도록 ‘연어의 제시 - 연어 정보 제공 - 활용 연습’의 3단계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어의 제시 방안은 통합식 교재와 어휘 교재를 구별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어휘 교재에서 연어를 다루는 방법은 <DaF Wortschatz>에서와 같이 어휘교재 안에서 적절한 분야와 연계하여 연어의 활용 연습 및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과 연어 학습만을 위한 연어 교재를 만드는 방법의 두 가지로 나누어 고려해야 한다.

셋째, 교재에서 연어를 제시할 때는 ‘표현 연어’와 ‘이해 연어’를 구별하여, ‘표현 연어’의 경우 초급에서부터 화용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 연습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해 연어’의 경우에는 초·중급에서는 그 의미의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고, 유창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고급 단계에서 선별적으로 활용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연어의 제시는 철저한 학습을 위해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연어의 은유적 의미를 이해하고 문맥 안에서의 쓰임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요소와의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그리고 의미장에 따라 연관되는 연어들을 함께 제시하여 어휘 확장과 함께 관련 항목들의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제시 방안을 고려하여 교재에서의 구체적인 연어 제시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재 안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연어 제시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최근 언어 교육의 흐름에 발맞추어 어휘 교육에 중심을 둔 교재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언어 능력의 가장 효과적인 확장 수단으로서의 연어 교육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연어 교육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동기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재에서 언어의 본격적인 반영이나 연어 교재 편찬의 바탕이 될 신뢰도 있는 연어 목록의 선정 등은 다음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앞으로 연어와 관련하여서는 교재 편찬뿐 아니라 학습 방법, 도구의 개발 등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족하나마 본 연구가 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강현화(1997), “[체언+용언] 꼴의 연어 구성에 대한 연구”, 사전편찬학연구 Vol. 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 강현화(2005), “어휘 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구명철(2005), “연어의 일종으로서의 기능동사구”, 독어학 제12집, 한국독어학회.
- 구명철(2006), “자유결합, 연어 그리고 관용어”, 독어교육 제37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 국립국어연구원 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한국어 학습용 기본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김선정·강현자(2006), “한국어 관용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단위제시”, 이중언어학 제32호, 이중언어학회.
- 김의정(2001),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습목표 어휘 선택과 과구성의 실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해(1999), “연어(collocation)의 의미관계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제4집, 한국어의미학회.
- 김진해(2000a), “국어 연어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해(2000b), “연어의 계열 관계 연구”, 국어학 35, 국어학회.
- 김하수 외(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 사전』, 커뮤니케이션북스.
- 남길임(1997), “‘감정 명사’의 설정과 그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 사전편찬학연구 Vol. 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제15호, 이중언어학회.
- 문금현(2002),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연어 학습 방안”, 국어교육 109, 한국어교육학회.

- 문금현(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의미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 의미학 Vol.16, 한국어 의미학회.
- 박숙영(2005), “한국어 어휘교육을 위한 언어 활용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이정(2008), “국어의 연어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희(2005), “연어 제약에 대하여”, 어문연구 33권 제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박현정(200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교수, 학습방안 연구”, 문창어문 논집(구-국어국문학지) 43, 문창어문학회.
- 서상규 외(1998),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 선정」, 문화관광부·한국어 세계화 추진위원회.
- 서상규(2002), “한국어 정보 처리와 연어 정보”, 국어학 39집, 국어학회.
- 송석희(2005), “Eine Analyse der Deutschen Kommunikationshandlungskollokationen mittels der Lexikalischen Funktionen”, 독어학 제14집, 한국독어학회.
- 신은경(2005), “한국어 어휘 교재 개발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자영(2005), “한국어 연어의 다국어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제28호, 이중언어학회.
- 양수향(2006, 여름), “한국어 학습자들의 연어 오류 연구”, 어문연구 제34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양영희(1995), “관용표현의 의미 구현 양상”, 국어학 26, 국어학회.
- 양윤정(2005), “한국어 어휘 교재 구성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정(2004), “한국어 교육용 어휘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15, No.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동혁(1998), “국어의 연어적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혁(2003), “연어 표현의 유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 이동혁(2004), “국어 언어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숙명(2002), “국어 언어의 유형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연·최은지(2007),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언어 사용 연구”, 이중언어학 제34호, 이중언어학회.
- 이정원·김낙복(2005), “언어 중심 어휘지도가 영어 어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 60권 2호, 한국영어교육학회.
- 이해영(2006), “어휘 문법 교재와 교육 자료의 개발 방향”, 제2회 한국어교육 학술대회 자료집,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 이해영(2001), “한국어 교재의 언어 활동 영역 분석”, 한국어교육 12, No.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해윤(2003), “코퍼스를 이용한 독일어 연구”, 독일문학 88, 한국독어독문학회.
- 이해윤(2006),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기본어휘 선정에 대하여”, 한국독일어교육학회지 19집, 한국독일어교육학회.
- 이희자(1995),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임근석(2002), “현대 국어의 어휘적 언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유종(2006), “언어의 개념과 범주 한정 문제”, 국제어문 36집, 국제어문학회.
- 임홍빈(2002), “한국어 언어의 개념과 그 통사·의미적 성격”, 제28회(2001) 국어학회 공동토론회 발표 논문, 국어학 39집, 국어학회.
- 정대성(2000), “제2 언어습득에 있어 언어(collocation)지식 발달에 대한 연구”, 현대영어교육 1권, 현대영어교육학회.
-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본 원리와 실제”, 말 2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조현용(1999a), “한국어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에 대한 연구”, 고봉논집 25, 경희대학교 대학원.



- 조현용(1999), “한국어 어휘의 특징과 어휘 교육”, 한국어교육 1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박이정.
- 지순정(2003), “말뭉치의 연어관계(collocation)를 이용한 영어 어휘학습지도”, 인제논총 18, No.1, 인제대학교.
- 진대연(1999), “한국어 교재 분석의 기준: 연구와 적용”, 국어교육학연구 9, 국어교육학회.
- 최경숙(1997), “연어 구성의 기능동사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정(2001), “연어 연어의 이해의 지도 방안”,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영균(1997), “‘체언+용언’ 합성구의 형태론적 특성”, 울산어문논집 제12집, 울산대국문학과.
- 한영균(2002), “어휘 기술을 위한 연어 정보의 추출 및 활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국어학 Vol. 39, 국어학회.
- 한송화·강현화(2002), “연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학 15, No.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진석(2001), “연어관계를 통한 어휘덩어리 학습으로 영어 유창도의 달성”, 인문과학논문집 제31집, 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현대덕(2007), “연어 학습이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현대영어교육 8권, 현대영어교육학회.
- 홍은진(2004),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분석과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 홍종선 외(2001), 「한국어 연어 관계 연구」, 도서 출판 월인.
- 홍혜란(2007), “한국어 고급학습자의 문법적 연어 오류 분석 - 학습자 말뭉치와 작문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1, No.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Bachmann, Lyle F.(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university Press.
- Benson, Martin · Benson, Evelyn · Ilson, Robert(1997), 「*The BBI dictionary of English word combinations*」, Revised edi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enson, Martin · Benson, Evelyn · Ilson, Robert(1999), 「*Student's Dictionary of Collocation*」, Cornelsen Verlag.
- Bischof, Beatrice(2004), “The collocation in French”, Klausurtagung in Kleinwalsertal, Uni Stuttgart, 10.07.2004.
- Bolinger, Dwight(1976), “Meaning and memory”, *Forum Linguisticum* 1, 1-14.
- Brown, Dorothy F.(1974), “Advanced vocabulary teaching: the problem of collocation”, *RECL Journal* 5,2:1-11.
- Duden Verlag, 「*DUDEEN Deutsches Universalwörterbuch*」, 5. Aufl.(2003).
- Firth, John Rupert(1951), 「*Modes of meaning*」, *Papers in Linguistics 1934-1951*, 190-215, 1957, Oxford University Press.
- Hausmann, Franz Josef(1984), “Wortschatzlernen ist Kollokationslernen, zum Lehren und Lernen französischer Wortverbindungen”, In: *Praxis der neusprachlichen Unterrichts*, S.395-407.
- Hausmann, Franz Josef(1993), “Ist der deutsche Wortschatz lernbar? Oder: Wortschatz ist Chaos”, In: *Info DaF* 20, S.471-585, iudicum.
- Hausmann, Franz Josef(2003), “Was sind eigentlich Kollokationen?”, In: Steyer · Kathrin(Hrsg.), 「*Wortverbindung mehr oder weniger fest*」, S.309-334, Walter de Gruyter.
- Hill, Jimmie(2000), “Revising priorities: From grammatical failure to collocational success”, In: Michael Lewis(ed.), 「*Teaching Collocation-Further development in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Hill, Jimmie · Lewis, Morgan · Lewis, Michael(2000), “Classroom strategies, activities and exercises”, In: Michael Lewis(ed.), 「*Teaching Collocation- Further development in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Howarth, Peter(1998), “Phraseology and second Language Proficiency”, *Applied Linguistics* Vol.19 No.1, Oxford University Press.
- Lee-Smith, Angela(2006), “어휘적 접근법을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7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Lewis, Michael(1993), 「*The lexical approach: The state of ELT and the way forward. Hove*」, Englan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Lewis, Michael(1997),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e lexical approach”, In: J. Coady & T. Huckin(Eds.),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A rationale for pedagogy*」 (pp. 255-2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 Michael(2000a), “Introduction of Teaching collocation - Further development in the lexical Approach”, In: Michael Lewis(ed.), 「*Teaching collocation - Further development in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Lewis, Michael(2000b), “Language in the lexical approach”, In: Michael Lewis(ed.), 「*Teaching collocation - Further development in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McCarthy, Michael(1990), 「*Vocabulary*」, Oxford University Press.
- Moudraia, Olga(2001), “Lexical Approach to second Language Teaching”, In: ERIC DIGEST, EDO-FL-01-02, June 2001 (<http://www.cal.org/resources/digest/0102lexical.html>)

- Palmer, F. R.(1965), 「*A linguistic study of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 Reder, Anna(2001), “Ein heißer Tipp - oder Kollokationslernen durch eine Ganzschrift”, In: Buhofer · Durco(Hrsg.), 「*Aneignung und Unterricht*」, IDT Publikation.
- Reder, Anna(2006), “Kollokationsforschung und Kollokationsdidaktik”, *Linguistic online* 28.
- Siepmann, Dirk(2004), “Kollokationen und Fremdsprachenlernen: Imitation und Kreation, Figur und Hintergrund”, *Praxis Fremdsprachenunterricht*, 2/2004.
- Sinclair, John(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한국어 교재>

- 서울대 어학연구소, 「한국어」, Student Book 1, 2, 3, Practice Book 1, 2, 3,(2006), 문진미디어.
- 이화여대 언어 교육원, 「말이 트이는 한국어」, Student Book I, II, III, Work Book I, II, III,(2004), 이화여대 출판부.

<독일어 교재>

- Max Hueber Verlag, 「Themen aktuell」, Kursbuch 1, 2, 3, Arbeitsbuch 1, 2, 3(2004).
- Compact Verlag, 「Deutsch als Fremdsprache leicht gemacht Wortschatz」, 2002.

<div style="text-align: center;">&lt;부록1&gt; 이화여대 교재 언어 목록 및 항목별 분석 자료</div>													
	언어 선정		제시영역				언어의 연습/활용				제시형태		
	주제, 기법	언어	제시문	과제	문법	어휘	의미	활용	확장	패턴	명시적	배정	비미관
가슴이 두근거리다	1					1							
간단 명료하게	1		1										
감기에(가, 를) 걸리다	7		6	1									
값을 깎다	11		7	1	1	2					1		
개꿈	1		1										
견문을 넓히다	1				1								
경사가 급하다	2		1			1					1		
경험을 쌓다	3		2			1					1		
공을 세우다(군인)	1					1							
기가 막히다	2		1			1					1		
기분을 상하다	1				1								
기분이 언짢다	1		1										
기침이 나다	1					1					1		
김치를 담그다	4		2	1	1								
꿈에도 모르다	3		2			1					1		
꿈에서 깨다	1		1										
꿈을 꾸다	7		6	1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1		1										
눈에 띄다	2		1			1					1		
단풍이 들다	3		2			1					1		
담배를 피우다(줄-)	22		8	7	5	2		1			1		
도둑을 맞다	1		1										
도둑이 들다	6			2	1	3							
돈을 벌다(번 돈)	5		2			3							
들통이 나다	1				1								
마음(을) 먹다	1	1				2	1	1	1	1	2	1	1
마음에 두다		1				2	1	1	1	1	1	1	1
마음에 들다	12	1	7	2		4	1	1	1	1	2	1	1
마음을 비우다		1				2	1	1	1	1	1	1	1
마음이 넓다		1				2	1	1	1	1	1	1	1
마음이 맞다	1	1		1		2	1	1	1	1	1	1	1
마중 나가다	2		1		1								
말도 안 되는 (농담)	1				1								
머리가 멍하다	2		1			1							
머리를 감기다	1				1								
면허증을 따다	1				1								
모자를 쓰다/씌우다	1		1										
목이 마르다	3				3								
몸살이 나다	1			1									
몸이 걸리다(근육)													
무릎을 꿇다	1												
미련이 없다	2		1			1					1		
바가지를 쓰다	2		1	1									
배가 고프다	9		4		5								
배가 부르다	3				2								
별일 아니다	1		1										

	언어 선정		제시영역				언어의 연습/활용				제시형태		
	주제, 기법	언어	제시문	과제	문법	어휘	의미	활용	확장	패턴	영시적	패턴정	의미관계
본의 아니게	1		1			1					1		
불을 끄다	1				1								
불을 켜다(켜 놓다)	2				2								
불행중 다행이다	1					1					1		
비가 오다	3		2		1								
뺨소니차	2		1			1							
사진을 찍다	4		1	1	2								
사활을 걸다	3		2			1					1		
살이 빠지다	4		3		1								
살이 찌다	5				5								
상을 차리다(돌상을-)	5		2	2		1					1		
선택의 기로(에 서다)	2		1			1					1		
선택의 여지(가 없다)	2				2								
소문이 자자하다	1		1										
소용이 없다	1				1								
손에 익다		1				1	1		1	1	1	1	1
손을 끊다		1				1	1		1	1	1	1	1
손이 (많이) 가다	4	1	1		1	2	1		1	1	2	1	1
손이 맵다	1					1		1			1		
송송 썰다	1					1					1		
수입이 짹짹하다	1					1		1			1		
시간을 내다	3		3										
시비가 붙다	1					1							
시험에 떨어지다	1				1								
시험에 붙다	5		2		3			1			1		
시험을 치르다	2		1			1					1		
신발을 신다	1				1								
안경을 끼다	1				1								
안도의 한숨	1				1								
야단을 맞다	1				1								
어쩔 줄을 모르다	2		1			1					1		
없는 것이 없다	2		2				1						
열이 내리다	1		1										
오해가 풀리다	1					1					1		
용기가 나다	1		1										
용기를 내다	1					1					1		
용서를 빌다	4		2	1		1					1		
우산을 쓰다	1				1								
월요일													
유행을 타다		1				1							1
이유를 대다	1					1							
자리를 비우다	2				2								
잘못을 범하다	2		1			1					1		
잠을 설치다	5		3			2	1				1		
잠을/에서 깨다	3		3										
잠이 들다	2		1			1	1						
잠이 오다	1					1	1						

	연어 선정	제시영역				연어의 연습/활용				제시형태			
		주제, 기능	연어	제시문	과제	문법	어휘	의미	활용	확장	패턴	영시적	배정
잡자리에 들다	2		2										
적성에 맞다	1		1										
전등을 끄다	1					1							
전화를 걸다	2					2							
절망에 쌓이다	1			1									
정신(을) 차리다	1					1							
주머니가 넉넉하다	2		1			1					1		
짜증이 나다	1					1					1		
차례를 지내다(설날)	1					1							
천만 다행이다	2		1			1	1				1		
천만의 말씀이다	1					1					1		
철철 흐르다	3		2			1					1		
최선을 다하다	1												
춤을 추다	1					1							
치수를 재다	3		2	1									
친하게 지내다	1												
칼같이 지키다(약속을)	4		2			2	1				2		
콧물이 나다	1		1										
타산을 맞추다(수지-)	3		2			1					1		
테니스를 치다	9		4	2	3								
편의를 봐 주다	3		2			1					1		
편지를 부치다	2	1	1		1	1		1	1		1		1
풀이 죽다	3		2			1					1		
핑계를 대다	1		1										
한턱 내다	5		2		2	1							
햇빛이 들다	2		1			1					1		
화를 내다	5		4		1	1					1		
<b>&lt;관용어&gt;</b>													
고장난 수도꼭지(눈물)	1					1							
그림의 떡	2		1		1								
꿀 먹은 병어리	1		1										
누워서 떡먹기	1			1							1		
눈감아 주다(한 번만-)	3		2			1					1		
손가락에 장을 지지다	3		2			1					1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3		2			1							
손이 없는 날		1				1	1		1	1	1	1	1
식은 죽 먹기	1			1							1		
아 다르고 어 다르다	2		2								1		
엎드려 절받기	1			1							1		
입에 쓴 약	1												
제 눈에 안경	4		1	2	1	1							
쥐꼬리만하다(월급은-)	4		2		1	1					1		
하늘의 별따기	3		1	1	1						2		
혹을 떼다													
십년 감수하다	2		1			1	1				1		
바람(을) 맞다(약속)	1		1										
뒤집어 씌우다(누명)	1					1							

	언어 선정		제시영역				언어의 연습/활용				제시형태		
	주제, 기법	언어	제시문	과제	문법	어휘	의미	활용	확장	패턴	명시적	패턴정	의미관계
누적빈도	318	12	146	32	68	85	17	11	11	10	62	10	12
총 제시 빈도:	330												
총 제시 언어 수	139			언어 연습 및 활용:			21개	명시적 제시 빈도:			58개		



	언어 선정		제시영역				언어의 연습/활용				제시형태		
	주제, 기	연어	제시문	과제	문법	어휘	의미	활용	확장	패턴	영시적	배정점	의미관계
<부록2> 서울대 한국어 3 연어 목록 및 항목별 분석 자료													
가게를 닫다	2		1		1								
감기에 걸리다	11			2	9								
거울을 보다	1		1										
계획을 세우다	1		1										
고개를 끄덕이다	1		1										
고장(이) 나다	8	5	1	6	1	5					4	3	
그림을 그리다	1				1								
기가 막히다	3	6	1	1	1	6					6	6	
김치/깍두기를 담그다	7				6	1							
꽃이 피다	3			3									
나이를 먹다	1		1										
넥타이를 매다	1				1								
노래를 부르다	1			1									
눈이 오다	5				5								
담배를 피우다	16				16								
돈을 찾다(은행에서)	2		1		1								
마음에 (안) 들다	13		1	2	8	2							
마음을 먹다	2				2								
마음이 맞다		1					1				1	1	
머리를 감다	2			1	1								
모자를 쓰다	2				2								
목이 마르다	1				1								
문제를 내다	2	1	2			1					1	1	
문제를 풀다	1	1	1			1					1	1	
바람이 불다	2				2								
배(가) 고프다	15				13	2							
배가 부르다	3					3							
병이 나다	1				1								
불을 켜다		1				1					1	1	
불을 끄다	1				1								
비가 오다(소나기)	21		2	3	16								
비디오를 찍다	2			2									
사고가 나다	1			1									
사전을 찾아 보다	1				1								
사진을 찍다	18	1	1	5	10	3					1	1	
사진이 (잘) 나오다	5	6		3	2	6					6	6	
살이 찌다	1		1										
상을 타다		3				3					3	1	1
생각이 나다	1				1								
생각이 들다	1				1								
세탁기를 돌리다	1	1			1	1					1	1	
소포를 부치다	1			1									
손(을) 보다	3	3	1	2		3					3	3	
수도를 틀다		1				1					1	1	
수수께끼를 내다	1				1						1		
수수께끼를 풀다	2				2						2		

	언어 선정		제시영역				언어의 연습/활용				제시형태			
	주제, 기능	언어	제시문	과제	문법	어휘	의미	활용	확장	패턴	명시적	배정	비미	관계
시계를 차다		1		1										
시름에 붙다		2			1									
시름을 보다		5		3	2									
선발을 신다(운동화, 구두)		22		4	18									
안경을 끼다		1			1									
야단을 맞다			3			3					3	3		1
야단을 치다			3				3				3	1		1
양말을 신다		1			1									
얼음이 얼다		2		2										
열이 나다		2												
우산을 쓰다		2			2									
잠이 오다		1			1									
장난을 치다		1	1											
전기가 나가다		1			1									
전화(를) 받다		2			2									
전화가 오다		1		1										
전화를 걸다		5		2	3									
전화를 끊다		2			2									
정이 들다		1	1											
주사를 맞다		2			2									
줄을 서다		1	1											
최선을 다하다		2	5	1		1	5				5	5		
춤을 추다		1			1						1	1		
큰일이 나다		1			1									
택시를 잡다		1			1									
테니스를 치다		1	1											
피아노를 치다		1				1								
화가 나다		4		2	2									
화를 내다		15		2	6	6	1							
화를 풀다		1		1										
<관용어>														
(관)귀가 가렵다		3				2		1			3	1		1
(관)손발이 맞다		1	2		1	1		1			2			1
눈이 높다		3	4	1	1	4		1			4	2		
발이 넓다		1	2		1	1		1			2			2
손이 크다			2			1		1			2			1
하늘의 별 따기		5		1		4								
한잔 사다		1				1								
한잔 하다		3			1	1	1							
한턱 내다		5			4	1								
누적빈도	269	54	26	63	161	64		5			57	38		9
총 제시 빈도	323													
총 언어수 :	65개					언어 연습 및 활용:	5개		명시적 제시:	23개				

	언어 선정		제시영역				언어의 연습/활용				제시형태		
	주제, 기	연어	제시문	과제	문법	어휘	의미	활용	확장	패턴	영시적	패턴정	의미관계
<부록3> Themen aktuell 연어 목록 및 항목별 분석 자료													
Abitur machen	1					1							
Abschluß machen	1				1								
Anfang machen	1			1									
Angst haben	1	1				2					1		1
Aufgabe lösen	2			2									
(kein) Auge zumachen	1			1									
Augenkontakt	1			1									
Ausflug machen	1		1										
ins Bad gehen	1	1	1			1		1			1		1
Ballon fahren		1				1		1			1		1
Bescheid geben	1		1										
ins Bett gehen	4	1		1	2	2		1			1		
Beziehung führen	1		1										
Billanz erstellen		1				1		1			1		1
Glühbirne		1				1	1	1			1		
starke Brille		2				2					2	1	1
Brille tragen		2				2		1		2	2	1	
Brille aufsetzen		1				1	1				1		
Buch zuschlagen	1		1										
contra geben		1				1	1		1		1		
Dienst leisten	2		1	1									
eilig haben	2			2									
Einladungen schreiben	1					1							
Ellbogen stützen		1				1		1		1	1		1
Entscheidung treffen	4		3		1								
zu Entscheidungen kommen	1				1								
in Erfüllung gehen	2		2										
die Erfüllung finden	1					1							
ernst nehmen	1		1										
Examen bestehen	1			1									
Fehler machen	1					1							
(einen) Flug buchen	1					1							
Formular ausfüllen	1					1							
scharfe Fotos (machen)	3		2		1								
frei haben	2		2										
Früchte anbauen	2		2										
zu Fuß	2	1	1			2	1				1		
gar nicht	2			1		1							
zu Gast	1					1							
Gedanken machen	1					1							
Gefallen tun	1	1				2		1	1		1		1
im Gegenteil	1		1										
Geizkragen	1	1	1			1	1				1		
Geld abheben	3	2				5		1		1	1	1	1
(für etw.) Geld ausgeben	1		1										
Geld verdienen	1				1								

	언어 선정		제시영역				언어의 연습/활용				제시형태		
	주제, 기능	언어	제시문	과제	문법	어휘	의미	활용	확장	패턴	영시적	패턴정	의미관계
Geschäfte schließen		1				1							
Geschichte erzählen		2		1	1								
ein (fröhliches) Gesicht		2	1	1	1	1	1				1		
Gewicht verlieren		1	1										
zum Glück		1				1							
Gymnastik machen		1				1							
die Haare kämmen			2			2		2			2	2	
die Haare verlieren			1			1				1	1	1	
Hand geben		3		1	2								
Hand schütteln		1	2	1	2			2			2	2	
aus der Hand		3	1	1	2		1	1			1		
Handschlag			2		2			2			2	2	
Hand drücken		2			2								
Hand reichen		1			1								
hart bleiben		1		1									
Hausaufgaben machen		1				1							
zu Hause		16	2	5	2	3	8		1	2		2	2
zu Hilfe nehmen		1			1								
um Hilfe schreien			1				1		1			1	
höchstwahrscheinlich			1				1	1	1		1	1	
Heißhunger		2		2									
Hunger haben		1					1						1
Hut aufsetzen		1				1							
kaputt machen		1		1									
klar gehen		1			1								
Kompliment machen		4		1	1		2						
Kontakt finden		1		1									
Kontakt aufnehmen		1			1								
Kontakt abbrechen		1			1								
in Kontakt kommen		1		1									
Krach machen			4				4	3	4			4	4
Kurs machen		2		2									
zum Lachen (sein)		1					1						
etw. In die Lage versetzen		1			1								
schwere Last		1		1									
zu Lasten gehen		1		1									
schlechte/gute Laune		5	1	2	2		2		1		1	1	
Leistung halten		1		1									
unter die Leute		2		1	1								
das Licht ausmachen		1					1						
(die) Lieferung kommen		1			1								
Löcher bohren		1			1								
in die Luft gehen		1			1								
Medikament nehmen			1				1		1		1	1	
einer Meinung sein		1		1									
Mund schließen			1				1		1		1	1	
mit vollem Mund (sprechen)		1				1							

	언어 선정		제시영역				언어의 연습/활용				제시형태		
	주제, 기능	언어	제시문	과제	문법	어휘	의미	활용	확장	패턴	영시적	대안적	의미관계
Münze werfen		1	1										
Musik machen		1				1							
Mut machen		1	3	1		3		3			3	3	
die Nacht zum Tag machen		1	1										
Nagel (in die Wand) schlagen		1		1									
Namen tragen		1	1										
Nase passen		1	1										
aber natürlich		1		1									
auf die Nerven gehen		4	1	1	1		3		1	1		1	1
Notizen machen		2			2								
totale Null (in etw.)		1		1									
in Ordnung		3	1	1	1		2		1	1		1	
Pause machen		1				1							
Pferde leiten			1			1				1	1	1	
Picnic machen			1			1							
Probleme lösen			3			3		3			3	3	
Programm laufen		1		1									
(Freizeit)programm spielt sich ab		1				1		1	1		1	1	1
Prüfung ablegen		1			1								
im Rampenlicht stehen		2		1	1								
Ratschläge bekommen		1			1								
Ratschläge geben		1			1								
zu (jds) Recht kommen		1	1		1		1	1		1		1	
Recht haben			3			3		3			3	3	
eine Rede halten			1			1	1			1	1	1	1
Reise machen		2			2								
Reparatur machen			1			1		1			1	1	
eine (große) Rolle spielen		3			3								
jdm. den Rücken frei halten		1			1		1		1		1		1
Rücksicht nehmen		1			1								
Scherzkeks		2	1	2		1	1				1		
schief laufen		1			1								
nicht schlecht		1				1							
die Schuhe anziehen			10			10		10			10	10	
(auf die) Schulter klopfen		2		1	1								
(der) Sinn bestehen		1			1								
Ski fahren		1	1	1		1		1			1	1	
aus Spaß		1			1								
Spaß machen		7		4	2	1		1			1		
spazieren gehen		1			1								
Spaziergang machen		1				1							
ein Spiel verlieren			1			1				1	1	1	
Sport treiben		4	2	1	2	3		2		1	2	1	
Sport machen		4	8	2		10		8	8		8	8	8
bei der Stange halten			1			1	1		1		1		1
etw. Jdm. gut stehen			1			1				1	1	1	
Stelle verlieren		1				1							

	언어 선정		제시영역				언어의 연습/활용				제시형태		
	주제, 기능	언어	제시문	과제	문법	어휘	의미	활용	확장	패턴	영시적	대안적	의미관계
Strategien entwickeln		1				1		1			1	1	
Streit führen	1		1										
Streithammel		1				1	1				1		
Technik beherrschen	1					1		1					
Temperament haben	2		1	1									
Lauter Termin	1			1									
Test machen	1		1								1		
Theater spielen		1				1				1	1	1	
Tiere halten	1		1								1		
Tisch decken	2	1	1	1		1		1			1		
Traum erfüllen		1				1		1			1		
Übungen machen	1		1										
Umstände mchen		1				1		1			1		
Unterricht machen	1			1									
Urlaub machen	2		1			1							
Urlaub nehmen	1					1							1
Verantwortung tragen	1		1										
Vergnügen machen	1		1										
zum Vergnügen	1		1					1					
Verspätung haben	1		1										
Versprechen halten		1				1	1			1	1	1	1
Vorschläge machen	2		1	1									
Vorschläge annehmen	1		1										
Vortrag halten		1				1	1			1	1	1	1
(auf etw) Wert legen	4			3		1		1					
Witze reißen	4		2	1		1							
Wünsche erfüllen	1					1	1						
Zähne putzen	3	1		2		2		1			1	1	
Zeit vertreiben	1			1									
Zeit nehmen	1		1										
in der Zeitung stehen		1				1				1	1	1	
Wäsche waschen		1				1		1			1	1	
Blumen gießen		1				1		1			1	1	
Gespräch führen	1					1							
Termin machen	1					1							
schlechte Nerven haben		1				1	1				1		
<b>&lt;관용어&gt;</b>													
ab und zu	5	1	2			4		2		1		1	
auf Achse sein	2					1	1		1	1		1	1
auf einmal	1			1									
auf jeden Fall		1				1	1			1		1	
auf keinen Fall	3	1				3	1	1		1		1	
aus allen Wolken fallen	1					1							
bei etw. Den Kürzere	2					2							1
bis aufs Messer kämpfen	1			1									
Das geht Sie nicht an		1				1	1			1		1	
Das geht zu weit		1				1	1			1		1	

	주제, 기법	언어 선정	제시영역				언어의 연습/활용				제시형태		
		언어	제시문	과제	문법	어휘	의미	활용	확장	패턴	명시적	패턴정	의미관계
Das ist genug		1				1	1		1		1	1	
Das ist meine Sache		1				1	1		1		1	1	
Das macht nichts		1				1	1		1		1	1	
Das(es) geht nicht	2		1	1									
der alte Affe	1			1									
ein voll behütetes Ki	3	1	1	2		1		1			1	1	
es gibt	20		8	11		1	1				1	1	
es kommt darauf an	1			1									
es läuft	1					1							
Grüß Gott	1	1	1			1	1	1	1		1	1	1
im Allgemeinen	1	1		1		1	1				1		
im Kommen		1				1	1	1	1		1	1	1
In der Regel	1		1										
jeder kennt jeden	2		1		1								
tut mir leid	5	4		1	3	5	4	2	2		4	2	
vor allem	3	2			3	2	2				2		
Wie geht es	3	1	1		1	2	2		1		2		1
zum Beispiel	15		5		9	1	1		1		1		1
zur Zeit	5		2		3								
Tag und Nacht		1				1	1				1		
die Stunden zählen		1				1	1				1		
rund um die Uhr		1				1	1				1		
누적빈도	302	116	109	95	47	167	46	76	33	16	121	81	29
총 제시 빈도 :	418												
총연어수:	208개			언어 연습 및 활용:			83개	명시적 제시:			84개		

(ㄱ)												
가	선정	제시영역					언어의 연습/활용			제시형		
가가	제/기	언어	임의적	제시문	과제	문법	어휘	의미	활용	확장	패턴	병사조
가가가	A	B	C	E	F	G	J	K	L	H	I	J
고장난 수도꼭지(눈물)	1						1					
그림의 떡	2			1		1						
꿀 먹은 병어리	1			1								
누워서 떡먹기		1			1							1
눈감아 주다(한 번만-)	3			2			1					1
손가락에 장을 지지다	3			2			1					1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3			2			1					
손이 없는 날		1					1	1		1	1	1
식은 죽 먹기		1			1							1
아 다르고 어 다르다	1	1		2								1
엎드려 절받기		1			1							1
입에 쓴 약												
제 눈에 안경	4			1	2	1	1					
쥐 꼬리만하다(월급은-)	4			2		1	1					1
하늘의 별따기	2	1		1	1	1						2
혹을 떼다												
십년 감수하다	1	1		1			1	1				1
바람(을) 맞다(약속)	1			1								
뒤집어 씌우다(누명)			1				1					
총 관용어 수 : 19	26	7	1	16	6	4	9	2		1	1	11
총 제시 빈도	34							4				



